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27-04
2011 연구보고서 15-3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김이선 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연구책임자 : 김 이 선 (본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민 무 속 (본원 선임연구위원)

김 경 미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주 유 선 (본원 연구원)

연구 조 원 : 이 정 원 (본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과 외부 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1-27-0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총괄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2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 예산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3	다문화사회 정책 거버넌스 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한국정책학회
11-27-04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27-05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1-27-06	노동이주 추이와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사회학회
11-27-07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기원 숙명여자대학교 산업·정책대학원 조교수 주유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순미 전북대학교 강사
협력 연구 기관	한국정책학회	최무현 상지대학교 부교수	박흥순 호남신학대학교 연구교수 김경희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민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미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주유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교육 개발원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오성배 동아대학교 조교수 박균열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사회학회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여정희 University of South Dakota 조교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황정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조교수	문경희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신미나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연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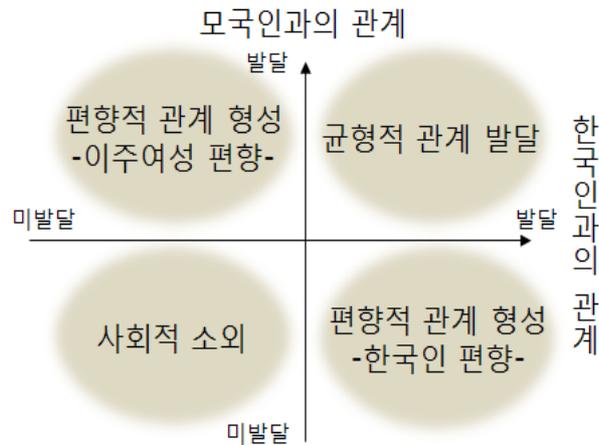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이주자들은 이주에 따라 기존에 형성, 발달시켜 왔던 사회적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발전하는 것은 이주자 개인 뿐 아니라 전반적 사회통합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이주자 개인적 차원의 고립 및 이주자 집단의 사회적 고립은 사회통합의 결정적 도전요인 및 다문화사회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본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는 사회통합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함.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이주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사회적 관계는 이주사회(목적지사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임.
- 한국사회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를 일부 찾아볼 수 있으나, 정책 지향적 관점에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점검하고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 발전의 장애요인과 극복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찾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또한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적응 차원에 초점을 맞춰오면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는 우선적 관심사에서 제외되어 옴.
-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결혼이민자의 개인, 가족적 특성이나 사회관계 유형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관계 차원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집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양상,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성 등을 다룬 기존 연구를 한국사회 결혼이민자에게 줄 수 있는 함의 중심으로 종합 분석.
-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모국인과의 관계망, 한국인과의 관계망을 두 축으로 삼아 관계망이 전반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사회적 소외형, 두 축 중 한 축에 집중되어 있는 모국인 편향형과 한국인 편향형, 두 축의 관계가 고루 발달한 균형형으로 유형화함.



[그림 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 분류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 재구성 양상, 증진요인 및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함.

나. 연구방법

- 이주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국내외 기존 연구,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국내 기존 연구를 리뷰.
- 한국사회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 파악을 위해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재분석.
-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 관계 현황에 대한 구체적 파악 및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권·충청권 8개 시·군 거주 중국(조선족 제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5개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54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변화 과정을 포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결혼이민자 24명 대상 인터뷰 실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전문가 워크숍 개최를 통해 본 연구의 적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3.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국 거주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임. 사회적 관계에 관한 문항은 제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나 결혼이민자의 성별, 가족관계, 지역 등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은 모국인(38.4%), 한국인(36.6%)이었으며 아무도 의논하지 않는 사람도 15.7%임. 모국인, 한국인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회적 관계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의논하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크고, 여성의 경우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국적별로는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태국, 일본 사람들은 주로 모국인과 의논하는 경향이 있음. 일본인은 모국인과 한국인 모두와의 관계망이 두터운 편임.
- 의논 대상이 있는 여성의 경우,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논대상이 모국인에서 한국인으로 뚜렷이 변화함. 남성의 경우에는 거주기간별 변화가 크지 않음. 또한 한국인과 모국인 양측에 의논상대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거주기간 장기화와 사회적 관계의 균형적 발달의 관계를 찾기 어려움.
- 여성의 경우 동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에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음.
- 여성의 경우 직업 유무에 따른 변화가 큼. 직업이 있는 경우 한국인과 의논 비율이 높고, 일한 적이 없는 경우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남녀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한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높아짐.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 한국인과 모국인 모두와 의논하는 비율이 높았음.

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배경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생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등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이 타 국적에 비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게 나타남. 한편 거주기간이 길수록 차별 경험 지수는 낮아짐.
-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은 모국인보다 한국인과의 교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출신 여성은 타 국적 여성에 비해 가족의 지지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캄보디아출신 여성의 가족 지지 정도는 가장 낮았음.
-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원기관 이용 빈도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은 한 달, 혹은 서너 달에 1~2번 정도 지원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용 빈도는 감소함.

- 전반적으로 자신의 한국어능력을 보통(3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어실력은 높아짐. 직업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있는 사람이, 취학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자신의 한국어실력을 높게 평가함.
-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외부활동을 살펴보면 친목동호회에 가장 많이 참여(55%)하고 있고, 종교단체(38%), 학부모모임(31.9%)의 순임.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학부모모임, 시민단체, 종교단체의 참여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현재 각종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향후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 의향은 상당 수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각종 단체나 모임의 참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 획득, 정서적 안정,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인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함.
-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지수는 평균 3.44점(5점 만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임. 영역별로 보면 경제수준(3.09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 문화적 유능감은 크게 세 영역(의사소통 유능감,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으로 나누어 살펴봄.
 - 의사소통 유능감은 중국과 일본 출신이,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은 필리핀 출신이, 문제해결 유능감은 필리핀과 일본출신이 높게 나타남. 캄보디아 출신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타국적에 비해 유능감이 가장 낮았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능감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개수는 평균 1.28개로 나타남. 필리핀과 일본이 다른 국적에 비해 정기참여 모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적었음.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정기참여 모임의 수는 일관되게 높아짐.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제 양상

- 여성결혼이민자가 결혼 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의 수는 평균 11.1명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9.3명으로 나타나, 결혼을 전후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크기는 감소하였음.
-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 구성은 모국인 친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남편의 가족, 한국인 친구의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인과 한국인 연결망 모두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때 이용되는 주요 통로는 결혼이주민행사였으며, 그 뒤를 이어 교육프로그램, 친목 및 취미모임 등도 주요한 관계 형성 통로였음.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는 이웃주민이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자신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 평가시, 여성결혼이민자는 모국인보다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맺고 싶은 관계에서도 모국인보다 한국인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

-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의 경우 소외형이 많았으며, 중국은 한국인 편향형이, 필리핀은 균형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주목할 만한 점으로 일본출신은 모국인 편향형이 두드러지게 많았는데, 이는 일본출신이 타국적에 비해 거주기간이 길며,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되어있기 때문으로 추측됨.
- 균형형의 평균 한국 거주기간(84.6개월)이 가장 길었으며, 소외형의 평균 거주기간(66.2개월)이 가장 짧았음.
-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에서는 한국인 편향형이 평균 11.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균형형(11명), 모국인 편향형(10.1명), 소외형(1.5명)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통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통합의 지표로 한국생활만족도, 문화적 유능감(의사소통 유능감,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 사회생활 참여도를 설정하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 사회적 관계유형에 따른 사회통합수준을 살펴봄.

- 한국생활만족도: 응답자연령이 낮을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생활만족도는 높아짐. 또한 차별경험이 낮을수록,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짐. 한국인편향형만이 소외형에 비하여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으며, 다른 유형은 차이가 없음.

- 문화적 유능감: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한국어능력이 좋고 차별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의사소통유능감이 높아짐. 소외형에 비하여 한국인편향형이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으며 다른 유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유능감은 높아지며, 한국어능력이 좋고, 차별받은 경험이 적으며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지지가 강할수록 문화적응 및 이해유능감은 높아짐. 소외형에 비하여 한국인편향형과 균형형이 유능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수록, 취학자녀가 있고, 일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문제해결유능감이 높아짐. 또한 한국어능력이 좋고, 차별받은 경험이 적으며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지지가 강할수록 문제해결 유능감은 높아짐. 문제해결유능감은 다른 유능감 요소와 달리 사회적 관계 유형과의 관계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음.

□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의 수로 사회생활참여도를 측정한 결과 거주기간이 길수록, 지역사회에서 제공한 교육 및 서비스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일한 경험이 많을수록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의 수가 많아짐. 소외형에 비하여 다른 세 가지 유형 모두가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임. 근소한 차이이나 인구학적 변수 및 매개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균형형의 참여모임의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한국인편향형, 모국인 편향형의 순으로 나타났음.

- 소외형은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에 비해 일관되게 낮은 사회통합 수준을 보여 향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집단임. 모국인 편향형의 사회통합 수준 또한 소외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관계망에서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모국인과의 관계가 사회통합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여 주목할 만한 결과임.
-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이나 매개변인들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에도, 한국인 편향형 집단은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 의사소통 유능감이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균형형이 사회통합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상반됨. 이는 가족단위의 이민과 달리, 단독으로 이민을 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균형형은 사회적 참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 유형이 사회적 자원과 정보원을 풍부히 가지는데 유리한 집단임을 시사해주는 결과임.
- 사회적 관계유형 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차별경험,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 등이 사회통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드러남. 이민자의 지원기관 이용 빈도, 각종 지역자원 활용도는 이들의 사회통합에 기대보다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

5.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

-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이주 초기 사회적 관계의 공백을 경험함. 초기 이주 여성, 단독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큼. 또한 남편과 단둘이 핵가족을 이루거나 결혼 초기 임신과 출산 경험을 하는 경우 사회적 관계의 제약 가능성이 더 커짐. 이외에 지역적으로 고립된 경우, 가족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는 사회적 관계 발달이 제약되는 양상을 보임.
- 많은 경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국인이나 언어권이 같은 이들과 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의 공백에서 벗어나기

시작함. 이러한 관계는 때로 정기적 모임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이주목적과 상관없이 동향출신 이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조직이나 온라인 네트워크로 발전되기도 함.

- 이주 초기 겪는 어려움 속에 모국인들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가족 내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각종 어려움,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며 ‘유사 친족’ 역할을 하며 상호 지지 작용을 함.
- 한국어 습득 등 초기 적응이 진행된 후에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모국인 네트워크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결혼이주의 역사가 긴 국가의 경우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발휘되는데 반해, 결혼이주의 역사가 짧은 국가 출신은 서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모국인 관계망 안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음. 또한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폐쇄성, 부정적 측면으로 오히려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며 사회적 관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관찰됨.
- 가족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족내부에서의 가교지향적 관계 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또한 가족들의 태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가족의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부정적인 경우에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부정적인 태도는 특히 모국인들과의 관계에 집중된 것이 많음.
- 이혼, 사별로 인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를 통해 형성된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또한 이혼, 사별로 인해 가족관계의 공통점이 줄어들면서 모국인들과의 관계 역시 위축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이들은 자녀 돌봄 등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적어지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하게 됨.
- 많은 경우 모국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던 여성결혼이민자도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한국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함.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은 주로 가족원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며,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음.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이

나 사회활동이 일시적이거나 만나는 한국인들과의 큰 연령차, 한국어 소통의 문제,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만난 이들과의 관계도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이상으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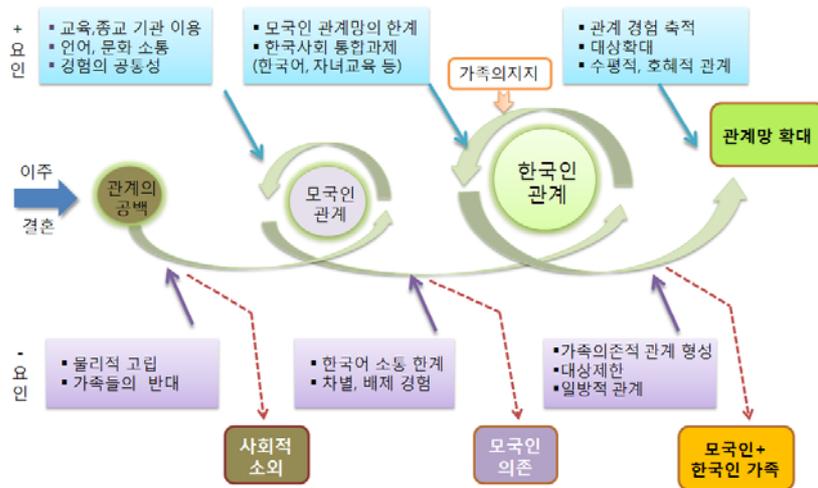
- 상이한 배경의 한국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점차 한국인과의 가고 지향적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발견되며, 이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필요함. 특히 자원봉사나 클럽활동과 같이 주류사회의 주요 기관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관계 형성이 주효함. 이러한 관계는 일방적인 것에서 벗어나 서로 도움을 받고 주는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본 연구의 인터뷰, 설문조사,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사회적 관계의 공백이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안녕과 가족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공백이 갈등이나 위기상황에 직면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함.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함. 한국생활 초기 결혼이민자가 가족 외부, 특히 모국인 집단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가족원들의 부정적 태도가 한가지 주요 요인임.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과 관계 경험의 제약, 한국인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태도, 가족원들의 일관되지 못한 지지 등을 꼽을 수 있음.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과의 관계가 배우자나 자녀를 매개로 형성되고, 이외 지원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맺는 한국인과의 관계는 형식적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호혜적인 관계로 이어지기 어려움. 동향 출신 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인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례를 통해 볼 때 학교, 단체 등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국인들과의 자

원봉사 활동, 한국인 대상 모국어나 문화 교육 제공 경험 등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축적하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됨. 아래 그림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 양상과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요인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주요 요인

나. 정책제언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확립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관련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향후 기본계획의 핵심 정책목표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전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소외 위험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 사회적 소외 가능성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특히 물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이혼 및 사별 등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겪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대안이 시급함.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족 지지 확립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있어 가족 지지 확립이 필요함. 남편 또는 시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상담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함.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인 관계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한국인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기회 확대

- 기존 멘토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한국어 등도 준비된 시점에서 한국인과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센터, 학교, 지역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결혼이민자의 관심과 특수성에 적합한 활동 분야를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결혼이민자 모국인 네트워크의 기능 확립

- 결혼이민자의 모국인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립하여 동향출신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관계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기관, 단체, 기업 차원의 인종·문화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 실시

- 기관, 단체, 기업 차원의 인종·문화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중장기적 컨설팅과 교육,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8
II. 기존 연구 리뷰 및 원자료 분석	11
1. 이론적 배경	13
가. 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사회적 관계	13
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2.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23
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결혼이민자의 특수성	23
나. 사회적 관계의 양상	26
다.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7
3.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	32
가.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의논 상대	32
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34
4.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주안점	41
III.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	43
1. 조사 개요	45
가. 조사 내용	45
나. 주요 변수	46

다. 조사방법	49
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1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배경	55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경험	55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외부 활동 양상	60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 수준	69
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제 양상	73
가. 결혼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73
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	80
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평가	82
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과 관련 변수	86
가. 사회적 관계 유형별 특성	86
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한국생활 경험의 차이	89
5.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의 관계	92
가. 사회적 관계 유형과 한국생활 만족도	92
나. 사회적 관계 유형과 문화적 유능감	95
다.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생활 참여도	102
6. 소결 :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104
IV.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	109
1. 인터뷰 개요	111
가. 인터뷰 대상	111
나. 인터뷰 내용	117
2. 이주와 사회적 관계의 공백 경험	120
가. 한국생활 초기의 사회적 관계 공백	120
나. 사회적 관계 미발달의 지속	122
다. 위기 상황에서의 지지망 기능 한계	123
3. 모국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물꼬 트기’	124

가. 모국인 관계 형성 계기	124
나. 유대 지향적 관계의 지지망 효과	128
다. 모국인 관계의 한계	133
4. 사회적 관계 발달과 ‘한국인의 가족원’ 이라는 특수성	137
가. 가족내 가교지향적 관계의 가치	137
나. 가족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138
5. 가족 외부의 한국인: 관계 질서 재편의 시험대	142
가.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시도	142
나. 관계 형성의 한계	145
다. 가교 지향적 관계의 가치 확인과 관계 발달 가능성	149
6. 소결	154
가. 사회적 관계 미발달의 위험성	154
나. 사회적 관계망의 두 축: 모국인 관계 - 한국인 관계	155
다. 가족 의존적 관계 형성의 한계와 변화 가능성	156
V. 결론 및 정책제언	159
1. 결론	162
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사회적 관계의 가치	162
나. 사회적 관계의 자원	163
다. 사회통합의 진전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166
라. 사회적 관계 발달의 장애요인과 극복 가능성	168
2. 사회적 관계 발달과 현행 정책의 효과	171
3. 정책 제언	173
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기초 확립	173
나. 사회적 소외 위험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175
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족 지지 확립	176
라. 한국인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기회 확대	176
마.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	178

바. 결혼이민자 모국인 네트워크의 기능 확립	179
사. 기관, 단체, 기업 차원의 인종·문화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 실시	181
■ 참고문헌	183
■ 부 록	185
<부록 1>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187
<부록 2> 설문조사표	194
<부록 3> 인터뷰 문항	206
■ Abstract	211

표 차 례

<표 II-1> 이민자의 사회 자본 유형	17
<표 II-2> 성별, 혼인상태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34
<표 II-3> 국적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36
<표 II-4> 거주기간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37
<표 II-5> 지역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38
<표 II-6> 직업 유무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39
<표 II-7> 소득별, 학력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40
<표 III-1>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54
<표 III-2> 인구학적 특성별 차별경험	56
<표 III-3> 인구학적 특성별 각종 교육 및 서비스 수혜정도	58
<표 III-4> 인구학적 특성별 한국어 능력	60
<표 III-5>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	62
<표 III-6>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 및 모임 향후 참여의사	64
<표 III-7> 국적·거주기간별 한국인 위주의 사회집단 참여율	66
<표 III-8> 국적·거주기간별 모국인 위주의 사회집단 참여율	67
<표 III-9> 국적·거주기간별 사회단체 및 모임참여를 통한 변화	68
<표 III-10> 인구학적 특성별 한국생활 만족도	70
<표 III-11> 인구학적 특성별 문화적 유능감	71
<표 III-12> 인구학적 특성별 정기 참여 모임 수	72
<표 III-13> 결혼 전후로 변화한 사회적 관계 크기	74
<표 III-14>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 크기	75
<표 III-15> 국적·거주기간별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	82
<표 III-16> 국적별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적절성 평가	84
<표 III-17> 국적별 한국에서 향후 맺고 싶은 사회적 관계	85
<표 III-1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화	86

<표 III-19> 사회적 관계 유형별 세부 구성	87
<표 III-20> 사회적 관계 유형별 국적 분포	88
<표 III-21> 사회적 관계 유형별 거주기간 및 관계망 크기	89
<표 III-2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93
<표 III-23> 한국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94
<표 III-24> 사회적 관계 유형별 문화적 유능감	96
<표 III-25>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97
<표 III-26>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99
<표 III-27>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101
<표 III-28> 사회생활 참여도에 대한 회귀분석	103
<표 IV-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적 사항	114

그림 차례

[그림 I-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 분류	7
[그림 II-1] 가족단위 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 구조	25
[그림 II-2]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의논 상대 (%)	33
[그림 III-1] 연구모형 설계	46
[그림 III-2] 국적별 가족의 한국인·모국인 교류 지지도	57
[그림 III-3] 거주기간별 각종 교육 및 서비스 수혜정도	58
[그림 III-4] 국적별 지원기관 이용 빈도	59
[그림 III-5] 거주기간별 지원기관 이용 빈도	59
[그림 III-6]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 현황	61
[그림 III-7] 참여단체·모임의 한국인 및 모국인 구성	65
[그림 III-8]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를 통한 변화	68
[그림 III-9] 결혼이주 전후 사회적 관계 구성 비율의 변화	74
[그림 III-10] 한국에서의 주요 사회적 관계 유형	75
[그림 III-11]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관계 크기 변화	76
[그림 III-12] 국적별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관계 크기의 변화	77
[그림 III-13] 영역별 사회적 자원의 크기	78
[그림 III-14] 배우자 및 시대문제 의논 상대	78
[그림 III-15] 자녀 맡길 수 있는 상대	79
[그림 III-16] 자녀교육 상담 상대	79
[그림 III-17] 도구적 자원 : 한국인과 모국인 구분	80
[그림 III-18] 도구적 자원 : 가족과 비가족 구분	80
[그림 III-19]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	81
[그림 III-20]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적절성 평가	83
[그림 III-21]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적절성 평가	83
[그림 III-22] 한국에서 향후 맺고 싶은 사회적 관계	84

[그림 III-23] 거주기간별 향후 맺고 싶은 관계	85
[그림 III-24] 사회적 관계 유형별 한국어 능력	89
[그림 III-25] 사회적 관계 유형별 한국인과의 교류 지지도	90
[그림 III-26] 사회적 관계 유형별 모국인과의 교류 지지도	90
[그림 III-27] 사회적 관계 유형별 차별 경험	91
[그림 III-28] 사회적 관계 유형별 지역자원 활용도	91
[그림 III-29] 사회적 관계 유형별 지원기관 이용 빈도	92
[그림 III-30] 사회적 관계 유형별 한국생활 만족도	93
[그림 III-31] 사회적 관계 유형별 정기 참여 모임의 수	102
[그림 V-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주요 요인	169

I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이주는 인간의 삶을 재구성하는 결정적 계기이다. 특히, 이주와 함께 기존에 형성, 발달시켜 왔던 사회적 관계망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과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이주자 개인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 가족관계 발전 뿐 아니라 전반적 사회통합에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은 당사자가 원하는 바를 획득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자원 내지 자본의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 이주자의 경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며, 이들의 사회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통합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각종 기회에 접근하는데 있어, 사적·공적 지원에 접근하는데 있어 사회적 관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상에서 제기되는 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 사회적 관계를 정의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접근하고자 한다.

사회적 관계가 이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 지니는 중요성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일례로 Berry(1997)는 이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사회적 접촉, 지지, 사회적 태도 등 사회적 관계의 제반 측면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이주자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연령이나 성별, 교육수준, 건강, 언어, 문화적 거리, 사회적 지위, 이주의 주요 동기 등 이주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요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는 적응 과정 중에 발달되는 동시에 적응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특수성이 있다. 그런 만큼 이주사회(목적지사회)가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는 여타의 요인에 비해 사회적 관계는 이주사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4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이주자 개인의 적응 뿐 아니라, 인구 구성의 다양화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모색하는데 있어서도 중시되어야 한다. 이주자의 증가가 사회적 차원에서 야기하는 다양한 편익 가운데에서도 이주자 집단의 사회적 고립은 가장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큰 문제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9; 김이선 외 2010: 16-20). 개인적 차원의 고립은 개인적 적응이나 가족관계 발달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 해당자의 사회통합 진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주류 집단과의 관계는 발달하지 못한 채 이주자 공동체만을 중심으로 관계가 발달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결정적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양상은 소수집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결과이자 또 다른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다문화사회의 주요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주자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해결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주자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는데 있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편으로 소수집단인 이주자 공동체와 다른 한편으로 주류집단 사이의 관계의 균형성이다.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한편으로 이주자 공동체, 다른 한편으로 주류 집단과의 균형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이주자 공동체 및 주류집단과 균형적 관계를 맺는 이주자들의 경우 적응이 가장 성공적인 반면, 그 어느 쪽과도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한 이들의 적응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주자 공동체와 주류집단 중 어느 한쪽 중심으로 관계가 발달한 이주자들이 중간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Berry & Kim 1988; Berry & Sam 1997; Berry 1997: 25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종족 공동체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 과정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원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가 급증

하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도 일부나마 시도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이나 사회활동 현황 분석에 집중하고 있을 뿐, 정책 지향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적절한 사회적 관계 모델을 기초로 사회적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사회적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과 극복 가능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제한된 연구와 결혼이민자의 생활 전반을 다루면서 사회적 관계도 포함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균형적 관계 발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혼이민자 가운데에는 균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심지어 결혼이민자 공동체나 한국 사회 그 어느 방향으로도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한 채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는 이들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등 균형적 관계 발전의 제약이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안녕이나 가족관계,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어교육과 같이 결혼이민자의 개인적 적응 차원에서 즉각적 문제, 자녀 양육을 위시한 가족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에 비해, 개인적 적응과 가족관계, 나아가 사회 통합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관계 이슈는 정책의 우선적 관심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처럼 사회통합에 있어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 적지 않은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정책의 사회적 영향력 차원에서도 사회적 관계는 중시될 필요가 있다. 특수주의적 지원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이 결혼이민자,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의 대상으로 위치 지움으로써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해된다는 결정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여성결혼이민자를 바라보는 접근은 결혼이민자에 대해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결혼이민자의 개인, 가족적 특성이나 사회관계 유형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관계 차원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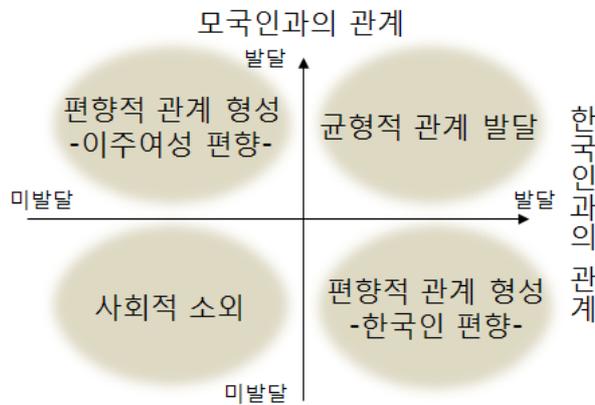
가. 연구내용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다양하게 맺는 사회적 관계가 사회통합 상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통합과의 관련성에 접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 양상,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관련성 등을 다룬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와 관련된 서구의 연구가 일반적인 가족단위 이민자를 중심으로 발달된 만큼, 이러한 연구 결과가 한국사회 결혼이민자에게 지닐 수 있는 함의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현황을 제한적 차원에서나마 파악하고 성별, 출신국가별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는 한편으로 동질성을 기초로 한 관계, 특히 모국인과의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이질성을 기반으로 한 관계, 특히 주류사회 성원과의 관계라는 두 축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두 축간의 조합에 따라 사회적 통합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모국인과의 관계 및 한국인과의 관계 발달 여부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사회적 관계의 유형을 크게 관계망이 전반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사회적 소외형, 두 축 중 한 축에 집중되어 있는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두 축의 관계가 고루 발달한 균형형으로 유형화하고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사회 통합의 제반 측면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사회 통합간의 연관성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기존에 가족단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연관성에 있어 결혼이민자가 지니는 일반성과 특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림 1-1]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 분류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이주와 한국생활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관심과 요구, 실제 관계 양상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바를 포착하고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증진요인, 장애요인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8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이러한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논의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관계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기존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 연구방법

이러한 연구내용에 접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이 동원되었다.

1) 기존연구 리뷰

이주와 사회적 관계에 관한 국내외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사회통합의 자원으로서 사회적 관계의 효과를 파악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제한적이거나 발표되고 있는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국내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관계에 있어 보이는 특수성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2)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전반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재분석하였다. 물론 해당 원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나, 성별이나 국적, 거주지역, 가족구성 등에 있어서 비교적 다수의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원자료의 특성을 살려 결혼이민자의 성별이나 출신국적 등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구성 등에 따라 사회적 관계 양상을 비교하였다.

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설문 조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에 본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상권, 충청권 8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조선족 제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5개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4) 인터뷰를 통한 사례연구

설문조사와 함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변화 과정을 포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며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에 대한 함의를 얻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 2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및 세부 내용은 해당 장에서 상세히 기술될 예정이다.

5)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 전문가 워크숍

본 연구의 방향설정 및 연구 내용, 연구 방법에 대한 전문가 회의를 연구 착수 단계(3.25)부터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계획 및 내용에 대한 현장 전문가 워크숍(5.18), 전문가 자문회의(6.9)도 각각 실시하였다. 전문가 자문회의에는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였고, 현장 전문가 워크숍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자들이 참여하여 설문조사의 현장적합성 제고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와 더불어, 연구 최종 단계에서 본원 다문화 협동연구 세미나(9.23)의 일환으로 연구결과를 발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전반적 연구방향 및 연구방법, 주요 연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의 적실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II

기존 연구 리뷰 및 원자료 분석



1. 이론적 배경

가. 이민자의 사회 통합과 사회적 관계

1) 사회통합의 자원: 사회적 관계

인간의 삶은 ‘인간들 사이에서’ 직, 간접적인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는 필연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구성해온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인간과 관계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을 동반한다.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이야말로 이주민의 ‘탈구적 상황(dislocation)’을 대표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주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본거지로부터의 이주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정착, 그리고 일부의 경우 다시 예전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귀환에 이르는 이주의 전 과정에서 이주민이 사회적 관계를 동원하는 바, 각 단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이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척되어 왔다. 이주 단계에 있어서는 사회적 관계가 이주의 결정과 방향,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로 조명되어 왔으며, 특히 보다 일찍 이주한 이들과의 혈연, 지연 등을 기초로 한 관계와 정보 교류를 통해 국경을 넘은 이동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이주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Garcia 2005: 5; 박경태 2001: 189-190; 김두섭 외 2008: 39).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는 이주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주민의 개인적, 집합적 삶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Berry(1997)은 이민자의 심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적응 내지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집단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구분해 제시하면서 두 차원 모두에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집단적 차원에서는 정착지 사회에서 종족 공동체로부터의 사회적 지지, 보다 큰 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적 차원에서도 인구학적 요인, 이주 관련 요인, 문화적 요인, 인성적 요인 등과 함께 사회적 지지, 적응 전략과 이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 등에 따라 장기적 적응 양상과 정도에 영향

을 미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서 적응 과정에 있는 이민자를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자 그 자체가 사회통합의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민자를 비롯한 개인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거나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물질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도 가치가 있다는 점은 주로 ‘사회적 자본’ 개념을 통해 접근되어 왔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의 다소 제도화된 관계의 지속적인 연결망, 즉 집단 성원권의 소유와 관련된 실질적, 잠재적인 자원들의 총체로서 그 성원들에게 집합적으로 소유된 자본의 지지, 즉 신용을 부여하는 “신임장”과 같은 것’ (Bourdieu 1986: 248-249), ‘기대된 보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관계에 내재된 자원에 대한 투자와 그 이용’(Lin 2000: 786) 등으로 개념화되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그것이 자원으로 지니는 가치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러한 차이가 정신건강을 비롯한 삶의 질과 기회에 대한 접근 가능성, 사회·경제적 성취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주민을 비롯한 종족 공동체와 관련해 사회적 자본을 접근한 연구로는 미국사회의 흑인, 히스패닉 등과 같은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 보이는 특수성이나 사회적 자원의 양과 다양성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 수준을 파악하는 연구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이주민 집단은 주류사회 성원들에 비해 사회적 자원이 열악하며 이것이 세대를 거쳐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모든 이주민 집단이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사회적 자원의 수준 역시 이주민 집단 간에도 차이가 있는데(Lin 2000: 789), 중요한 것은 사회적 관계에 내재된 자원의 차이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사회적 자본은 가치 있는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키며 고용, 진급 등 해당자의 삶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당사자의 사회적 신뢰와 정체성에도 영향력

을 발휘한다.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차원을 총괄한 사회통합에 있어서도 사회적 관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유대와 신뢰 등 시민으로서의 심리적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능한다(Lin 2001; Hagan 1998).

물론 이민자의 사회 통합에는 사회적 관계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회적 관계는 정착지 사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연령이나 학력, 출신국적 등의 인구학적 요인, 이주 동기와 이주 과정 등은 이미 이주 이전에 상당 부분 결정되어 있어 정착지 사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반면, 사회적 관계는 이주와 함께 새롭게 재구성되는 만큼 정착지 사회의 제반 요소에 따라 변화 가능하며 그 만큼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

2)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이주민의 특수성

이민자 사회통합, 다양성 관리 등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적 자본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 들어서이다(Cheong et al. 2007).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 통합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이민자가 형성하고 자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광범위하며 사회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가 서로 비교되고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통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모아져 있다.

가) 집단내 유대/ 집단간 가교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내재된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비교적 동질적이고 수적으로 제한된 대상과의 중층적이고 강한 연계(strong ties)인지 보다 광범위하고 이질적인 대상과의 간헐적이고 약한 연계(weak ties)인지에 따

라 서로 비교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주민에게 있어 종족 공동체는 가족, 친족과 함께 비교적 동질성을 공유하는 이들 간에 강한 연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 계기를 제공한다.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이민자들 간에 혈연이나 지연, 종교, 계약 관계 등을 토대로 형성되는 비교적 강한 연계가 생존과 사회통합의 자원으로 기능하는 바는 여러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다(Garcia 2005). 특히, 사회통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주민 거주지를 중심으로 발달한 소수민족 경제가 이민자들이 사업가로서, 노동자로서 노동 시장에 진입,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 바 있다(Wilson and Portes 1980; Portes and Stepick 1985; Lin 2000: 789 재인용).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과정을 추동하는 심리적 차원에서도 자신과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니는 이들과의 연계가 이민자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ega et al. 1991).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가치에 접근하는데 있어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종족 공동체 내부의 관계와 함께 종족공동체 외부자와의 관계, 특히 주류사회 성원들과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에는 관계의 공고함과 함께 관계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기회의 다양성이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성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나 기회는 다양성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즉, 종족 공동체 내부의 관계는 공동체 외부의 보다 이질적인 대상과의 관계에 비해 자원이 풍부한 네트워크로 발전되기 힘들며, 집단을 가로 지르는 연계(cross-group ties)야말로 보다 나은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Lin 2000: 787).

이처럼 한편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비교적 유사한 이들과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여러 측면에서 이질적인 이들과 맺는 관계가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접근하는 데에는 종족공동체 내/외를 기준으로 관계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와 관련해 Putnam(2007)은 다문화사회의 사회 자본을 이해하는데 있어 ‘나와 중요한 부분에서 같은 (것

으로 인식되는) 사람에 대한 연계’와 ‘중요한 부분에서 같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에 대한 연계’를 구분하고 각각을 유대 지향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가교 지향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개념화하였다. 그 자신은 이민자의 증가가 공동체 차원의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데 주목했을 뿐 서로 다른 성격의 사회 자본이 사회통합에 있어 지니는 의미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이후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다룬 여러 학자들에 의해 유대 지향적 사회 자본과 가교 지향적 사회자본이 사회통합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유대 지향적 사회 자본은 이민자들에게 낯선 환경에서의 보호와 위협 관리, 결속력 등의 면에서 도움이 된다면, 가교 지향적 사회 자본은 경제적 기회와 다양한 정보와 같은 실질적 이해 측면에서 자원으로서의 효용을 지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Woolcock and Narayan 2000).

〈표 II -1〉 이민자의 사회 자본 유형

	유대 지향적 사회자본	가교 지향적 사회자본
당사자들의 배경	유사성	이질성
집단과의 관계	집단 내부 종족 공동체 내부	집단간 관계 주류사회와의 관계
관계의 성격	배타성	개방성
주요 기능	위기상황에서의 보호, 위협 관리, 결속력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접근성
통합 단계와의 관련성	이민 초기 단계에 중요	기본적 통합 이후에 중요

나) 사회적 관계의 유형과 사회통합

흔히 이주민에게 있어 종족공동체 내/외부의 연계는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종족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들로 구성된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종족 공동체 내의 신뢰와 공동체 간 신뢰는 상호 부정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다문화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집단 간의

긍정적 관계 발달의 가능성을 강조하는 소위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에서는 집단 간 관계가 종족적, 문화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내부 결속력의 극복을 기초로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데 비해, 다문화화에 따른 집단 간 갈등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은 공동체 내부의 결속력이 결국 집단 간 관계를 저해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집단 내부의 관계와 집단 간 관계를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Putnam 2007).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종족공동체 등이 결코 배타적인 구분막은 아니며 서로 다른 부문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것이 이민자 개인적 수준이나 사회 전반적 수준에서 이상적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 차원에서는 동질성을 기초로 한 유대 지향적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서로 다른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점점 다양해지는 환경 속에서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Putnam 2007).

이민자 개인의 차원에서도 유대 지향적 사회적 자본과 가교 지향적 사회적 자본은 사회 통합에 있어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양자 모두를 균형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때 사회통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주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이주민이 풀어야 할 과제가 변화하는 만큼,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사회통합에 있어서 지니는 효과 역시 변화하며 통합의 단계에 따라 보다 긴요한 사회적 관계가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이민자에게는 가족, 친족 등 유사한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확실하고 강한 연계가 중요하다. 사회적 관계와 이민자 통합을 다룬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이러한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 친족 기반 자원이 이민자의 적응에 미치는 단기적 효과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뭇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주류사회와 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이민자들에게는 중

족 공동체 외부의, 종족적, 문화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다양한 이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Menjivar(1994)는 샌프란시스코의 살바도르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친족 기반 네트워크가 이주 초기 단계에 직면하는 어려움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종족 공동체의 물질적 자원의 한계, 지역 경제의 부침 등으로 인해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Hagan 2007).

Berry 등을 중심으로 종족 공동체 내/외부와 관계와 정체성에 따라 이민자 집단의 적응 전략을 유형화하여 사회통합 수준을 유형별로 비교분석한 작업에서도 종족 공동체 내/외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유대 지향적 사회적 자본과 가교 지향적 사회적 자본 모두를 지니는 것이 사회통합에 있어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Berry는 이민자가 출신문화를 유지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는지, 새로운 환경에서 대면하는 다른 집단과의 접촉과 참여를 중시하는지에 따라 이민자의 적응 전략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구분·분리(separation·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통합 전략이란 출신문화를 유지하고 종족 공동체 내의 관계를 다지는 동시에 종족 공동체 외부와의 관계도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도 수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주변화는 종족 공동체 내부와도 외부와도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동화와 구분·분리는 종족 공동체 내/외부 중 어느 한쪽과만 관계를 발전시키는 경우로 종족 공동체 외부와의 관계는 무시한 채 내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구분·분리, 종족 공동체 내부의 관계는 간과하고 공동체 외부, 특히 주류사회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경우가 동화로 정의된다(Berry 1997).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 내지 정체성 유형이 사회통합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다. 관련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종족 공동체 내부와 공동체 간 관계 모두가 발달한 집단이 사회통합 면에서 가장 긍정적이라는 공통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사회통합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그 어느 쪽과도 관계를 발달시키지 못한 채 ‘주변화’된 이주자들이며, 이주자 공동체와 주류집단 중 어느 한쪽 중심으로 관계가 발달한 이

주자들이 중간 수준의 적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Berry & Kim 1988; Berry & Sam 1997; Berry 1997: 25 재인용). 이러한 경향은 다문화주의 경향이 강한 사회 뿐 아니라 소위 ‘동화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 등의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Schmitz 1992: 368; Berry 1997: 25 재인용). 이러한 결과에는 종족 공동체 내/외부에서 다양한 이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경우 사회적 지지체계가 다원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 통합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사회적 자원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주요 요인

이처럼 서로 다른 성격의 사회적 관계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이 모든 환경에서, 모든 이주민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관계 및 이와 관련된 자본의 수준은 소수집단과 주류집단 간에는 물론이고 소수 집단 사이에서도 불평등하게 분포해 있으며 사회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 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을 양적, 질적으로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이민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상은 흔히 개인의 학력, 젠더, 종족적 배경,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결국 사회적 자본 수준의 차별적 분포를 가져오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Lin 2000; Cheong et al. 2007). 사회적 자본의 불평등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보편적 설명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결정론적 시각에 입각하고 있어 유사한 배경을 지닌 이들이 사회적 관계와 자본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점,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이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유사성을 보이는 바 등을 설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실천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개인 수준의 전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사회적 자본 수준에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조건 하에서 긍정적 방향이 활성화되는지, 이민자와 관련해서는 어떤 여건 하에서 유대 지향적 사회자본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가고 지향적 사회 자본을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 내지 Berry의 유형구분에 따른 통합전략이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적 자본의 발전 양상과 효과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법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주된 요인으로는 일반화된 신뢰, 법치, 자유, 관료제의 질적 수준, 갈등관리제도의 효율성 등이 제기된 바 있다 (Woolcock and Narayan: 234-235). 공적인 차원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관계의 자원도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 박경태(2001)는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일부로 이주 전반과 관련된 NGO의 존재와 활동 범위 등을 조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수집단으로서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가능하게 하거나 저해하는 구조적 환경으로서 소수 집단에 대한 지배적 시각과 서로 다른 종족적 배경을 지닌 이들, 특히 주류사회 성원의 소수자와의 관계에 대한 요구로서 이와 관련해서는 소수집단에 대한 주류사회의 태도와 이를 구조화하는데 관련된 제도적 조치들이 주로 고찰되고 있다.

종족 공동체 내/외부 사이에서 이민자가 취할 수 있는 관계의 전략 중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통합 유형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주류사회의 개방성과 포용력을 전제로 하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낮을 때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사회통합에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주변화 내지 고립은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 강요된 동화에 기인할 가능성 크며, 동화와 구분·분리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취한 것처럼 보이는 전략이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배적인 구조에 의해 ‘강제’된 것인지에 따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공동체 내/외부와 관계에 대해 소수자인 이주민 집단이 보이는 태도와 행동, 이에 대한 주류사회의 시각에는 국가의 반-차별 조치, 공

공의례와 상징, 대중문화, 정당, 종교기관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Berry 1997: 10-12; Putnam 2007).

2) 젠더요인의 영향력

사회적 관계의 양상에 있어서, 관계가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보이는 차이는 여러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대부분이 연구에서는 남성에게 비해 여성은 가족이나 친족 관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으며 관계의 대상이 제한되고 일자리나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나 진급 기회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민자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와 젠더요인의 관계는 관심의 대상이다. 동일한 종족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도 종족 공동체 내부의 관계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으로는 가사와 자녀 양육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고 여성의 일자리를 이와 관련된 자리로 제한하는 지배적 젠더구조가 지적되어 왔다(Hagan 1997; Lin 2000: 787-788).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마야 출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Hagan(1998)의 연구는 젠더요인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사회통합 상에서의 성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이주 초기에는 마야 출신 이민자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차이가 부각되지 않지만, 점차 성별로 분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남성 이민자들이 같은 종족 공동체 출신끼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공동체 외부의 다양한 이들과도 연계를 발전시키는데 비해, 여성 이민자들은 점차 공동체 성원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다른 집단 성원들과의 관계도 발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사회적 관계의 성별 차이 내지 젠더화된 사회적 네트워크(gendered social network)는 성별로 분리된 일자리 유형과 그에 따른 일상적 거주 형태의 차이를 통해 설명된다. 조직적인 노동구조와 인사체계를 갖춘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남성 이민자에 비해 여성 이민자들은 주로 주류사회 가족을 위해 봉

사하는 ‘가사도우미’로 일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간을 비롯한 각종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 이민자들은 여러 배경을 지닌 이들이 교류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활동, 직업 관련 활동, 취미 활동 등에 참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심지어 이주 초기에 열심히 참여했던 종족 공동체 모임, 종교활동에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 물론 여성들은 주류사회 성원들에 둘러싸여 일상을 살아가지만, 종족적, 문화적, 계급적 차이로 인해 이들 간에는 지극히 표피적인 대면, 일방적인 종속-통제 이상으로 의미 있는 자원을 내포할 수 있는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가 발전되기 어렵다.

결국 남성 이민자들이 일터와 축구모임, 클럽 등에서 관계를 맺어온 다양한 이들을 통해 국적취득제도의 변화 등 자신의 사회통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련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데 비해, 여성들은 점차 종족 공동체와의 관계도 쇠퇴하고 주류사회와의 관계도 발달하지 않은 채로 사회통합에 필요한 정보와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Hagan 1998). 달리 말하면 유대 지향적 사회적 자본과 가교 지향적 사회적 자본 모두를 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사회통합에 긴요한 절차를 성공적으로 밟아가는 남성과 달리, 자신과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이들로 가득 찬 가내 영역에 함몰된 여성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대 지향적 사회적 자본을 점차 상실하고 가교 지향적 자본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통합에서 도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2.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결혼이민자의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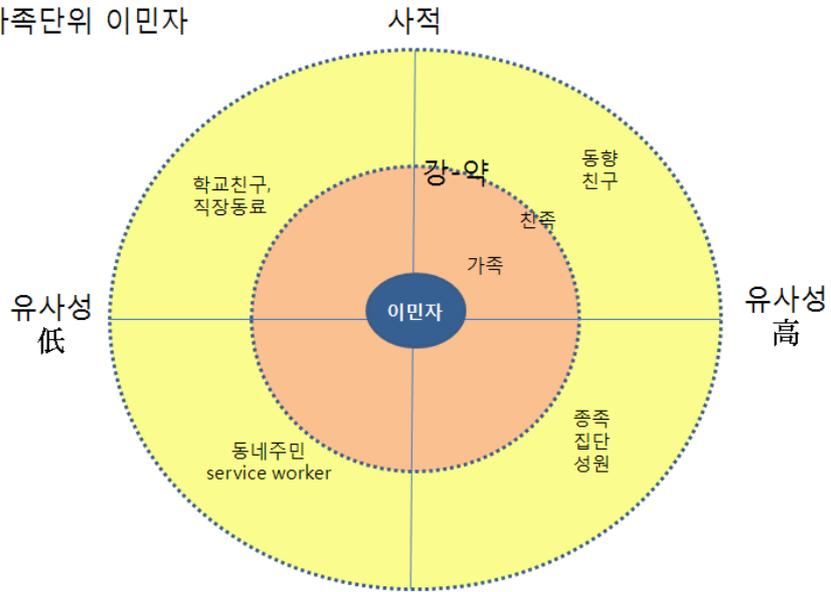
이민자 집단은 이주의 자발성(voluntariness), 이동성(mobility), 영속성(permanence)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Berry 1997: 8). 이러한 점에서 보면, 결혼이민자는 자발성의 측면에서는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닐 수 있으나 영속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회에서 상당기간 정주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표적인 이민자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과 결혼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결혼이민자들은 주

류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흔히 관계의 강도에 있어 가장 강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족관계 측면에서 가족단위 이민자 집단과는 결정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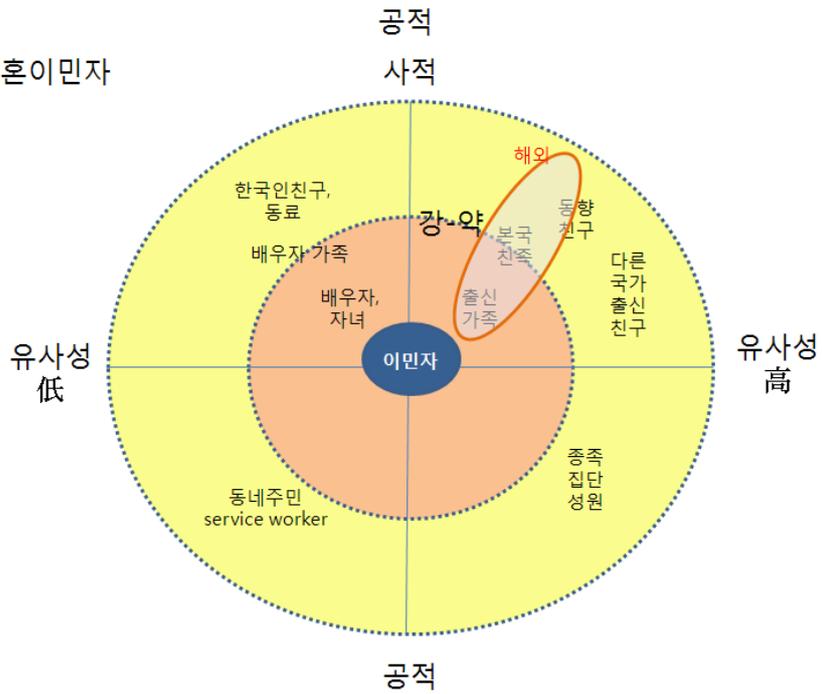
가족단위 이민자들이 이주 이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가족, 친족 등을 중심으로 한 강한 연계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가족, 친족 외부의 다양한 이들과 연계를 형성해가는 데 비해, 결혼이민자들은 기존에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강한 연계의 대상들과 물리적 거리를 두고 새로운 환경에서 가족, 친구 관계를 포함해 관계망 전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즉, 강한 연계의 대상이 되는 이들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이원화되어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이들, 그것도 자신과는 종족적, 문화적으로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주류사회 성원들과 강한 연계, 약한 연계 모두를 포함해 전반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가족, 친족 집단 내에서도 자신과 상당한 이질성을 지닌 대상과 가교 지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한편, 유대 지향적 관계는 오히려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 외부에서만 가능한 것이야말로 가족단위 이민자와 다른 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외부에서 강한 연계-약한 연계를 맺는 대상자와의 동질성-이질성에 있어서 가족단위 이민자에 비해 사회적 관계 형성 구조 자체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 이외에 젠더 요인 역시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앞서 살펴본 마야 출신 여성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가내 영역에 함몰된 채 주류사회 성원에 둘러 싸여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 만큼, 가족 외부에서 자신과 유사한 배경을 지닌 이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으며 자신과 전혀 다른 배경을 지닌 다양한 이들과의 관계는 기대조차 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사회통합과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 가족단위 이민자



- 결혼이민자



[그림 II-1] 가족단위 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 구조

나. 사회적 관계의 양상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급격히 확장되는 가운데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들어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시론적인 차원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정도이다.

경기도 양평과 충북 보은의 여성결혼이민자 36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3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통해 이용균(2007)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의존적이고 가족 외부에서는 이주민, 특히 동일 출신국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인들과의 관계망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이 도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8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52.1%가 배우자를, 42.5%가 본국인 친구·동료라고 응답한 데 비해, 한국인 친구라고 응답한 경우는 14.4%에 불과한 것보다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기선 외 2007: 227-228).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일반화하는 데 대해 적지 않은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황정미(2010)는 기관이나 단체에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나 활동가 등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수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양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있으며 관계 형성과 관련된 개개인의 경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착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망에서 가족, 한국인 친구, 본국인 친구가 차지하는 수적인 비중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은 가족 중심형(가족 지배형, 가족의존형)¹⁾, 한국인 친구 중심형(한국인 친구 지배형, 한국인 친구 의존형), 이주민 친구 중심형(이주민 친구 지배형, 이주민 친구 의존형)으로 구분하고 그 어느 쪽이 우세하다

1) 다른 관계는 부재한 채 해당 관계만 있는 경우는 의존형으로, 다른 관계도 있지만 해당 관계가 우세한 경우는 지배형으로 분류하였다(황정미 2010).

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복합형(가족+한국인친구, 가족+이주민친구, 한국인 친구+이주민친구, 균분형)으로 범주화하였다.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관계 경험을 비교한 결과, 관계망이 가장 활성화된 유형은 가족관계와 한국인 또는 이주민 친구 관계가 모두 발달해있는 가족복합형(가족+한국인친구, 가족+이주민친구)으로 가족 내외부의 관계망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가족 등 주위에서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외의 다른 유형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망이 가족 내부와 외부 중 어느 한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부문간 연계성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가족 중심형은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친구관계를 발달시키지 않는 반면, 친구 중심형은 결혼이민자가 가족 외부에서 맺는 관계에 대해 가족들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가 발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친구 중심형 가운데에서도 한국인 친구가 지배적인지, 이주민 친구가 지배적인지에 따라 관계의 경험은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인 친구 중심형에 속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직업생활이나 이주민 관련 단체, 지역사회활동 등에 적극적이며 가족들이 여성의 외부활동이나 관계에 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들이 저항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대응해 나가는데 비해, 이주민 친구 중심형은 한국말이 능숙하지 않고 뚜렷한 직업이 없으며 한국인과 한국문화에 대한 거리감이 크고 한국인의 차별적 태도로 인해 상처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망 중 가족관계는 공백상태에 가깝고 이주민 친구와 한국인 친구 관계가 지배하는 경우에는 가족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뿐 아니라 고립감도 발견된다(황정미 2010).

다.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거나 서로 비교되는 형태를 기술적으로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보이는 일반적인 양상이나 유형별 차이를 가져온 요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분석이나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정한 지역이나 기관·단체와 관련된 소수

의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로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특징적인 면에 대해서는 그 요인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발견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가족 내/외부의 관계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족 내부의 상황, 가족원들간의 관계 등은 여성의 가족 내/외부와 관계의 구조화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외부와의 관계에 대한 가족원들의 태도와 가사와 육아 부담 정도 등에 따라 가족 외부와의 관계는 발전할 수도, 제약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가족 외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가족원들의 태도는 관계 형성 가능성 자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발전 혹은 제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관계의 대상에 따라, 즉 한국인인가 동향출신 혹은 그 외의 이주자인가에 따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서로 비교된다는 데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동향출신 여성들과 유대 지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한국어교실 참여나 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서이다(이용균 2007). 이러한 관계는 친목이나 종교 활동, 학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비교적 정기적인 모임으로 발전하는 양상도 발견되는데(정성미 2010), 이들과의 관계를 추동하는 요인으로는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외로움과 불안감, 문화적 충격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서적 욕구, 언어 소통과 문화 공유의 욕구와 소속감 확보, 갈등으로부터의 보호막 역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가족이나 주위에서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한 자국 출신 여성들과의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다른 한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관계를 맺게 되는 한국인은 이웃집 아주머니, 한국어 교사, 여성단체 봉사자, 지역사회모임 회장, 자녀친구 엄마, 남편친구 부인, 같이 일하는 동료 등으로(이용균 2007; 황정미 2010) 기관·단체와의 관계, 취업이나 사회활동 경험, 가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대 가능

성 등에 따라 한국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한국어 능력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인으로부터의 차별 경험 역시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해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에 변이를 가져오는 대표적 요인으로 학력과 종족적 지위,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황정미(2010)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 분포가 국적이나 거주기간 등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있다. 그러나, 기관·단체와의 관계성이 유사하고 학력 수준의 차이도 크지 않은 극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김두섭 외(2007) 정도이다. 일본, 중국, 베트남 3개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6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위세, 사회활동 수준 등을 조사한 결과, 관계망의 크기는 일본 출신과 그 외 국가 출신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이외에 거주지역, 결혼당시의 연결망 속성, 한국 거주기간, 이웃이나 친교모임 등 비공식적 모임 참여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계망의 위세 면에 있어서는 통일교도인 일본 여성이 그 외의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남편의 교육 수준이나 가구 소득수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종족적 지위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관계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제시된 것이다.

4) 사회적 관계의 효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연구 중에는 사회적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나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가족, 즉 본국 가족이나 이민 후 결혼으로 맺어진 한국인배우자와 그 가족으로 국한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가

(권구영·박근우 2007; 김오남 2006; 이민아 2010 재인용) 점차 본국 가족, 배우자 및 한국 가족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 관계자, 본국출신 동료, 한국인 이웃 등 다양한 범주로 확대시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현숙 외(2010)는 공식적 지원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의 지지효과에 주목하였고, 박미정 외(2009)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본국출신 동료, 한국인 이웃, 사회적 서비스 관계자로 확대시켜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또한 이주 후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 뿐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 내 연결망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이민아 2010).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 배우자 및 그 가족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와 그 가족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Frone et al. 1992; Gettman et al. 1998; 김현숙 외 2010 재인용).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182명을 대상으로 한 김현숙 외(2010)의 연구에서도 배우자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부부간 애정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박미정 외(2009)의 연구는 가족의 지지를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지지로 나누어 가족의 정보적 지지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 특히 배우자와의 연계가 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있다(이민아 2010). 이처럼 한국인 배우자 및 가족과의 연계 및 지지가 결혼이민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가족원들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녕이나 가족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된 연구 결과가 제시되는데 비해,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때로는 모순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한국인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이웃과의 관계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되는 한편(이민아 2010) 한국인 이웃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사회적 지지)은 생활만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상호작용(지나친 간섭, 반대, 비난 및 닳하기, 잘못된 도움, 과도한 요구, 약속 불이행, 이용하려 들)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대의 결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박미정 외 2009).

본국출신 동료(co-ethnic tie)와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 상호작용은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가 하면(박미정 외 2009), 본국출신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를 증가시켜 여성결혼이민자의 활동과 자기표현을 제한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이민아 2010). 다른 한편, 자국친구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은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의 계기가 되며 감정적, 정서적 공감 형성 과정의 일부로서 결과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외의 결론도 제시된 바 있다(박미정 외 2009).

사회서비스 관계자와의 관계 역시 결혼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모순적인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김현숙 외(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과 공식적 지원기관의 지지효과에 주목하고 이들의 서비스나 이들과의 관계망이 결혼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연구의 대상자는 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사회서비스 관계자와의 관계가 지니는 정서적 지지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간섭하는 존재라는 의견도 있다(박미정 외 2009).

이처럼 결혼이민자가 가족 외부와 맺는 사회적 관계가 갖는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모순된 연구 결과가 교차하고 있어 기존의 연구만으로는 유의미한 함의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에는 특정 지역의 소수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방법론적 제한점 이외에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효과를 스트레스나 정서적 지지, 생활만족도 등 지극히 가변적인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 한정시켜 접근했을 뿐 전반적인 사회통합 차원에서 파악하지 못한 점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또는 자국 출신과의 관계를 각각 분리해 개별적으로 다룸으로써 두 축 간의 조합을 포함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 역시 관계를 심화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3.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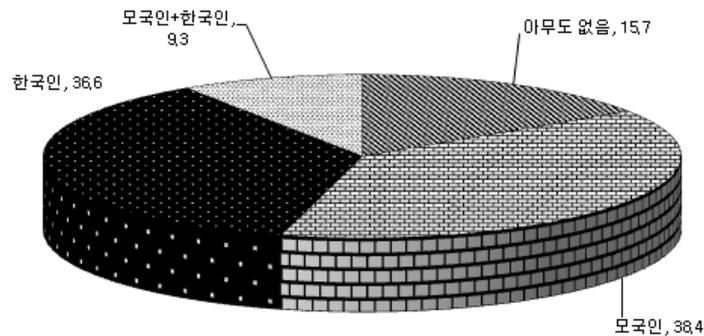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의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토대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기존의 자료 중 가장 많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물론 이 자료에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극히 제한된 문항만을 포함하고 관련 정보도 구체화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성별이나 가족관계, 지역 특성 등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의논 상대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인 모습은 결혼이민자들이 주위의 누구와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실태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해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활동을 함께하는 사람’, ‘경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핵심적 관계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개인적인 일을 의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현황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에서는 이러한 대상을 모국인, 한국인, 기타 외국인, 아무도 없음의 네 가지 응답지에 따라 다중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집단 구분을 본 연구의 주된 관심에 맞추어 개인적인 일을 의논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단, 모국인 위주 집단, 한국인 위주 집단, 모국인과 한국인 양쪽 모두가 있는 집단으로 재구분²⁾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집단 유형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혼이민자들이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의논하는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개인이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로 모국인(38.4%)이나 한국인(36.6%)과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 사람들도 15.7%를 차지하였다. 의논상대를 모국인, 한국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전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9.3%에 불과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보다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그림 II-2] 결혼이민자의 어려움 의논 상대 (%)

2) 기타외국인이 섞여있는 집단의 숫자는 전체 중 매우 적어 분류에서 배제함.

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1) 성별, 혼인상태별 비교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39.0%)이 가장 높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한국인과 의논하는 비율(39.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의논하는 사람이 없는 비율이 19.4%로 높게 나타나 어려운 일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기 보다는 혼자 해결하는 사람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2〉 성별, 혼인상태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태

(단위: %)

		아무도 없음	모국인 위주	한국인 위주	모국인 및 한국인	전체(명)	통계량	
성별	여성	15.3	39.0	36.3	9.3	110,776	$x^2=246.883$ df=3 p=.000	
	남성	19.4	31.8	39.5	9.3	9,839		
혼인 상태별	여성	유배우	14.9	38.8	36.9	9.5	104,616	$x^2=500.080$ df=3 p=.000
		무배우	23.7	42.9	26.6	6.9	5,749	
	남성	유배우	19.0	30.6	41.0	9.4	9,265	$x^2=115.875$ df=3 p=.000
		무배우	24.3	51.5	15.3	9.0	379	

결혼이민자들은 가족이 매개가 되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한국인 남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이다(황정미 2011). 따라서 현재의 혼인상태에 따라 사회적관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가는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추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예측할 수 있듯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어려운 일에 대한 의논 대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의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비율이 23~24%로 상당히 높으며 특히 여성의 유배우자와 무배우자간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고립의 어려움을 경험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가 없을 경우 남녀 모두 주로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은 42.9%, 남성은 51.5%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남녀가 양상을 달리하는데, 남성은 한국인과 의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가장 높아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 30.6%보다 약 10.4%p 높은 격차를 보이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어도 모국인과 한국인 의논비율이 2%p 이내로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성의 경우 한국가족과 높은 결합도를 보이는 반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결합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되며, 자신의 모국인 집단과의 관계나 의존도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는 것을 시사한다.

2) 국적별 비교

국적별로 비교해보면,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중국 한족(40.6%), 베트남(55.1%), 필리핀(49.7%), 몽골(40.6%), 태국(47.1%), 그리고 일본(48.9%)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로 모국인과 의논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에 비해, 한국계 중국인(46.9%), 캄보디아(45.5%), 북미호주서유럽(57.7%), 그리고 기타(43.7%) 출신의 사람들은 주로 한국인과 의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캄보디아인은 의논상대가 없는 경우도 24.1%에 달하여 관계망 형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인의 경우에는 모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의논하는 비율이 29.6%로서, 모국인과 한국인 모두와의 관계망이 두터운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 한국인과의 의논 비율은 높은 사람들은 필리핀(42.4%), 태국(55.0%), 일본(50.7%), 그리고 북미호주서유럽(44.4%) 출신국 사람들이었고, 모국인과의 의논비율이 높은 사람들에는 몽골(50.0%) 출신이 많았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의논상대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캄보디아(80.0%)와 북미호주서유럽(35.6%) 출신 남성들이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II -3〉 국적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단위: 명, %)

		아무도 없음	모국인 위주	한국인 위주	모국인 및 한국인	전체(명)	통계량
여성	중국(조선족)	15.7	28.4	46.9	9.0	44,669	$x^2=9866.061$ df=27 p=.000
	중국(한족)	17.2	40.6	33.6	8.5	19,008	
	베트남	14.6	55.1	23.3	7.0	23,874	
	필리핀	14.8	49.7	25.9	9.6	7,740	
	몽골	21.9	40.6	31.2	6.3	1,661	
	태국	11.2	47.1	33.3	8.4	1,564	
	캄보디아	24.1	24.4	45.5	6.0	2,369	
	일본	3.3	48.9	18.2	29.6	4,699	
	북미호주서유럽	19.2	12.4	57.7	10.7	411	
	기타	14.9	31.8	43.7	9.7	4,781	
남성	중국(조선족)	16.5	39.6	36.1	7.7	4,298	$x^2=741.965$ df=27 p=.000
	중국(한족)	20.3	37.1	34.2	8.4	1,812	
	베트남	25.7	38.6	23.8	11.9	101	
	필리핀	14.4	28.0	42.4	15.3	118	
	몽골	12.5	50.0	25.0	12.5	24	
	태국	22.2	5.6	55.6	16.7	18	
	캄보디아	80.0	0.0	20.0	0.0	5	
	일본	11.6	16.7	50.7	21.0	414	
	북미호주서유럽	35.6	11.7	44.4	8.3	1,313	
	기타	15.3	25.4	47.8	11.4	1,737	

3) 거주기간별 비교

일반적으로 한국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인들과의 교류 경험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거주기간에 따라서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가 달라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우선 남녀 차이를 보면, 남성의 경우에는 2년 미만까지는 의논대상이 아무도 없는 비율이 응답자의 1/4 정도이던 것이 그 이후 거주기간이 길어지

면 20% 이하로 감소하여 어느정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길어도 의논대상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 즉, 15% 정도의 일정비율의 여성들은 10년 이상이 지나도 의논대상이 아무도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 기인하는지 심층적 분석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의논대상이 있는 집단의 경우, 여성은 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의논대상이 모국인에서(50.5%에서 27.5%로 감소) 한국인으로 (26.7%에서 45.4%로 증가) 뚜렷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따른 의논상대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모국인 의논비율은 30.8%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모국인과 의논하는 사람의 비율(32.0%)과 그다지 다르지 않았고,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한국인 의논비율(35.3%) 또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모국인과 의논하는 사람의 비율(39.3%)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거주기간별 비교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결과는 한국인과 모국인 양측에 의논상대가 있는 경우가 거주기간에 따라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거주기간이 장기화되어도 사회적 관계가 균형적으로 발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II-4〉 거주기간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단위: 명, %)

		아무도 없음	모국인 위주	한국인 위주	모국인 및 한국인	전체(명)	통계량
여성	1년 미만	15.2	50.5	26.7	7.6	8,914	$x^2=2282.792$ df=12 p=.000
	1-2년 미만	15.1	46.2	30.3	8.3	12,956	
	2-5년 미만	15.2	41.4	34.6	8.8	35,887	
	5-10년 미만	15.0	35.1	39.8	10.1	27,080	
	10년 이상	15.2	27.5	45.4	11.9	17,330	
남성	1년 미만	24.3	30.8	35.3	9.6	481	$x^2=103.280$ df=12 p=.000
	1-2년 미만	25.1	33.4	34.5	7.0	713	
	2-5년 미만	19.8	33.7	38.9	7.5	2,799	
	5-10년 미만	18.5	33.7	37.1	10.7	3,044	
	10년 이상	19.4	32.0	39.3	9.2	1,947	

4) 지역별 비교

거주지역에 따라 어려운 일 의논상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동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에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논상대가 전혀 없는 이들은 거주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우선 거주지역 자체가 동에 거주하는 사람(8,946명)이 읍면에 사는 사람(892명)보다 약 10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와는 다르게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국인과 의논하는 사람의 비율이 39~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 결혼이민자들이 여성에 비하여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인과의 교류가 활발한 데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표 II-5〉 지역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단위: 명, %)

		아무도없음	모국인위주	한국인위주	모국인 및 한국인	전체(명)	통계량
여성	동	15.3	37.7	37.3	9.7	77,786	$x^2=227.185$ df=3 p=.000
	읍면	15.6	42.1	34.0	8.4	32,990	
남성	동	19.0	32.5	39.4	9.1	8,946	$x^2=29.142$ df=3 p=.000
	읍면	23.5	24.6	40.6	11.3	892	

5) 직업 유무별 비교

직업 유무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비교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현재 일하고 있다고 답한 경우에 한국인과 의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0.4%로 가장 높은 반면, 일한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로 모국인과 상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44.0%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에는 일하고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일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주로

한국인과 의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도 직업 유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약 18~20%를 차지해 여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에 비하여 여성들에게 직업이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의 통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6〉 직업 유무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단위: 명, %)

		아무도없음	모국인위주	한국인위주	모국인 및 한국인	전체(명)	통계량
여성	일하고 있음	14.8	34.9	40.4	9.9	41,698	$x^2=947.036$ df=6 p=.000
	일한 경험 있음	16.3	37.3	36.1	10.3	24,393	
	일한 적 없음	15.2	44.0	32.5	8.4	43,239	
남성	일하고 있음	18.2	31.0	41.2	9.6	7,288	$x^2=72.327$ df=6 p=.000
	일한 경험 있음	21.0	35.4	35.2	8.4	1,667	
	일한 적 없음	19.4	31.7	39.7	9.2	786	

6) 소득별, 학력별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에 포함된 항목 중 가족의 소득과 결혼이민자의 학력이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밀접히 관련된 변수로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 유형이 어떻게 비교되는지 살펴보았다.

〈표 II-7〉 소득별, 학력별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

(단위: 명, %)

			아무도 없음	모국인 위주	한국인 위주	모국인 및 한국인	전체(명)	통계량
소득별	여성	100만원 미만	19.7	38.2	35.2	6.8	23,617	$x^2=1416.080$ df=9 p=.000
		100-200만원 미만	14.1	39.2	37.2	9.4	42,030	
		200-300만원 미만	10.9	36.4	40.7	12.0	20,023	
		300만원 이상	10.2	33.5	43.3	13.0	9,406	
	남성	100만원 미만	22.8	35.4	36.2	5.5	1,966	$x^2=278.997$ df=9 p=.000
		100-200만원 미만	15.0	37.8	37.7	9.4	3,588	
		200-300만원 미만	19.8	28.7	40.6	10.8	1,970	
		300만원 이상	19.0	18.9	49.9	12.2	1,560	
학력별	여성	초등학교 이하	16.7	41.9	36.2	5.2	9,387	$x^2=1129.73$ 5 df=9 p=.000
		중학교	16.6	40.0	36.5	6.9	30,204	
		고등학교	15.2	37.5	37.8	9.6	48,061	
		대학교 이상	13.4	39.7	33.0	14.0	22,147	
	남성	초등학교 이하	21.4	38.0	35.6	5.0	537	$x^2=309.869$ df=9 p=.000
		중학교	19.4	39.5	35.2	5.9	1,979	
		고등학교	17.0	36.8	37.6	8.5	3,572	
		대학교 이상	21.8	22.1	43.7	12.4	3,676	

우선 소득별로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 의논상대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주로 모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주로 한국인과 의논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 비율은 감소하고 모국인-한국인 모두와 의논하는 비율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로는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나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가진 이들이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을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거나 모국인 위주로 의논하는 비율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에 비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지닌 이들은 한국인과 모국인 모두와 의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인과 의논하거나 한국인과 모국인 모두와 의논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주안점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유형에서 차이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사회적 관계를 질문하는 방식을 보면, 지극히 단순한 문항으로 처리되어 있어 전반적 관계의 양상과 세부 구성별 비중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담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가족 내/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접근하고 있어 각종 관계에 있어 그 대상이 가족원일 경우이거나 가족원 이외의 한국인이거나 관계없이 모두 같은 응답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한국인 위주’로 답한 경우에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특성상 주로 배우자 등 한국인 가족원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점은 조사 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가족 관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 외부와의 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구성에 대한 보다 세부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 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있어 지니는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 역시 본 연구의 관심사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효과를 다룬 연구가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발표되고 있으나, 주로 모국인과의 관계 혹은 한국인과의 관계 각각이 결혼이민자의 스트레스나 정서적 지지, 생활만족도 등 지극히 가변적인 개인의 정서적 차원에 지니는 효과에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탈피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사회통합을 정의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모국인 관계와 한국인 관계의 두 축을 동시에 고려하여 사회적 관계 유형을 도출하고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의 연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Ⅲ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



본 장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한국생활의 전반적 모습에 대해 살펴보고,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한다. 나아가 이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형화하며, 그러한 유형이 한국사회 통합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1. 조사 개요

가. 조사 내용

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한국생활 모습 파악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한국생활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요인들(차별경험, 가족의 사회적 교류 지지 등), 한국사회 참여 정도, 한국사회 통합 수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모습이 그들의 인구학적 특성(국적, 거주기간, 직업경험, 취학자녀 유무,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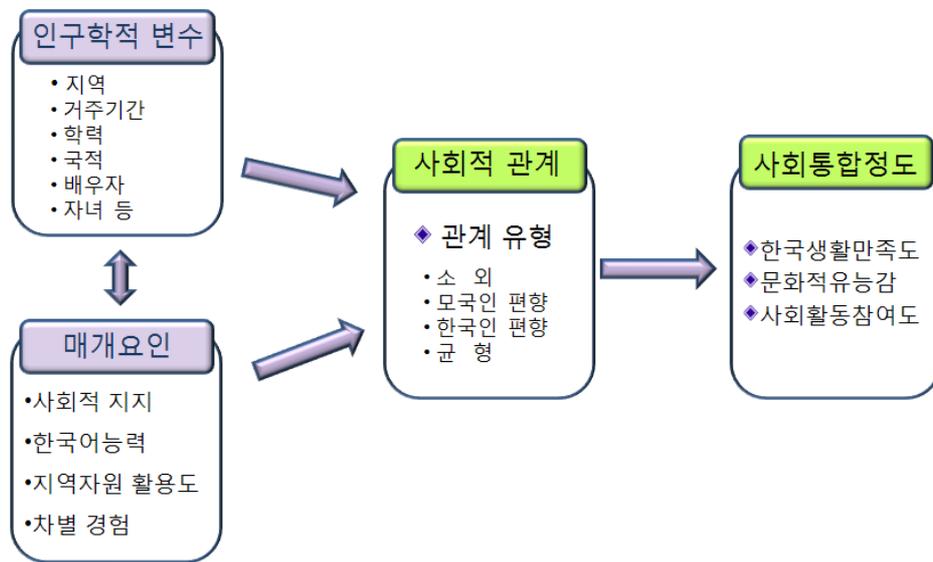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전반적 실태와 현황에 대해 살펴본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결혼 전후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요 통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모국인 중 어떤 관계를 더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영역별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3) 사회적 관계 유형 비교 및 관련 요인 파악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관계 크기와 한국인 및 모국인 비율을 기준으로,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들 유형이 어떤 특성을 보이며, 사회적 관계 유형을 달리하게 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였다.

4) 사회적 관계 유형과 한국사회 통합의 관계 분석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이 한국사회 통합 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 한국사회 통합 수준은 정서적 차원(생활 만족도), 문화적 차원(문화적 유능감), 사회적 차원(정기 단체·모임 참여 수)으로 구분해 측정하였다.



[그림 Ⅲ-1] 연구모형 설계

나. 주요 변수

1) 매개 변인

가) 한국어 능력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총 4가지 영역(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에서 5점 척도(1점: 매우 잘 한다 ~ 5점: 매우 서툴다)를 사용해, 자신의 실력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내적 신뢰도 (Cronbach'a alpha)는 .893이며, 척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응답자의 한국어 능

력이 높아지도록 역산했다.

나) 한국에서의 차별경험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받은 차별경험을 5개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한국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이때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사용했으며, 역산을 통해 점수가 높아질수록 차별경험이 증가하도록 했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14였다.

다) 가족의 지지

가족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지하는 수준을 총 4개 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예시문항으로는 “나의 가족은 내가 한국인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했다.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506이며, 척도 점수가 높아질수록 가족의 지지가 증가하도록 역산했다.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는 문항 중에서 한국인과의 교류를 지지하는 문항 2개와 모국인과의 교류를 지지하는 문항 2개로 구분해 분석했다.

라) 각종 지원서비스 수혜정도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수혜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어 교육, 가족생활 이해 및 교육 상담, 자녀 교육 관련 상담 및 지원, 한국생활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직업 교육 훈련, 일자리 연계 서비스”로 총 6가지 영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교육 및 서비스 수혜경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3점 척도(0점: 전혀 받아본 적 없다 ~ 2점: 여러 번 받아본 적 있다)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마) 여성결혼이민자 지원기관 이용 빈도

지난 1년간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지역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관 등)을 이용한 빈도를 알아보았다. 이때 4점 척도(1점: 이용한 적이 거의 없다 ~ 4점: 일주일에 1~2번 이용한다)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2) 종속변인

가) 한국생활 만족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총 5개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의 결혼생활이 불만스럽다” 등이 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009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한국생활 만족도를 가족생활 영역에서만 측정했던 것을 보완해, 본 조사에서는 결혼생활, 이웃관계, 지역환경, 자신의 위치와 역할, 경제수준 등 5개 영역에서 다양하게 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아지며, 하위 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25였다.

나) 한국사회 문화적 유능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합 지표의 하나로 문화적 유능감(cultural efficacy)을 조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 유능감 척도(채정민 2003; 한성열 2003)를 여성결혼이민자의 실정에 맞게 수정·추가하였고, 여기에 연구진이 개발한 문제해결 유능감 문항을 추가했다.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를 통해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 유능감이 높아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요인 분석을 통해 한 문항을 제외한 총 19개 문항을 크게 3가지 하위척도(한국인과 의사소통 유능감 /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로 분류하였다. 각 하위척도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순서대로 .682, .794, .749였다.

다) 사회생활 참여도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참여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의 수를 질문하였다.

다. 조사방법

1) 설문지 제작 및 번역

선행연구들의 문항 및 척도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목적에 맞게 보완하고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이때 설문지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했으며, 이 회의에서 얻은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설문지의 문항과 구성을 수정하였다. 또한 설문대상이 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다양한 국적에 맞추어 총 6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설문지를 번역하였다. 번역은 원어민에 의한 초벌 번역과 전문가 감수를 통하여 총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2) 조사원 교육

설문조사는 1대1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사원의 설문조사에 대한 사전지식 및 태도가 중요하였다. 따라서 연구진들이 직접 조사대상인 8개 지역에서 약 40여명의 조사원들에게 설문지 내용 및 조사 실시방법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들은 조사연구의 목적 및 내용, 설문지의 구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음으로써, 설문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조사내용 외에도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 근무일지 작성 등의 진행 관리도 함께 교육 받았다.

3) 예비조사 및 본 조사 진행

본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설문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국가별로 총 20부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 부정확한 경우, 번역이 모호한 문항들을 걸러내어 질문지를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수정된 질문지에 대하여 충청권과 경상권 지역에 위치한 8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을 거점으로 설문대상의 표집과 본조사가 7월 한달간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앞서 언급했듯이 1대1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응답자가 언어적 문제나 설문조사에 익숙하지 않아서 설문 응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조사원들이 이를 도와줌으로써, 설문조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또 필요한 경우 원어민 통역자를 동반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조사원들이 직접 설문대상자의 거주지에 찾아가 조사를 하였으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문대상자들이 직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와서 설문조사를 받았다.

4) 설문지 감수

완성된 설문지는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즉시 수거되었으며, 개개 설문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기관의 조사책임자가 회수된 설문지를 100% 검증하도록 하는 단계를 거쳤다. 동시에 조사과정 중반 시기에 연구진들이 각 센터를 방문하여, 설문지 재 감수 및 진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의 2차레에 걸친 감수 과정에서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설문 조사원이 행한 모든 설문지를 무효화하고 재조사에 들어갔다.

5) 설문조사 대상 표집

본 설문조사를 위하여 경상권과 충청권의 8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 540명을 조사대상자로 표집하였다. 이때 여성결혼이민자 인구가 600 ~ 1,400여명 규모인 4개 시 지역(구미, 청주, 양산, 논산)에서 340명, 여성결혼이민자가 100 ~ 300여

명 수준인 군 지역(보은, 연기, 의성, 영양)에서 200명을 설문대상으로 표집하였다. 그러나 실제 설문조사 과정에서 표집된 응답자의 거주지역과 국적 구성에서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 22부를 제외한 총 518부(시지역 349명, 군지역 169명)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 결혼이주 규모로 상위 5개국인 중국 한족(조선족 제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로 정했다. 중국 조선족은 가족과 친척이 한국에 다수 거주하는 특성을 지닌 점을 고려해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을 한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2년 미만의 초기 입국자의 경우 아직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여서, 사회적 관계가 가족 외부로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번 조사 목적이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본격적으로 통합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관계 요인을 추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조사대상을 거주기간 2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라.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 III-1>과 같다. 먼저, 국적별 비율은 베트남 출신이 23.4%로 가장 높았고, 중국 한족 23%, 일본 20.7%, 필리핀 18.7%, 캄보디아 출신은 14.3% 순이었다. 결혼이주 경력이 비교적 짧은 캄보디아 출신을 제외하면, 조사 응답자는 국적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조사 응답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8.8개월로 나타났다. 한국에 3년 이상~5년 미만 거주한 경우가 30.5%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3년 미만 23.4%, 10년 이상 20.3%, 5년 이상~7년 미만 13.5%, 7년 이상~10년 미만 12.4% 순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응답자가 거주기간 5년 미만에 60% 넘게 분포해 있는 반면, 일본 출신의 응답자는 10년 이상인 경우가 64.5%였다. 필리핀 출신의 경우는 거주기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약 75%나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

었다. 조사 응답자 중 20대가 44.2%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30.5%, 40대 20.1% 순이었으며, 50대 이상은 5.2%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20대 비율이 각각 전체의 76.9%, 77.0%를 차지하는 등 연령대가 상당히 낮게 분포돼 있었으며, 반면 일본 출신은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가 많았듯, 연령대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조사 응답자의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약 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이 38.6%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이상 30.5%, 중학교 졸업 23.9%, 초등학교 이하 6.9% 순이었다. 특히, 필리핀과 일본 출신에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 비율이 다른 국적에 비해 높았으며,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초졸 이하 비율이 29.7%로 전체 평균(6.9%)보다 크게 높았다.

직업 경험과 관련된 질문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일한 경험이 한번도 없다' 35.1%, '과거 일한 경험이 있으나 현재는 안한다'는 22.6%였다. 한국에서 직업 경험이 없는 경우는 캄보디아 출신이 55.4%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41.2%, 베트남 38.8%, 필리핀 26.8%, 일본 17.8% 순이었다.

월소득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7.5%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 21.8%,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9.5%, 300만원 이상 9.7% 순이었다. 특히 '모른다'는 응답이 11.6%를 차지한 데서 볼 수 있듯, 가정 경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특히, 중국과 일본 출신 응답자에서 월소득 300만 원 이상의 비율이 각각 16.0%, 15.9%로 다른 국적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비율이 35.1%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았다.

또한, 조사 응답자는 대부분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96.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는 2.7%, 별거는 1%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혼인관계의 특징은 모든 국적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베트남 출신의 경우만 사별 또는 이혼 비율이 다른 국적에 비해 다소 높았다.

조사 응답자 중에서 자녀가 있는 비율은 약 85% 수준이었고, 자녀가 없는 비율은 14.9%였다. 취학 자녀가 있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9.9%였으

며, 취학자녀가 없는 경우는 15.3%였다. 자녀가 없는 비율의 경우 일본 출신이 2.8%로 가장 낮았고, 필리핀 출신은 29.9%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취학자녀가 있는 비율은 일본 출신이 88.8%로 가장 높았고, 필리핀 출신은 54.6%로 가장 낮았다.

한편, 조사 응답자들은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경우가 34.7%로 가장 많았다. 종교기관을 통해서는 26.1%였으며, 아는 사람 20.7%, 연애결혼 16.0%, 기타 2.0% 순이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비율이 각각 63.6%, 60.8%로 전체 평균의 약 2배 수준을 보였으며, 일본 출신은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비율이 무려 91.6%를 차지했다.

〈표 Ⅲ-1〉 조사 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세부 수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전체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국적별		119 (23)	121 (23.4)	97 (18.7)	107 (20.7)	74 (14.3)	518 (100)
거주 기간	2년~3년 미만	34 (28.6)	37 (30.6)	28 (28.9)	1 (0.9)	21 (28.4)	121 (23.4)
	3년~5년 미만	42 (35.3)	44 (36.4)	15 (15.5)	14 (13.1)	43 (58.1)	158 (30.5)
	5년~7년 미만	19 (16.0)	23 (19.0)	17 (17.5)	4 (3.7)	7 (9.5)	70 (13.5)
	7년~10년 미만	13 (10.9)	15 (12.4)	14 (14.4)	19 (17.8)	3 (4.1)	64 (12.4)
	10년 이상	11 (9.2)	2 (1.7)	23 (23.7)	69 (64.5)	0 (0.0)	105 (20.3)
연령	20대	42 (35.3)	93 (76.9)	36 (37.1)	1 (0.9)	57 (77.0)	229 (44.2)
	30대	56 (47.1)	26 (21.5)	37 (38.1)	23 (21.5)	16 (21.6)	158 (30.5)
	40대	19 (16.0)	1 (0.8)	19 (19.6)	64 (59.8)	1 (1.4)	104 (20.1)
	50대	2 (1.7)	1 (0.8)	5 (5.2)	19 (17.8)	0 (0.0)	27 (5.2)
학력	초등학교 이하	4 (3.4)	7 (5.8)	3 (3.1)	0 (0.0)	22 (29.7)	36 (6.9)
	중학교	38 (31.9)	59 (48.8)	2 (2.1)	0 (0.0)	25 (33.8)	124 (23.9)
	고등학교	50 (42.0)	43 (35.5)	33 (34.0)	48 (44.9)	26 (35.1)	200 (38.6)
	대학교 이상	27 (22.7)	12 (9.9)	59 (60.8)	59 (55.1)	1 (1.4)	158 (30.5)
직업 경험	현재 일하고 있음	36 (30.3)	52 (43.0)	55 (56.7)	53 (49.5)	23 (31.1)	219 (42.3)
	과거에는 있으나 현재는 안 함	34 (28.6)	22 (18.2)	16 (16.5)	35 (32.7)	10 (13.5)	117 (22.6)
	일한 경험 없음	49 (41.2)	47 (38.8)	26 (26.8)	19 (17.8)	41 (55.4)	182 (35.1)
월소득	100만원 미만	18 (15.1)	25 (20.7)	24 (24.7)	20 (18.7)	26 (35.1)	113 (21.8)
	100만~200만원	38 (31.9)	62 (51.2)	32 (33.0)	36 (33.6)	26 (35.1)	194 (37.5)
	200만~300만원	36 (30.3)	18 (14.9)	17 (17.5)	26 (24.3)	4 (5.4)	101 (19.5)
	300만원 이상	19 (16.0)	6 (5.0)	5 (5.2)	17 (15.9)	3 (4.1)	50 (9.7)
	모름	8 (6.7)	10 (8.3)	19 (19.6)	8 (7.5)	15 (20.3)	60 (11.6)
혼인 상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117 (98.3)	111 (91.7)	93 (95.9)	104 (97.2)	74 (100.0)	499 (96.3)
	별거중	1 (0.8)	2 (1.7)	1 (1.0)	1 (0.9)	0 (0.0)	5 (1.0)
	사별 또는 이혼	1 (0.8)	8 (6.6)	3 (3.1)	2 (1.9)	0 (0.0)	14 (2.7)
결혼 경로	연애결혼	41 (34.5)	11 (9.1)	13 (13.4)	7 (6.5)	11 (14.9)	83 (16.0)
	종교기관 통해	2 (1.7)	1 (0.8)	33 (34.0)	98 (91.6)	1 (1.4)	135 (26.1)
	결혼중개업체	30 (25.2)	77 (63.6)	28 (28.9)	0 (0.0)	45 (60.8)	180 (34.7)
	아는 사람 통해	44 (37.0)	32 (26.4)	20 (20.6)	2 (1.9)	9 (12.2)	107 (20.7)
	기타	2 (1.7)	0 (0.0)	3 (3.1)	0 (0.0)	8 (10.8)	13 (2.5)
취학 자녀 여부	없음	21 (17.6)	18 (14.9)	15 (15.5)	9 (8.4)	16 (21.6)	79 (15.3)
	있음	73 (61.3)	93 (76.9)	53 (54.6)	95 (88.8)	48 (64.9)	362 (69.9)
	무자녀	25 (21.0)	10 (8.3)	29 (29.9)	3 (2.8)	10 (13.5)	77 (14.9)

2.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배경

가.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경험

한국사회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는 이들의 다양한 한국생활 경험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구축되어가고,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한국생활 경험들(차별경험, 사회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 지역자원 활용도, 지원기관 이용 빈도, 한국어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한국생활 경험 내용들이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도 함께 알아보았다.

1)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 경험

조사 응답자들이 결혼 후 한국사회에서 겪은 차별 경험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I-2>와 같다. 응답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공감을 표시했다. 반면, 자신에 대한 반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회피한 경험은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의 차별경험 지수(2.9)가 가장 높았고, 일본 출신(2.5)은 가장 낮았다. 특히, 필리핀과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다른 국적에 비해 강했다.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인정받지 못함’ 항목만 제외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경험 지수는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경험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이 과거에 일했거나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 비해 차별경험이 더 낮았다. 한편 취학자녀가 없는 여성이 있는 여성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차별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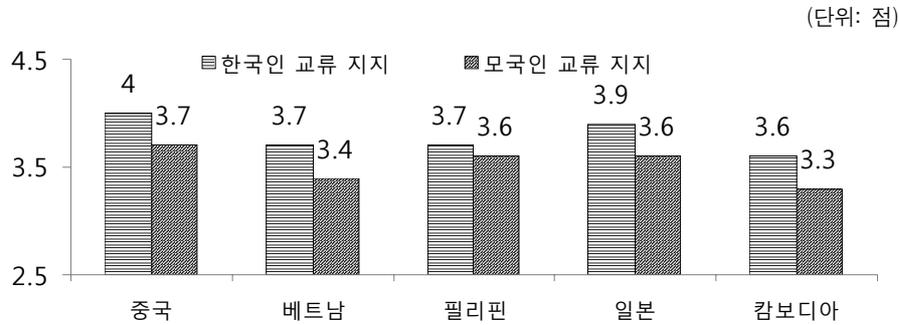
〈표 Ⅲ-2〉 인구학적 특성별 차별경험

(단위 : 점)

		인정받지 못함	부당한 대우	자신에 대한 반감	언어로 인한 놀림	회피 경험	평균
국적	중국	2.53	2.75	2.40	2.99	2.30	2.60
	베트남	2.85	2.88	2.55	2.64	2.50	2.68
	필리핀	3.09	3.03	2.78	2.87	2.58	2.87
	일본	2.79	2.36	2.26	2.55	2.39	2.47
	캄보디아	3.05	3.03	2.70	2.63	2.31	2.74
거주 기간	2-3년	2.81	2.91	2.67	2.82	2.49	2.75
	3-5년	2.87	2.86	2.55	2.69	2.34	2.66
	5-7년	3.00	2.97	2.62	2.94	2.49	2.80
	7-10년	2.67	2.70	2.38	2.77	2.50	2.60
	10년 이상	2.81	2.49	2.33	2.60	2.35	2.51
직업 경험	현재 일함	2.73	2.74	2.41	2.68	2.38	2.59
	과거에 일했음	2.88	2.82	2.59	2.91	2.46	2.73
	일한 경험 없음	2.94	2.83	2.62	2.71	2.44	2.71
취학자녀 유무	없음	2.97	3.03	2.74	2.95	2.54	2.85
	있음	2.78	2.69	2.43	2.65	2.36	2.58
평균		2.84	2.79	2.52	2.74	2.42	2.66

2) 가족의 한국인·모국인 교류 지지도

조사 응답자의 가족은 모국인보다는 한국인과의 교류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림 Ⅲ-2]에서 볼 수 있듯, 한국인과의 교류 지지도(3.8)가 모국인과의 교류 지지도(3.5)보다 높았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출신 응답자의 가족이 한국인과의 교류 뿐 아니라 모국인과의 교류를 가장 높게 지지한 반면, 캄보디아 출신 응답자의 가족은 한국인 및 모국인과의 교류 모두를 가장 낮게 지지했다.



[그림 Ⅲ-2] 국적별 가족의 한국인·모국인 교류 지지도

3) 교육 및 서비스 수혜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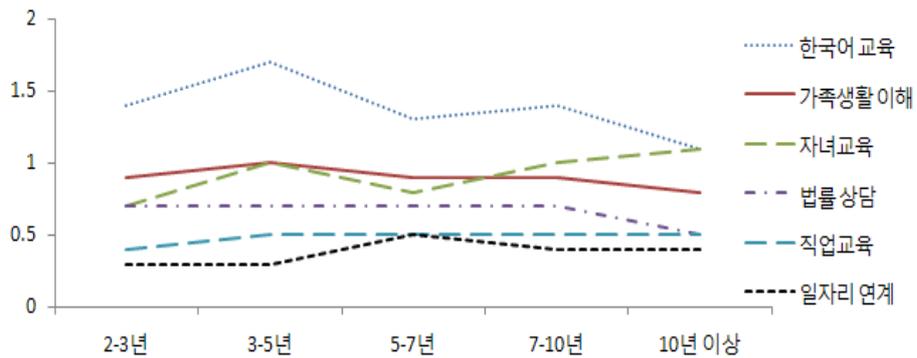
다음 <표 Ⅲ-3>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활용 정도를 보여준다. 조사 응답자들은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자녀교육이나 가족생활 이해 관련 서비스, 법률 상담 서비스 순이었으며, 직업교육 훈련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가장 적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출신이 이러한 지역자원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베트남과 일본 출신의 경우는 현저하게 낮았다. 한편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은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비교해보면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서비스의 활용도는 현저히 낮았지만, 나머지 서비스의 경우에는 약간 더 높거나 비등한 수준이었다. 마지막으로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다수의 지역자원 활용도(특히 자녀교육 서비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Ⅲ-3〉 인구학적 특성별 각종 교육 및 서비스 수혜정도

(단위: 점)

		한국어 교육	가족 생활 이해	자녀 교육	법률 상담	직업 교육	일자리 연계	합계
국적	중국	1.59	0.98	0.82	0.55	0.59	0.45	4.99
	베트남	1.27	0.84	0.82	0.79	0.36	0.34	4.41
	필리핀	1.37	1.03	0.84	0.86	0.59	0.41	5.09
	일본	1.15	0.70	1.04	0.38	0.41	0.31	3.99
	캄보디아	1.57	0.92	1.12	0.76	0.32	0.26	4.95
직업경험	현재 일함	1.30	0.85	0.94	0.68	0.57	0.51	4.85
	과거에 일했음	1.35	0.96	0.94	0.71	0.49	0.45	4.90
	일한 경험 없음	1.49	0.90	0.86	0.60	0.31	0.12	4.28
취학자녀 유무	없음	1.44	0.88	0.61	0.69	0.43	0.31	4.36
	있음	1.35	0.90	1.04	0.65	0.47	0.38	4.79
평균		1.38	0.89	0.91	0.66	0.46	0.36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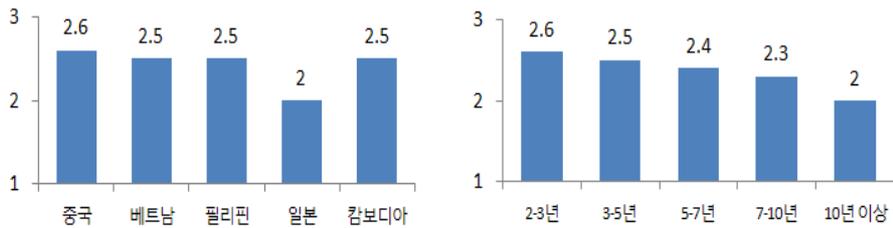
또한, 거주기간별로 살펴봤을 때 교육 및 서비스 이용 영역에 따라 상이한 추세가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어 교육이나 가족생활 이해 관련 서비스 이용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자녀교육 상담 서비스나 직업교육 서비스 이용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Ⅲ-3] 거주기간별 각종 교육 및 서비스 수혜정도

4) 여성결혼이민자 지원기관 이용 빈도

한편, 여성결혼이민자가 지난 1년간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관 등)을 이용한 빈도를 측정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일본 출신의 지원기관 이용 빈도가 다른 국적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지원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빈도는 감소했다. 일본 출신의 응답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점을 고려해볼 때, 지원기관 서비스 이용 수요는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Ⅲ-4] 국적별 지원기관 이용 빈도 [그림 Ⅲ-5] 거주기간별 지원기관 이용 빈도

5) 한국어 능력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보통’(3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영역으로 살펴보면, 조사 응답자들은 듣기와 읽기 능력에 가장 높은 점수를, 쓰기 능력에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었다. 국적별로 보면, 일본, 캄보디아, 베트남 출신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으며,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아졌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직업경험이 전무한 여성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더 높았다.

〈표 Ⅲ-4〉 인구학적 특성별 한국어 능력

(단위: 점)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평균
국적	중국	2.90	2.96	3.19	2.64	2.92
	베트남	3.02	3.07	3.07	2.87	3.01
	필리핀	2.96	3.04	2.95	2.71	2.91
	일본	3.09	3.12	3.22	2.71	3.04
	캄보디아	3.14	3.05	3.05	2.69	2.98
거주기간	2-3년	2.66	2.69	2.71	2.54	2.65
	3-5년	2.98	3.07	3.09	2.77	2.98
	5-7년	3.04	3.10	3.15	2.83	3.03
	7-10년	3.23	3.16	3.30	2.78	3.12
	10년 이상	3.31	3.33	3.42	2.80	3.22
직업경험	현재 일함	3.14	3.18	3.24	2.78	3.09
	과거에 일했음	3.10	3.09	3.15	2.77	3.02
	일한 경험 없음	2.80	2.86	2.91	2.65	2.80
취학자녀 유무	없음	2.76	2.90	2.94	2.69	2.82
	있음	3.12	3.11	3.18	2.75	3.04
평균		3.01	3.05	3.10	2.73	2.97

나. 여성결혼이민자의 외부 활동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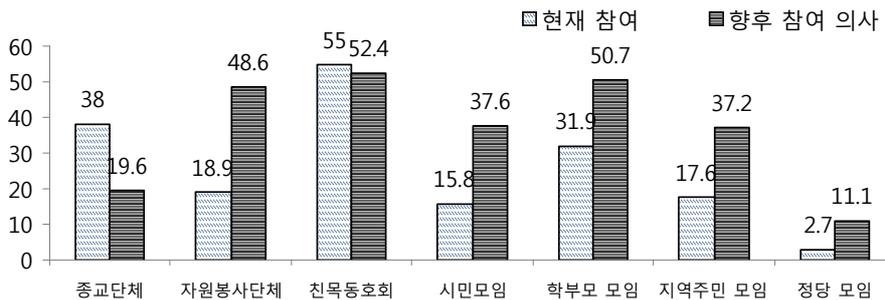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참여는 이들의 사회적 통합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단순한 사회모임 참여 수준뿐만 아니라,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회모임의 구성원 비율, 사회모임 참여를 통해 나타난 변화 등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를 살펴보았다.

1)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 현황

조사 응답자들은 다양한 사회단체 및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은 친

목동호회(55%)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종교단체(38%), 학부모 모임(31.9%), 자원봉사단체(18.9%), 지역주민 모임(17.6%), 시민단체(15.8%) 순이었다. 한편, 정당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단위: %)



[그림 Ⅲ-6]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 현황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출신의 경우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율이 대체로 높았고, 캄보디아 출신은 전반적으로 낮았다. 필리핀 출신은 자원봉사 단체와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국적에 비해 높았으며, 종교단체 및 친목동호회 참여율도 50%를 넘었다. 한편, 캄보디아 출신은 자원봉사단체, 친목동호회, 시민단체, 학부모 모임 등 4개 모임 영역에서 참여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본 출신의 경우 종교단체 및 모임 참여율이 약 8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일본 출신 응답자들이 대부분 종교기관을 통해 결혼한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율은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학부모 모임, 시민단체, 종교단체 유형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직업경험을 보면,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 일한 경험이 전무한 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취학자녀를 둔 여성이 취학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거의 모든 모임(정당모임 제외)에서 참여율이 더 높았다. 연령간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참여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때 친목동호회의 경우에는 다른 모

62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임과는 달리 20대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났다.

〈표 Ⅲ-5〉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

(단위: %)

		종교 단체·모임	자원봉사 단체·모임	친목 동호회	시민 단체·모임	학부모 단체·모임	지역주민 모임	정당 모임
국적	중국	16.8	16.0	56.3	13.4	21.0	10.9	1.7
	베트남	9.1	16.5	59.5	10.7	33.1	12.4	1.7
	필리핀	56.7	29.9	51.5	21.6	43.3	24.7	7.2
	일본	85.0	21.5	57.9	22.4	41.1	15.9	1.9
	캄보디아	27.0	9.5	45.9	10.8	18.9	29.7	1.4
거주 기간	2-3년	23.1	18.2	49.6	12.4	18.2	12.4	3.3
	3-5년	20.9	16.5	56.3	10.1	25.9	15.2	1.9
	5-7년	32.9	14.3	55.7	14.3	28.6	22.9	4.3
	7-10년	42.2	17.2	51.6	20.3	40.6	18.8	1.6
	10년 이상	81.9	27.6	61.0	26.7	53.3	22.9	2.9
직업경험	현재 일함	44.3	20.1	55.3	16.4	34.2	18.3	3.7
	과거에 일했음	45.3	26.5	57.3	23.9	35.9	21.4	4.3
	일한 경험 없음	25.8	12.6	53.3	9.9	26.4	14.3	0.5
취학자녀 유무	없음	30.8	18.6	50.6	11.5	14.7	15.4	3.2
	있음	41.2	19.1	56.9	17.7	39.2	18.5	2.5
연령	20대	21.4	13.5	58.1	10.9	24.5	12.7	2.6
	30대	31.6	21.5	49.4	16.5	33.5	23.4	3.2
	40대	75.0	26.0	56.7	20.2	44.2	18.3	1.0
	50대 이상	74.1	22.2	55.6	37.0	37.0	22.2	7.4
학력	중졸 이하	17.5	13.8	47.5	11.9	25.0	13.1	0.0
	고졸	40.5	19.0	59.5	13.5	33.5	20.0	3.0
	대졸 이상	55.7	24.1	57.0	22.8	36.7	19.0	5.1
평균		38.0	18.9	55.0	15.8	31.9	17.6	2.7

또한 현재에는 각종 모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들 사이에서도 향후 사회단체 및 모임에 참여할 의향이 상당 수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친목동호회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향후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며, 자원봉사 단체의 경우도 이 비율이 48.6%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모임(37.6%)과 지역주민 모임(37.2%)이 그 뒤를 이었으며, 종교단체와 정당모임에 대한 참여의사는 각각 19.6%, 1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출신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정당 모임을 제외한 6개 사회모임 영역에서 약 50% 이상이 참여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율이 다른 국적에 비해 저조했던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자원봉사단체, 지역주민 모임에 대한 참여의사 역시 상대적으로 약했으나, 학부모 모임에서는 56.7%로 가장 높은 참여의사를 보였다.

거주 기간별로 보면, 한국 거주기간이 2~3년인 경우 친목동호회에 대한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으며, 거주기간 3~5년에는 학부모 모임과 친목동호회에 대한 참여 의사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거주기간 5~7년에서도 친목동호회, 학부모 모임,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참여의사가 50%를 넘었다. 거주기간 7~10년은 학부모 모임에 대한 참여 의사가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참여 의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업경험을 보면 과거에 일했던 여성은 현재 일하거나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거의 모든 유형의 모임(종교단체 제외)에 향후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취학자녀가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에 비해 자원봉사단체와 학부모 모임을 제외한 나머지 모임에서 대체로 향후 참여의사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 단체의 참여의사가 높은 반면, 친목동호회, 시민단체, 학부모모임, 정당모임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향후 참여의사는 일관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친목모임을 제외한 모든 모임의 향후 참여의사가 높아졌다.

〈표 Ⅲ-6〉 인구학적 특성별 사회단체 및 모임 향후 참여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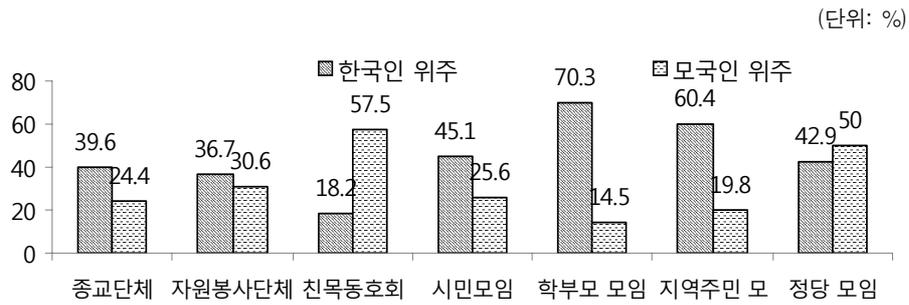
(단위: %)

		종교 단체·모임	자원봉사 단체·모임	친목 동호회	시민 단체·모임	학부모 단체·모임	지역주민 모임	정당 모임
국적	중국	11.1	40.0	57.7	33	52.1	35.8	7.7
	베트남	20.0	48.5	53.1	41.7	53.1	36.8	20.2
	필리핀	45.2	63.2	51.1	55.3	54.5	57.5	14.4
	일본	12.5	61.9	48.9	32.5	36.5	28.9	5.7
	캄보디아	16.7	29.9	50.0	24.2	56.7	26.9	5.5
거주기간	2-3년	20.4	42.4	59.0	33.0	45.5	34.9	13.7
	3-5년	16.0	44.7	50.7	40.1	58.1	36.6	11.6
	5-7년	29.8	51.7	64.5	43.3	64.0	42.6	11.9
	7-10년	13.5	47.2	38.7	33.3	50.0	42.3	6.3
	10년 이상	26.3	61.8	46.3	37.7	30.6	34.6	9.8
직업경험	현재 일함	24.6	51.4	45.9	36.1	45.1	38.5	8.5
	과거에 일했음	15.6	54.7	64.0	53.9	57.3	47.8	18.8
	일한 경험 없음	17.0	42.1	52.9	30.5	53.0	29.5	9.4
취학자녀 유무	없음	21.3	48.0	67.5	42.8	44.4	40.9	10.6
	있음	18.8	48.8	44.9	35.2	54.5	35.6	11.3
연령	20대	18.9	42.4	59.4	39.7	58.4	40.0	13.9
	30대	23.1	50.8	45.0	37.1	50.5	36.4	11.1
	40대	15.4	53.2	51.1	36.1	34.5	31.8	6.8
	50대 이상	0.0	76.2	50.0	23.5	29.4	38.1	4.0
학력	중졸 이하	15.2	31.2	48.8	29.8	45.0	29.5	8.1
	고졸	22.7	53.7	55.6	40.5	51.1	39.4	11.3
	대졸 이상	22.9	61.7	52.9	42.6	57.0	43.0	14.0
평균		19.6	48.6	52.4	37.6	50.7	37.2	11.1

2) 참여 단체·모임의 구성

참여 단체·모임의 한국인 및 모국인 구성비는 영역별로 상이했다. 아래 [그림 Ⅲ-7]에서 볼 수 있듯이 학부모 모임의 경우 한국인 위주로 구성돼 있

는 비율이 70.3%로 매우 높았으며, 지역주민 모임 역시 과반수를 넘는 비율이 한국인 위주로 구성돼 있었다. 한편, 친목동호회의 경우에는 한국인 위주 비율이 18.2%에 불과했다.



[그림 Ⅲ-7] 참여단체 · 모임의 한국인 및 모국인 구성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출신에서 한국인 위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국 출신이 참여하는 종교단체 모임 중 90%가 한국인 위주로 구성돼 있었으며, 학부모 모임과 지역주민 모임도 이 비율이 각각 84%, 76.9% 수준이었다. 한편, 일본 출신의 경우 자신이 참여하는 종교단체 중 한국인이 많은 비율은 9.9%에 불과했으며, 캄보디아 출신도 친목동호회의 경우 이 비율이 5.9%로 매우 낮았다.

거주기간별로 보면, 학부모 모임과 지역주민 모임에서는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한국인 위주의 모임 비중이 뚜렷이 증가한 반면, 종교단체의 경우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이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7〉 국적·거주기간별 한국인 위주의 사회집단 참여율

(단위: %)

		종교 단체·모임	자원봉사 단체·모임	친목 동호회	시민 단체·모임	학부모 단체·모임	지역주민 모임	정당 모임
국적	중국	90.0	26.3	20.9	56.3	84.0	76.9	0
	베트남	54.5	25.0	16.7	15.4	65.0	40.0	50.0
	필리핀	52.7	51.7	18.0	33.3	55.8	62.5	28.6
	일본	9.9	39.1	24.2	62.5	93.2	82.4	100
	캄보디아	80.0	28.6	5.9	50.0	30.8	45.5	100
거주기간	2-3년	60.7	9.1	10.0	13.3	27.3	46.7	0
	3-5년	48.5	34.6	12.4	43.8	58.5	50.0	66.7
	5-7년	43.5	30.0	23.1	30.0	63.2	56.3	33.3
	7-10년	44.4	54.5	15.2	30.8	84.6	58.3	100
	10년 이상	26.7	55.2	32.8	75.0	91.2	83.3	66.7
전체		39.6	36.7	18.2	45.1	70.3	60.4	42.9

한편, 자신이 참여하는 사회단체 및 모임이 모국인 위주로 구성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친목동호회가 57.5%로 가장 높았으며, 정당모임 50%, 자원봉사단체 30.6%, 시민단체 모임 25.6%, 종교단체 모임 24.4%, 지역주민 모임 19.8% 순이었고, 학부모 단체 모임이 14.5%로 가장 낮았다. 국적별로는 캄보디아 출신에서 모국인 위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뚜렷이 발견되었다.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6개 모임 영역 중 4개에서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출신은 종교단체 모임에서, 필리핀 출신은 시민단체 모임에서 모국인 위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자원봉사 모임, 친목동호회, 학부모 모임에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모국인 위주 비율이 뚜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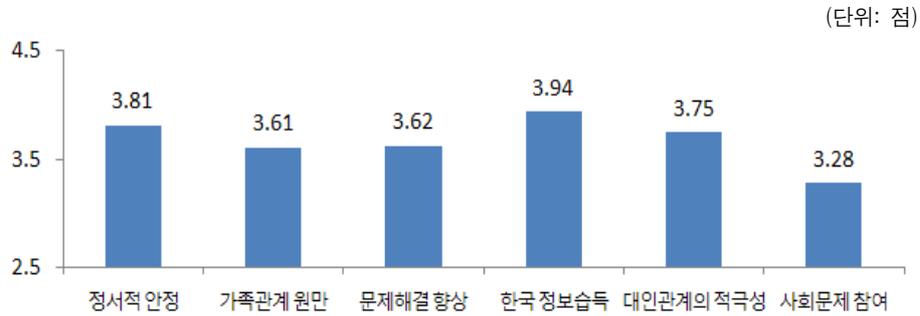
〈표 Ⅲ-8〉 국적·거주기간별 모국인 위주의 사회집단 참여율

(단위: %)

		종교	자원봉사	친목	시민	학부모	지역주민	정당
		단체·모임	단체·모임	동호회	단체·모임	단체·모임	모임	모임
국적	중국	5.0	31.6	59.7	18.8	4.0	7.7	50.0
	베트남	18.2	25.0	51.4	15.4	7.5	0	50.0
	필리핀	21.8	24.1	66.0	42.9	27.9	25.0	71.4
	일본	36.3	39.1	48.4	16.7	4.5	11.8	0
	캄보디아	0	42.9	70.6	37.5	46.2	40.9	0
거주기간	2-3년	21.4	36.4	63.3	46.7	40.9	20.0	75.0
	3-5년	6.1	34.6	68.5	25.0	19.5	33.3	33.3
	5-7년	34.8	30.0	56.4	30.0	15.8	25.0	66.7
	7-10년	22.2	27.3	54.5	30.8	3.8	16.7	0
	10년 이상	30.2	24.1	39.1	10.7	5.3	4.2	33.3
전체		24.4	30.6	57.5	25.6	14.5	19.8	50.0

3)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를 통한 변화

다음 [그림 Ⅲ-8]은 사회단체 및 모임에 대한 참여 효과를 보여준다. 조사 응답자들은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며 정서적 안정 효과도 지니고 대인 관계의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인식했다. 사회단체 및 모임에 대한 참여효과를 6개 영역에서 측정한 결과, 한국에 대한 정보습득이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서적 안정 3.81, 대인관계의 적극성 3.75, 문제해결 능력 향상 3.62, 가족관계 원만 3.61 순이었으며, 사회문제 개선 참여가 3.28로 가장 낮았다.



[그림 Ⅲ-8]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를 통한 변화

국적별로는 필리핀 출신이 사회단체 및 모임의 참여 효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필리핀 출신은 사회문제 개선 참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참여효과 점수를 보였다. 한편, 거주기간별로는 뚜렷한 특징이 발견되지 않았다.

<표 Ⅲ-9> 국적·거주기간별 사회단체 및 모임참여를 통한 변화

(단위: 점)

		정서적 안정	가족관계 원만	문제해결 능력향상	한국 정보습득	대인관계 적극성	사회문제 개선참여
국적	중국	3.67	3.52	3.61	3.91	3.74	3.17
	베트남	3.67	3.51	3.29	3.62	3.56	3.17
	필리핀	4.07	4.06	3.92	4.21	4.07	3.37
	일본	3.77	3.39	3.65	4.01	3.74	3.26
	캄보디아	3.88	3.58	3.54	3.85	3.54	3.46
거주기간	2-3년	3.85	3.76	3.60	3.86	3.77	3.29
	3-5년	3.79	3.64	3.62	3.97	3.69	3.17
	5-7년	3.87	3.58	3.54	3.81	3.65	3.37
	7-10년	3.58	3.38	3.42	3.88	3.69	3.15
	10년 이상	3.90	3.61	3.77	4.08	3.89	3.40
전체		3.81	3.61	3.62	3.94	3.75	3.28

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 수준

마지막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 수준을 알아보려고 이들의 한국생활 만족도와 문화적 유능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생활 만족도의 경우에는 총 5가지 영역(결혼생활, 이웃관계, 지역환경, 위치 및 역할, 경제수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문화적 유능감의 경우에는 하위 3영역(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으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1) 한국생활 만족도

다음은 인구학적 특성별로 조사 응답자들의 한국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적을 비교해보면, 중국과 필리핀 출신이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하여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본과 캄보디아 출신의 한국생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직업경험을 보면,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은 과거에 일했거나 일한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취학자녀를 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이웃관계나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생활 만족도, 자신의 위치 및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일관되게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아졌다.

〈표 Ⅲ-10〉 인구학적 특성별 한국생활 만족도

(단위: 점)

		결혼생활	이웃관계	지역환경	위치·역할	경제수준	평균
국적	중국	3.80	3.85	3.68	3.70	3.18	3.64
	베트남	3.28	3.56	3.54	3.41	3.19	3.40
	필리핀	3.58	3.51	3.84	3.82	3.28	3.62
	일본	3.35	3.48	3.32	3.39	2.73	3.25
	캄보디아	3.20	3.34	3.34	3.15	3.05	3.22
거주기간	2-3년	3.60	3.60	3.55	3.61	3.40	3.55
	3-5년	3.47	3.54	3.51	3.49	3.14	3.43
	5-7년	3.41	3.66	3.66	3.50	3.17	3.48
	7-10년	3.08	3.42	3.42	3.25	2.81	3.20
	10년 이상	3.54	3.60	3.63	3.60	2.77	3.44
직업경험	현재 일함	3.49	3.61	3.63	3.59	3.12	3.49
	과거에 일했음	3.38	3.58	3.43	3.42	3.02	3.36
	일한 경험 없음	3.48	3.51	3.54	3.48	3.10	3.42
취학자녀 유무	없음	3.55	3.46	3.50	3.62	3.29	3.49
	있음	3.42	3.62	3.57	3.47	3.01	3.42
연령	20대	3.51	3.55	3.63	3.53	3.31	3.51
	30대	3.44	3.61	3.58	3.51	2.99	3.43
	40대	3.42	3.53	3.35	3.50	2.81	3.33
	50대 이상	3.33	3.59	3.52	3.44	2.85	3.35
학력	중졸 이하	3.34	3.41	3.38	3.41	3.11	3.33
	고졸	3.42	3.63	3.58	3.51	2.99	3.43
	대졸 이상	3.63	3.65	3.69	3.62	3.20	3.56
평균		3.46	3.57	3.55	3.51	3.09	3.44

2) 문화적 유능감

문화적 유능감을 각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적별로 비교해 보면, 의사소통 유능감은 중국과 일본 출신이, 사회적응 및 문

화이해 유능감은 필리핀 출신이, 문제해결 유능감은 필리핀과 일본출신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거의 모든 측면에서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유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문화적 유능감은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은 현재 일하거나 과거에 일했던 여성에 비해 문화적 유능감이 낮았다. 한편 취학자녀를 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문화적 유능감이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문화적 유능감도 함께 높아졌다.

〈표 Ⅲ-11〉 인구학적 특성별 문화적 유능감

(단위: 점)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
국적	중국	3.28	3.39	3.31
	베트남	3.05	3.32	3.20
	필리핀	2.78	3.75	3.53
	일본	3.13	3.30	3.59
	캄보디아	2.84	3.19	3.01
거주기간	2-3년	2.78	3.23	2.95
	3-5년	3.02	3.34	3.25
	5-7년	2.98	3.43	3.37
	7-10년	3.16	3.40	3.49
	10년 이상	3.32	3.63	3.82
직업 경험	현재 일함	3.20	3.47	3.52
	과거에 일했음	3.07	3.46	3.45
	일한 경험 없음	2.82	3.25	3.06
취학자녀 유무	없음	2.89	3.30	3.06
	있음	3.10	3.43	3.46
연령	20대	2.98	3.30	3.18
	30대	3.05	3.44	3.37
	40대	3.09	3.44	3.58
	50대 이상	3.23	3.70	3.67
학력	중졸 이하	2.91	3.21	3.01
	고졸	3.06	3.43	3.42
	대졸 이상	3.13	3.54	3.56
평균		3.04	3.39	3.34

3) 사회생활 참여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생활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단체의 수를 각 인구학적 특성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과 일본이 다른 국적에 비해 정기참여 모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정기참여 모임의 수는 일관되게 높아졌다. 직업경험별로 보면, 과거에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은 현재 일하거나 과거에 일했던 여성에 비해 정기참여 모임 수가 적었다. 또한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참여 모임의 수가 많았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정기참여 모임의 수는 증가하지만,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Ⅲ-12〉 인구학적 특성별 정기 참여 모임 수

(단위: 개)

		정기참여 모임 수			정기참여 모임 수
국적	중국	0.95	취학자녀 유무	없음	1.13
	베트남	0.93		있음	1.34
	필리핀	1.63	연령	20대	1.08
	일본	1.74		30대	1.27
	캄보디아	1.26		40대	1.68
거주기간	2-3년	1.00		50대 이상	1.41
	3-5년	1.03	학력	중졸 이하	0.91
	5-7년	1.27		고졸	1.35
	7-10년	1.50		대졸 이상	1.57
	10년 이상	1.84	평균		1.28
직업경험	현재 일함	1.32			
	과거에 일했음	1.54			
	일한 경험 없음	1.06			

3.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제 양상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 이후 새로운 사회 적응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주를 계기로 어떻게 달라지며, 어떠한 통로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또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기대와 영역별 사회적 자원의 구성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가. 결혼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1)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

여성결혼이민자는 결혼을 전후해 사회적 관계를 재구성하게 된다. 아래 <표 III-13>과 [그림 III-9]를 보면 이들이 결혼 전에 가깝게 지낸 사람 수는 평균 11.1명이었으나, 결혼 후에는 9.3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구만 제외하고, 가족, 이웃 등 다수의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크기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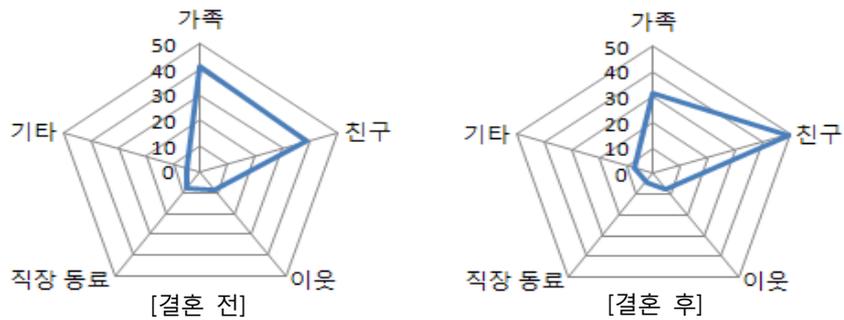
한편, 결혼을 전후해 사회적 관계의 세부적 구성 역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분포를 보면 가족의 비중은 결혼 후에 감소하지만(41.1% → 32.0%), 친구의 비중은 증가한 (38.3% → 49.7%)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관계가 한국생활 적응이나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결국 이들이 소유한 사회적 자원의 양이 감소하고, 그 관계의 내용 역시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Ⅲ-13〉 결혼 전후로 변화한 사회적 관계 크기

(단위: 명)

		본국(결혼 전)			한국(결혼 후)		
		평균	표준편차	비중 (%)	평균	표준편차	비중 (%)
각 사회적 관계별 명수	가족	3.83	3.65	41.1	2.57	3.17	32.0
	친구	3.79	4.66	38.3	3.95	4.24	49.7
	이웃	1.58	3.84	8.4	0.93	2.64	7.4
	직장 동료	1.14	2.49	7.4	0.43	1.46	3.9
	기타	0.75	2.25	4.8	0.66	1.97	7.0
가까운 사람 총수		11.08	11.52	100.0	9.29	9.43	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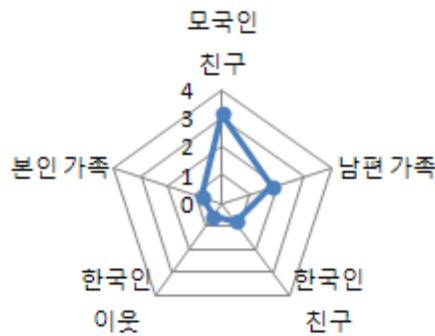
[그림 Ⅲ-9] 결혼이주 전후 사회적 관계 구성 비율의 변화

다음 <표 Ⅲ-14>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국적별(모국인, 한국인, 기타외국인)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를 보여준다. 모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명으로, 한국인 3.8명보다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국인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14〉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 크기

(단위: 명)

		평균	표준편차
한국의 가까운 사람 총수		9.29	9.43
모국인	합계	4.75	5.21
	본인 가족	0.74	1.45
	친구	3.15	3.43
	이웃	0.36	1.40
	직장 동료	0.21	1.12
	공공기관 종사자	0.09	0.51
	기타	0.20	1.30
한국인	합계	3.79	4.88
	남편 가족	1.83	2.54
	친구	0.79	1.81
	이웃	0.57	1.83
	직장 동료	0.22	0.8
	공공기관 종사자	0.26	0.84
	기타	0.10	0.53
기타 외국인		0.76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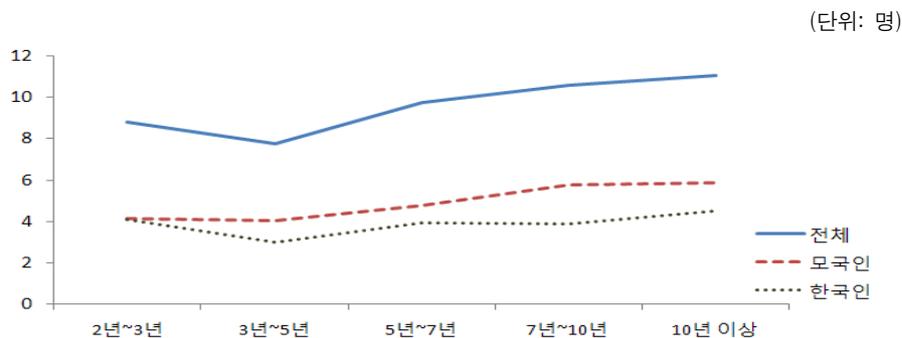


[그림 Ⅲ-10] 한국에서의 주요 사회적 관계 유형

특히,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국인 친구가 약 3.2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남편 가족 1.8명, 한국인 친구 0.8명, 본인 가족 0.7명, 한국인 이웃 0.6명 순이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재구성하는 사회적 관계에서 모국인 친구가 1순위, 남편 가족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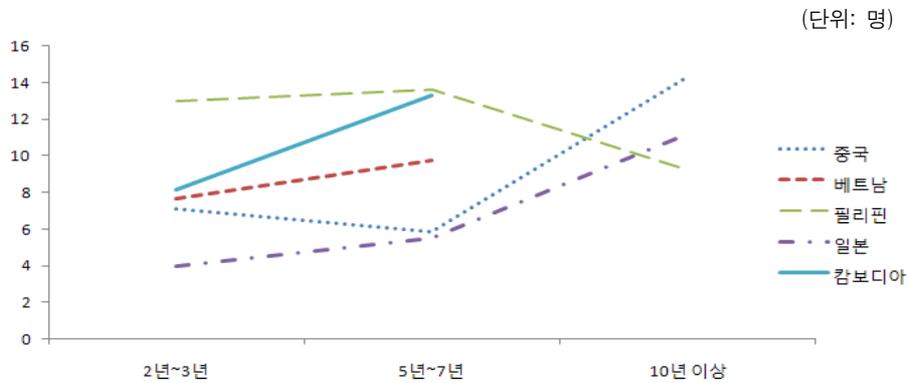
2) 거주기간 및 국적에 따른 사회적 관계 변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수가 거주기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 III-11]에서 볼 수 있듯이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을 모국인과 한국인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모국인이 한국인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인과 한국인 연결망 모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관계 크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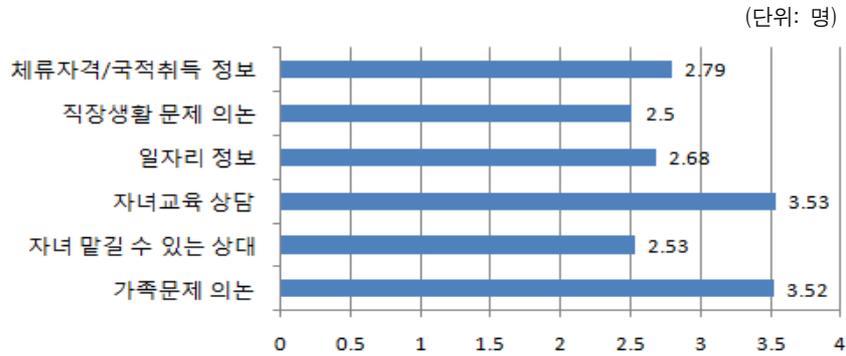
다음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사회적 관계 크기가 변화하는 양상에 국적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래 [그림 III-12]에서 볼 수 있듯, 중국, 베트남, 일본,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관계의 크기가 증가하는 반면, 필리핀 출신은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관계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2] 국적별 거주기간에 따른 사회적 관계 크기의 변화

3) 하위 영역별 사회적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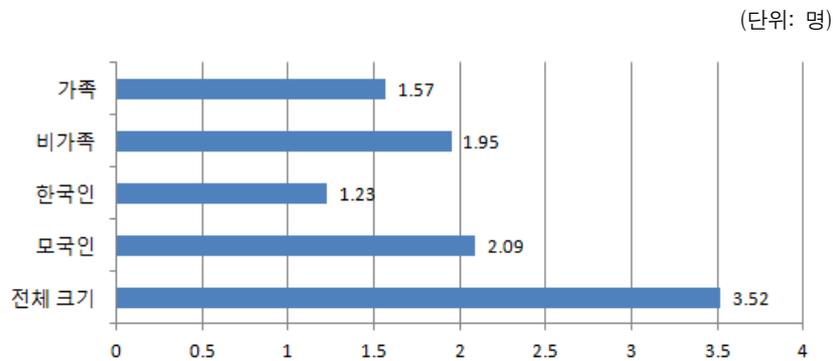
여기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크게 3가지 하위 영역(정서적 자원, 일상적 자원, 도구적 자원)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가 보유한 사회적 자원의 크기는 영역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나 시댁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 수’로 측정된 정서적 자원의 크기는 약 3.5명으로 가장 컸으며, ‘자녀교육 상담 상대’와 ‘자녀 맡길 수 있는 상대’로 측정된 일상적 자원의 크기는 평균 3명으로 그 다음 수준이었다. ‘일자리’, ‘직장생활 문제’, ‘체류자격·국적취득’을 의논하는 상대로 측정된 도구적 자원의 크기가 평균 2.7명으로 가장 작았다. 전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는 정서적 자원에 비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적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영역별 사회적 자원의 크기

가) 정서적 자원

정서적 자원 영역에서는 모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및 시댁 문제를 의논하는 사람 수로 측정한 정서적 자원의 크기는 평균 3.5명이었으며, 이중 모국인 비중(2.1명)이 한국인(1.2명)보다 훨씬 컸다. 또한, 정서적 자원의 경우 가족(1.6명)보다는 가족 이외의 사람(약 2명)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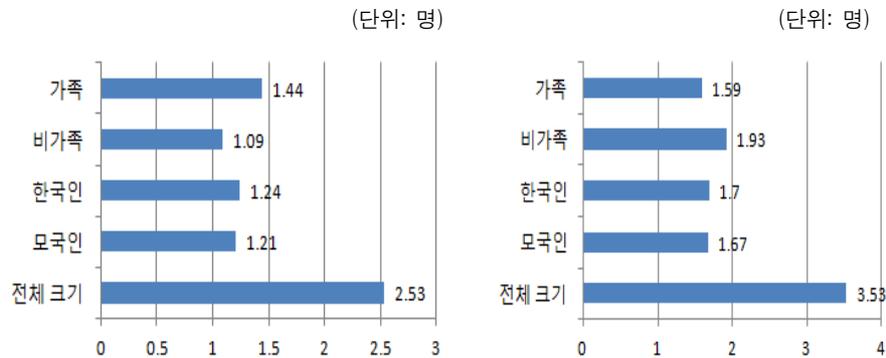


[그림 Ⅲ-14] 배우자 및 시댁문제 의논 상대

나) 일상적 자원

일상적 자원영역에서는 한국인과 모국인에 대한 의존도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자원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를 급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2.5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인과 모국인 수는 각각 1.24명과 1.21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3.5명이었으며, 한국인과 모국인 수는 각각 1.70명, 1.67명으로 거의 동일했다. 자녀를 급하게 맡길 수 있는 상대에서는 가족 비중(1.4명)이 가족 이외의 사람(1.1명)보다 다소 큰 한편, 자녀 문제를 상담하는 경우에는 가족 이외의 비중(1.9명)이 가족 (1.6명)보다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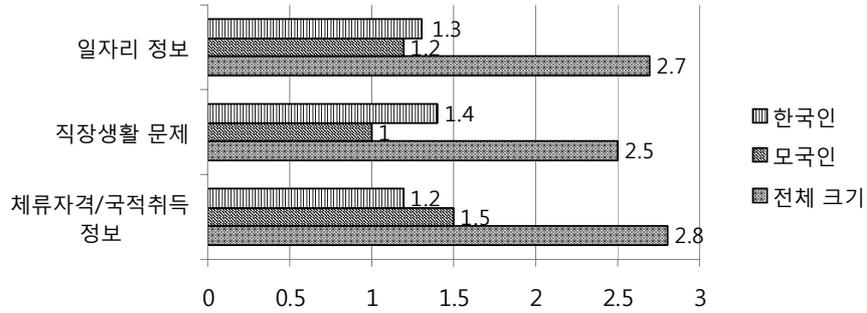
[그림 Ⅲ-15] 자녀 맡길 수 있는 상대

[그림 Ⅲ-16] 자녀교육 상담 상대

다) 도구적 자원

도구적 자원 영역에서는 대체로 한국인 비중이 모국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자원을 측정한 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가 구직 문제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수는 약 2.7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인 수가 1.33명으로 모국인(1.23명)보다 약간 컸다. 또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의논하는 사람은 약 2.5명이었고, 한국인 비중이 1.4명으로 모국인(1명)보다 컸다. 한편, 체류 자격 및 국적 취득 문제에 관한 의논 상대의 경우 전체 크기가 2.8명이었으며, 모국인 비중(1.5명)이 한국인(1.2명)보다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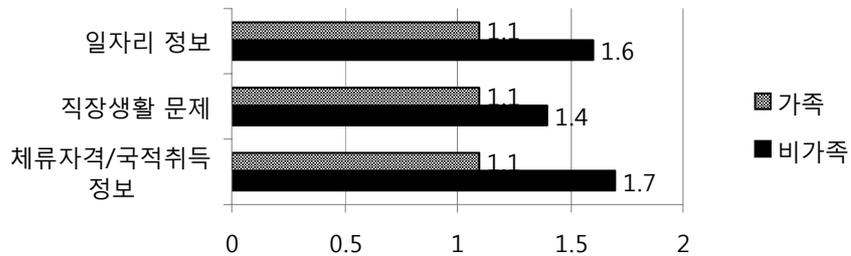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III-17] 도구적 자원 : 한국인과 모국인 구분

또한, 도구적 자원 영역에서는 가족보다는 가족 이외의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일자리 상담 상대에서는 가족 이외의 사람 비중(1.6명)이 가족(1.1명)보다 컸으며, 직장생활 어려움 의논 상대도 각각 1.4명과 1.1명, 체류자격 및 국적취득 의논 상대 역시 각각 1.7명, 1.1명으로, 가족 이외의 사람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명)



[그림 III-18] 도구적 자원 : 가족과 비가족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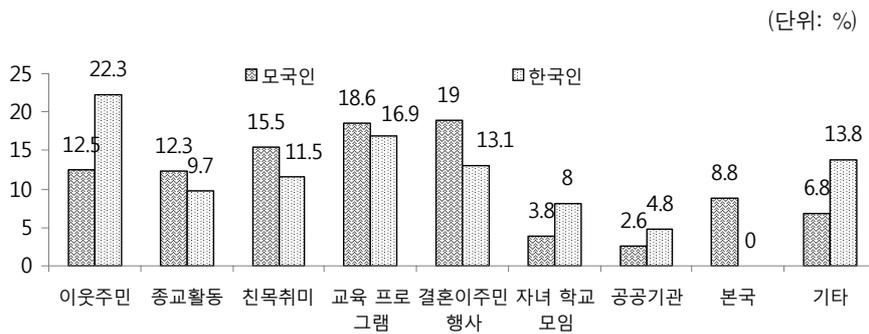
나. 한국에서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어 교실이나 비공식 모임 등을 통해 동향 출신 여성들과 유대 지향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이용균 2007), 이러한 관계는 친목이나 종교 활동, 학술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한 정기 모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정성미 2010), 본 조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결혼이주민행사, 교육 프로그램, 친목/취미모임 등에 참여함으로써 모국인과 사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은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를 묻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행사(19%)와 교육 프로그램(18.6%)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그 다음은 친목/취미 모임(15.5%), 이웃주민(12.5%), 종교활동(12.3%) 순이었다.

한편, 한국인과는 주로 이웃 주민으로 만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사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은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를 묻는 질문에서 ‘이웃 주민으로 만남’(22.3%)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교육 프로그램(16.9%)이나 결혼 이주민 행사(13.1%) 참여를 들었다.



[그림 Ⅲ-19]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

또한, 국적별로 한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를 살펴보면 아래 <표 Ⅲ-15>와 같다. 5개국 출신의 조사 응답자들은 모두 한국인과의 관계형성 통로로 ‘이웃주민으로 만남’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 출신의 경우에는 결혼이주민 지원행사(20.2%)를, 필리핀과 캄보디아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각 21.2%, 26.1%), 일본 출신의 경우 종교 활동(21.8%)을 지적했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임이나 행사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15〉 국적·거주기간별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

(단위: %)

		이웃 주민	종교 활동	친목 취미	교육 프로 그램	결혼 이주민 행사	자녀 학교 모임	공공 기관	기타	전체
국적	중국	19.9	5.1	12.8	16.8	13.8	7.1	4.1	20.4	100.0
	베트남	24.3	1.8	11.5	17	20.2	10.6	7.3	7.3	100.0
	필리핀	18.9	15.8	13.5	21.2	12.2	5	4.5	9	100.0
	일본	29.5	21.8	9.6	2.6	0	10.9	5.1	20.5	100.0
	캄보디아	19.6	5.1	8.7	26.1	17.4	6.5	2.2	14.5	100.0
거주 기간	2 - 3년	15.3	5.4	11.9	25.2	15.3	4.5	16.3	6.1	100.0
	3 - 5년	21.4	6.7	10.5	20.4	17.9	6.3	14	2.8	100.0
	5 - 7년	21.4	8.3	14.5	15.2	16.6	8.3	11	4.7	100.0
	7 - 10년	29.3	9.5	12.1	9.5	8.6	10.3	13.8	6.9	100.0
	10년이상	27.5	20.3	9.9	8.2	3.3	12.3	12.6	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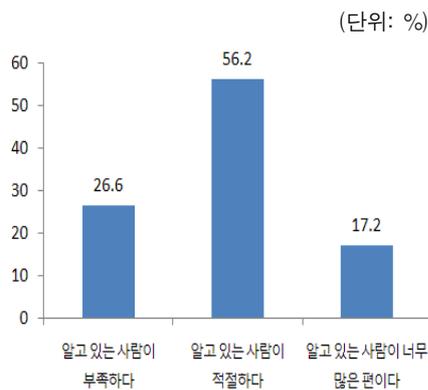
거주기간별로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 통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의 학교모임이나 ‘이웃 주민으로 만남’을 통해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 비율은 증가하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결혼이주민 행사 참여를 통한 관계 형성 비중은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결혼이주민 행사 참여는 결혼이주민여성의 정착 과정에서 한국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통로이며, 한국사회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이웃 주민이나 자녀 변수가 점차 중요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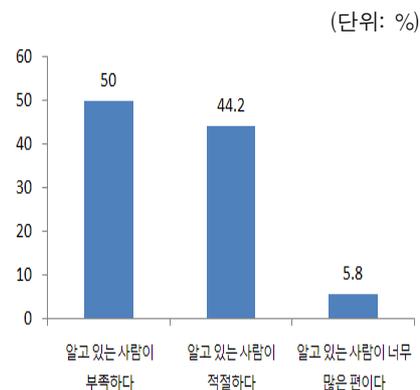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국인이나 모국인 출신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과 동시에, 간섭과 반대, 통제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음을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이민아 2010; 박미정 외 2009). 여기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다음의 [그림 Ⅲ-20], [그림 Ⅲ-21]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먼저,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인 56.2%였고, ‘너무 많은편’이라는 응답도 17.2%였으며, ‘부족하다’는 응답은 26.6% 수준이었다. 한편,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모국인의 경우보다 낮은 44.2% 였으며, ‘알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50%로 모국인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았다. 결혼이주여성들이 모국인보다는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0]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적절성 평가



[그림 Ⅲ-21]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적절성 평가

국적별로 살펴보면,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베트남(68.6%)과 일본(84.1%) 출신은 대체로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에서는 30% 이상이 현재 ‘알고 지내는 모국인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베트남 출신만 제외하고, 모든 국적에서 ‘알고 지내는 한국인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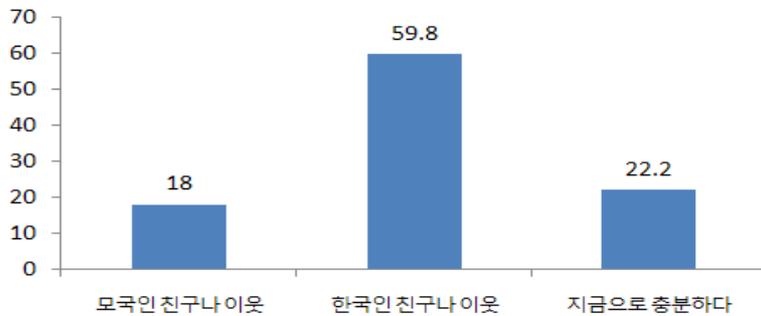
〈표 Ⅲ-16〉 국적별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적절성 평가

(단위: %)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			계
	알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편이다	알고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	알고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편이다	
중국	38.7	42.9	18.5	66.4	30.3	3.4	100.0(119)
베트남	14.9	68.6	16.5	33.9	62.8	3.3	100.0(121)
필리핀	37.1	39.2	23.7	52.6	39.2	8.2	100.0(97)
일본	14.0	84.1	1.9	47.7	52.3	0.0	100.0(107)
캄보디아	31.1	39.2	29.7	50.0	31.1	18.9	100.0(74)

한국에서 향후 맺고 싶은 사회적 관계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9.8%가 한국인 친구나 이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국인 친구나 이웃은 18%에 그쳤다. 이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인보다는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더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그림 Ⅲ-22] 한국에서 향후 맺고 싶은 사회적 관계

국적별로 살펴보면, 일본 출신의 경우 향후 모국인 친구나 이웃을 사귀고 싶다는 응답이 4.7%로 다른 국적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한국인 친구나 이웃을 사귀고 싶다는 응답은 70.1%로 가장 높았다. 한편, 필리핀 출신의 경우에는 약 37.1%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고 답하는 등 다른 국적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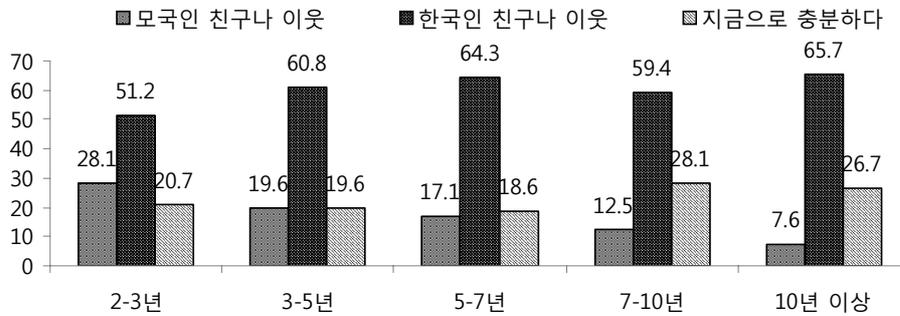
〈표 Ⅲ-17〉 국적별 한국에서 향후 맺고 싶은 사회적 관계

(단위: %)

	향후 맺고 싶은 사회적 관계			합계
	모국인 친구나 이웃	한국인 친구나 이웃	지금으로 충분하다	
중국	21.8	64.7	13.4	100.0
베트남	19.8	63.6	16.5	100.0
필리핀	20.6	42.3	37.1	100.0
일본	4.7	70.1	25.2	100.0
캄보디아	24.3	54.1	21.6	100.0

거주기간별로 살펴보면, 모국인 친구나 이웃을 사귀고 싶다는 응답이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했으며, 반면 한국인 친구나 이웃을 사귀고 싶다는 응답은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바람은 결혼이주 초기에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한국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바람은 거주기간 증가에 따라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단위: %)



[그림 Ⅲ-23] 거주기간별 향후 맺고 싶은 관계

4.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과 관련 변수

가. 사회적 관계 유형별 특성

조사대상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사회적 관계 크기와 한국인 및 모국인 비율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가족을 포함해 2명 이하인 경우는 전부 소외형으로 분류했으며, 사회적 관계 크기가 3명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인 및 모국인 비율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였다. 조사대상을 유형화한 구체적인 기준은 <표 III-18>과 같다. 유형화 결과, 모국인 편향형의 비율이 3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형이 28.2%로 그 뒤를 이었으며 한국인 편향형은 18.7% , 소외형은 15.8% 수준이었다.

<표 III-1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화

사회적 관계 유형	연결망 크기	모국인 비율*	빈도 (%)
소외형	2명 이하	전체	82 (15.8)
한국인 편향형	3명 이상	0.4 이하	97 (18.7)
균형형	3명 이상	0.4초과-0.6이하	146 (28.2)
모국인 편향형	3명 이상	0.6 초과	193 (37.3)

* 모국인 수를 전체 연결망 크기(기타 국적 제외)로 나눈 비율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세부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인 편향형이 본국과 한국에서 모두 사회적 관계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가까이 지낸 사람 수는 한국인 편향형이 평균 13.2명으로 가장 컸으며, 균형형 12.5명, 모국인 편향형 12.0명 수준이었고, 소외형은 3.9명이었다. 한국에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 수 역시 한국인 편향형이 11.6명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균형형으로 약 11명, 모국인 편향형 10.1명이었고, 소외형은 1.5명 수준이었다. 소외형은 한국뿐 아니라 본국에서도 사회 연결망의 크기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저히 작았다.

흥미롭게도, 모국인 편향형의 경우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모국인 7.02

명중 절반이 넘는 4.68명이 모국인 친구였으며, 한국인 편향형은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8.05명중 절반이 넘는 4.27명이 남편 가족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외형의 경우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이 채 1명도 되지 않고, 특히 남편 가족은 0.37명에 불과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Ⅲ-19〉 사회적 관계 유형별 세부 구성

(단위: 명)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	전체
본국의 가까운 사람 총수	3.88	12.01	13.18	12.50	11.08
한국의 가까운 사람 총수	1.50	10.14	11.59	11.01	9.29
한국의 가까운 사람_모국인	0.93	7.02	2.89	5.12	4.75
한국의 가까운 사람_한국인	0.54	2.22	8.05	4.85	3.79
한국의 가까운 모국인_친구	0.71	4.68	2.07	3.23	3.15
한국의 가까운 한국인_남편가족	0.37	0.97	4.27	2.18	1.83

사회적 관계 유형별 분포를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Ⅲ-20>과 같다. 중국 한족의 경우 균형형이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모국인 편향형은 29.4%로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 출신은 모국인 편향형이 38%로 가장 높았고, 그 뒤는 소외형으로 23.1% 수준이었다. 필리핀 출신은 균형형이 45.4%로 압도적인 수준이었고, 그 다음은 모국인 편향형으로 27.8%였다. 일본 출신의 경우 모국인 편향형이 52.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는 균형형으로 27.1% 수준이었다. 캄보디아 출신은 모국인 편향형이 39.2%로 가장 높았고, 소외형도 29.7%나 되었다.

전반적으로 소외형은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사이에서 비교적 많고 중국인 출신은 한국인 편향형, 필리핀 출신은 균형형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모국인 편향형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것이다.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의 경우에는 한국생활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회적 교류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도 낮은 것 등이

사회적 관계 발달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인은 비교적 오랜 기간 한국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삶에서 종교기관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고 사회적 관계망 역시 종교기관을 통해 형성된 모국인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20〉 사회적 관계 유형별 국적 분포

(단위: %)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
중국(한족)	11.8	29.4	25.2	33.6
베트남	23.1	38.0	17.4	21.5
필리핀	9.3	27.8	17.5	45.4
일본	8.4	52.3	12.1	27.1
캄보디아	29.7	39.2	21.6	9.5
전체 평균	15.8	37.3	18.7	28.2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평균 거주기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균형형이,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소외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균형형의 경우 평균 거주기간이 84.6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모국인 편향형은 82.6개월, 한국인 편향형은 73.2개월, 소외형은 66.2개월로 가장 짧았다. 여기서 모국인 편향형의 거주기간이 길게 나타난 것은 한국 거주기간이 긴 특징을 지닌 일본 출신의 응답자들이 이 집단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에서는 한국인 편향형이 평균 11.6명으로 가장 컸으며, 균형형과 모국인 편향형은 각각 11명, 10.1명 수준이었다. 소외형은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수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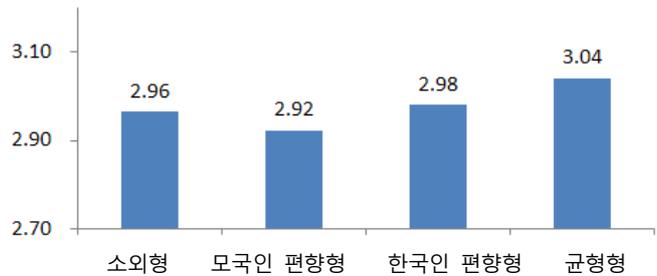
〈표 Ⅲ-21〉 사회적 관계 유형별 거주기간 및 관계망 크기

	거주기간(개월)	한국의 가까운 사람 총수(명)
소외형	66.2	1.50
모국인 편향형	82.6	10.14
한국인 편향형	73.2	11.59
균형형	84.6	11.01
전체 평균	78.8	9.29

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한국생활 경험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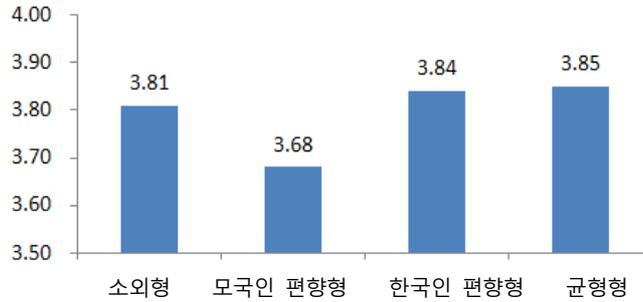
이러한 사회적 관계 유형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 능력, 가족의 지지, 차별경험 등 한국생활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한국어 능력을 보면, 균형형 집단(3.04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한국인 편향형(2.98점)과 소외형(2.96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고, 모국인 편향형(2.92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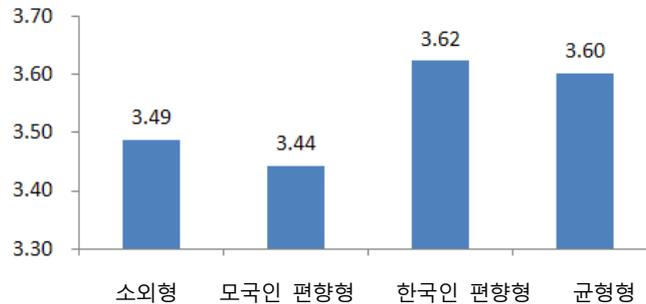
[그림 Ⅲ-24] 사회적 관계 유형별 한국어 능력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 정도는 모국인 편향형 집단(3.68점)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소외형이 낮았으며, 한국인 편향형과 균형형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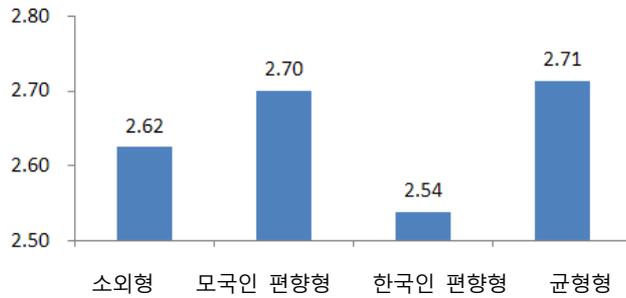
[그림 Ⅲ-25] 사회적 관계 유형별 한국인과의 교류 지지도

사회적 관계 유형별 모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그림 Ⅲ-26]과 같이 나타났다. 소외형(3.49점)과 모국인 편향형(3.44점) 집단이 한국인 편향형(3.62점)과 균형형(3.60점) 집단에 비해 모국인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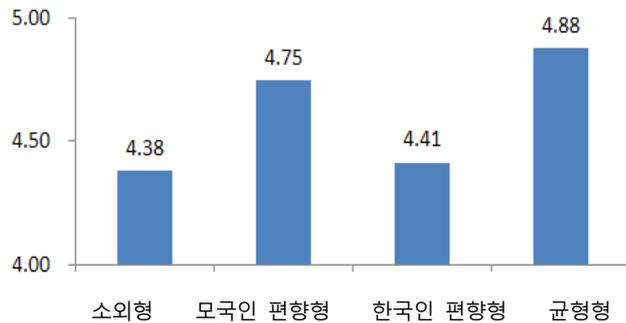
[그림 Ⅲ-26] 사회적 관계 유형별 모국인과의 교류 지지도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라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차별 정도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한국인 편향형 집단(2.54점)이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 집단에 비해 차별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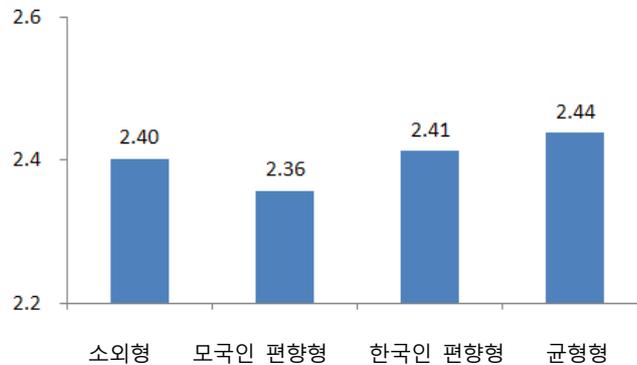
[그림 Ⅲ-27] 사회적 관계 유형별 차별 경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라 지역기관의 교육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균형형 집단(4.88점)의 경우 교육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소외형 집단(4.38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8] 사회적 관계 유형별 지역자원 활용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기관의 이용 빈도에서도 사회적 관계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다. 균형형 집단(2.44점)이 지원기관 이용 빈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모국인 편향형 집단(2.36점)은 가장 낮았다.



[그림 Ⅲ-29] 사회적 관계 유형별 지원기관 이용 빈도

5.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의 관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는 한국사회와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절에서는 사회통합의 지표로 정서적 차원(한국생활만족도), 문화적 차원(문화적 유능감), 그리고 사회적 차원(정기 참여 단체/모임 수)을 설정하고, 사회적 관계 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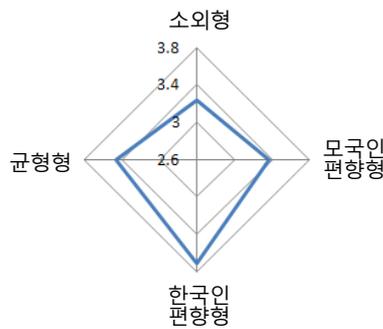
가. 사회적 관계 유형과 한국생활 만족도

<표 Ⅲ-22>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만족도를 결혼생활, 이웃관계, 지역환경, 위치 및 역할, 경제수준으로 측정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웃관계 만족도는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경제수준 만족도는 3.09로 가장 낮았다.

〈표 Ⅲ-2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만족도

(단위: 점)

	평균	표준편차
생활 만족도-결혼생활	3.46	1.108
생활 만족도-이웃관계	3.57	.874
생활 만족도-지역 환경	3.55	1.020
생활 만족도-위치 및 역할	3.51	.993
생활 만족도-경제수준	3.09	1.087
생활 만족도-전체 평균	3.44	.782



[그림 Ⅲ-30] 사회적 관계 유형별 한국생활 만족도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인 편향형의 만족도가 3.71로 가장 높았고, 균형형이 3.47로 그 다음이었으며, 모국인 편향형 3.36, 소외형이 3.24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한국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다른 기타 변수들(인구학적 특성 및 한국생활 경험 등)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월소득이 높을수록 한국생활 만족도는 높았다. 또한 중국(한족)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베트남 출신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변수를 살펴보면,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강할수록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 분석에서는 한국인 편향형 집단이 소외형 집단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표 Ⅲ-23〉 한국생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3.270	.196		3.210	.313		3.058	.322		
연령대	-.125	.058	-.153*	-.164	.054	-.199**	-.154	.054	-.188**	
거주기간	.000	.001	-.008	.001	.001	.051	.000	.001	.032	
국적	베트남	-.221	.107	-.126*	-.138	.100	-.079	-.112	.100	-.063
	필리핀	.113	.119	.056	.260	.110	.128*	.285	.110	.140**
	일본	-.215	.131	-.118	-.199	.122	-.109	-.167	.123	-.092
	캄보디아	-.166	.130	-.074	-.066	.120	-.029	-.060	.120	-.027
학력	.056	.048	.067	.021	.045	.025	.021	.045	.025	
취업상태	취업 중	.090	.084	.059	.082	.078	.054	.076	.077	.050
	과거 취업	-.057	.096	-.031	.018	.089	.010	.023	.088	.013
가정 월소득	.177	.039	.218*	.141	.037	.174***	.140	.037	.172***	
취학자녀 유무	-.038	.085	-.023	-.150	.079	-.0891	-.116	.080	-.069	
한국어 능력				-.030	.047	-.029	-.026	.047	-.025	
차별경험				-.268	.042	-.279***	-.260	.042	-.271***	
한국인 교류 지지				.227	.052	.222***	.226	.051	.220***	
모국인 교류 지지				.065	.049	.066	.060	.049	.061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10	.012	.035	.010	.012	.037	
지원기관 이용 빈도				-.037	.027	-.059	-.037	.027	-.061	
모국인 편향형							.070	.097	.045	
한국인 편향형							.278	.110	.144*	
균형형							.079	.104	.047	
F-value		5.276***			9.380***			8.458***		
R-Square		.118			.271			.285		
Adj R-Square		.096			.243			.251		
R-Square Change		.118***			.153***			.013*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나. 사회적 관계 유형과 문화적 유능감

<표 III-24>에서 볼 수 있듯,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문화적 유능감을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 등 세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먼저, 한국인과의 대화 시 자신감과 관련된 의사소통 유능감의 경우, 한국인 편향형 집단(3.21점)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균형형 집단(3.05점), 모국인 편향형(2.9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외형 집단(2.91점)은 대면 및 소통 유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국생활 적응, 한국 풍습이나 가치관 이해 등에 대한 자신감을 알아보는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의 경우 균형형(3.53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한국인 편향형(3.49점), 모국인 편향형(3.31점), 소외형(3.23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길찾기, 병원, 공공기관 이용 등)에 대한 해결 자신감을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에서는 균형형 집단(3.44점)이 가장 높았고, 모국인 편향형(3.37점), 한국인 편향형(3.25점), 소외형(3.22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균형형과 한국인 편향형이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보다 문화적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소외형은 세 영역 모두에서 가장 낮은 유능감을 보였다. 다음에서는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문화적 유능감의 차이가 다른 변수들(인구통계학적 변수 및 한국생활 경험 변수)을 통제 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24〉 사회적 관계 유형별 문화적 유능감

(단위: 점)

	소외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	전체 평균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2.91 (0.67)	2.99 (0.67)	3.21 (0.61)	3.05 (0.71)	3.04 (0.68)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3.23 (0.65)	3.31 (0.65)	3.49 (0.56)	3.53 (0.62)	3.39 (0.63)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	3.22 (0.76)	3.37 (0.76)	3.25 (0.79)	3.44 (0.74)	3.34 (0.76)

1) 사회적 관계 유형과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

<표 Ⅲ-25>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한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아졌다. 국가별로는, 중국 한족이 다른 국적에 비해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에 비해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았다.

또한, 매개변수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차별받은 경험이 적을수록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 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인 편향형 집단이 소외형 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유능감이 높았다.

〈표 Ⅲ-25〉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740	.165		2.943	.263		2.830	.271		
연령대	-.127	.050	-.169*	-.085	.047	-.113†	-.076	.047	-.102	
거주기간	.005	.001	.401***	.004	.001	.315***	.004	.001	.299***	
응답자 국적	베트남	-.268	.090	-.168**	-.266	.084	-.167**	-.243	.085	-.152**
	필리핀	-.785	.100	-.434***	-.689	.092	-.381***	-.678	.092	-.375***
	일본	-.560	.111	-.340***	-.542	.103	-.329***	-.523	.104	-.318***
	캄보디아	-.290	.109	-.143**	-.300	.101	-.149**	-.287	.101	-.142**
응답자학력	.150	.041	.198***	.119	.038	.158**	.118	.038	.156**	
응답자 취업상태	취업 중	.323	.071	.236***	.270	.066	.197***	.262	.066	.191***
	과거 취업	.112	.081	.069	.104	.075	.064	.104	.075	.064
가정 월소득	-.027	.033	-.037	-.037	.031	-.051	-.039	.031	-.054	
취학자녀 유무	-.041	.071	-.027	-.110	.066	-.072	-.083	.067	-.055	
한국어 능력				.205	.040	.219***	.206	.039	.220***	
차별경험				-.237	.035	-.274***	-.234	.035	-.270***	
한국인 교류 지지				.078	.043	.085†	.077	.043	.083 †	
모국인 교류 지지				-.077	.041	-.088†	-.081	.041	-.091*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02	.010	.010	.003	.010	.011	
지원기관 이용 빈도				-.023	.023	-.041	-.024	.023	-.043	
모국인 편향형							.077	.082	.055	
한국인 편향형							.205	.093	.118*	
균형형							.121	.089	.080	
F-value	11.850***			14.616***			12.757***			
R-Square	.232			.369			.377			
Adj R-Square	.213			.344			.347			
R-Square Change	.232***			.137***			.008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2)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인의 경우, 응답자의 연령과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은 높았다. 국적별로 비교해 보면, 중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필리핀 출신보다는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이 낮았지만, 일본 출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 매개변인을 살펴보면, 한국어 실력이 좋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한국인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강할수록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은 높았다.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 분석에서는 한국인 편향형과 균형형의 경우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이 소외형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준화된 회귀계수(β)에서 볼 수 있듯, 균형형의 사회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이 한국인 편향형보다 다소 높았다.

〈표 Ⅲ-26〉 한국사회 적응 및 문화이해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683	.161		2.023	.262		1.923	.270		
연령대	.085	.048	.126†	.105	.046	.156*	.113	.046	.168*	
거주기간	.003	.001	.227***	.002	.001	.187*	.002	.001	.166*	
응답자 국적	베트남	.055	.087	.038	.104	.084	.072	.133	.084	.092
	필리핀	.225	.096	.136*	.333	.092	.202***	.335	.092	.203***
	일본	-.450	.106	-.302***	-.392	.102	-.264***	-.366	.102	-.246**
	캄보디아	.081	.106	.044	.120	.101	.065	.142	.101	.076
응답자학력	.079	.039	.115*	.043	.038	.062	.038	.037	.056	
응답자 취업상태	취업 중	.096	.068	.077	.062	.065	.050	.053	.065	.042
	과거 취업	.149	.078	.101†	.154	.075	.105*	.151	.074	.103*
가정 월소득	.026	.032	.038	.011	.031	.016	.007	.031	.011	
취학자녀 유무	.034	.069	.025	-.023	.066	-.017	.003	.067	.002	
한국어 능력				.136	.039	.160***	.134	.039	.158***	
차별경험				-.106	.035	-.134**	-.104	.035	-.131**	
한국인 교류 지지				.158	.043	.189***	.156	.043	.186***	
모국인 교류 지지				.004	.041	.005	.000	.041	.000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13	.010	.059	.013	.010	.059	
지원기관 이용 빈도				-.002	.023	-.004	-.003	.023	-.006	
모국인 편향형							.077	.082	.060	
한국인 편향형							.193	.092	.122*	
균형형							.184	.087	.135*	
F-value	6.178***			7.899***			7.114***			
R-Square	.136			.239			.251			
Adj R-Square	.114			.209			.216			
R-Square Change	.136***			.104***			.012†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3) 사회적 관계 유형과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분석결과는 아래 <표 III-27>을 통해 알 수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취학자녀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감은 증가했다. 또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일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문제해결 유능감이 높았다.

매개 변인을 보면,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한국인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강할수록 일상생활의 문제해결 유능감이 증가했다. 또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문제해결 유능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유능감과 달리, 문제해결 유능감에서는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해결 유능감의 경우 사회적 관계 요인보다 인구학적 특성(연령, 학력, 거주기간, 취업경력, 국적)과 매개 변인(한국어 능력, 차별경험, 지역자원 활용도, 가족지지)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27〉 일상생활에서의 문제해결 유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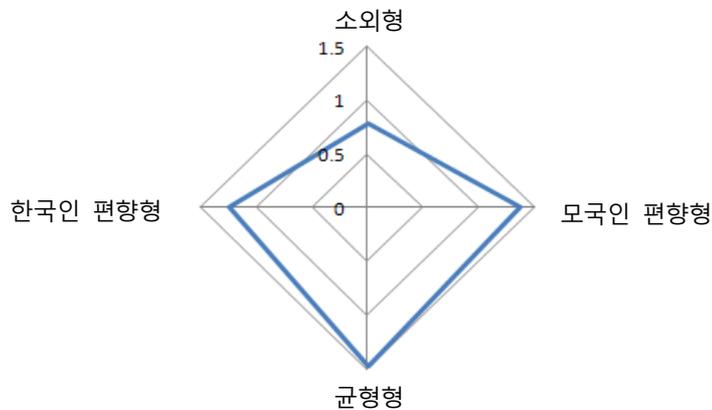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566	.180		1.743	.292		1.769	.303		
연령대	-.084	.054	-.104	-.050	.052	-.063	-.052	.052	-.064	
거주기간	.005	.001	.411***	.005	.001	.354***	.005	.001	.360***	
응답자 국적	베트남	-.097	.098	-.057	-.053	.093	-.031	-.062	.094	-.036
	필리핀	.077	.110	.038	.196	.103	.097†	.193	.104	.096†
	일본	-.260	.120	-.148*	-.159	.114	-.090	-.174	.116	-.099
	캄보디아	-.057	.121	-.025	-.035	.113	-.016	-.039	.114	-.018
응답자 학력	.119	.045	.145**	.073	.042	.090†	.073	.042	.089†	
응답자 취업상태	취업 중	.243	.077	.164***	.181	.073	.122*	.185	.073	.124*
	과거 취업	.224	.088	.128*	.200	.083	.114*	.201	.083	.115*
가정 월소득	.012	.036	.015	-.001	.034	-.001	.000	.035	.000	
취학자녀 유무	.133	.079	.080†	.067	.075	.040	.057	.076	.034	
한국어 능력				.215	.044	.212***	.214	.044	.211***	
차별경험				-.110	.039	-.118**	-.113	.039	-.120**	
한국인 교류 지지				.154	.048	.155***	.156	.048	.156***	
모국인 교류 지지				-.031	.046	-.033	-.030	.046	-.031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020	.012	.076†	.020	.012	.075†	
지원기관 이용 빈도				.033	.026	.055	.033	.026	.055	
모국인 편향형							.001	.091	.001	
한국인 편향형							-.066	.103	-.035	
균형형							-.035	.098	-.021	
F-value	11.613***			12.770***			10.833***			
R-Square	.232			.342			.343			
Adj R-Square	.212			.315			.311			
R-Square Change	.232***			.110***			.001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다.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생활 참여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정기모임의 참여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균형형의 경우 1.5개로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모국인 편향형 1.4개, 한국인 편향형 1.3개 순이었고, 소외형은 0.8개로 가장 작았다. 다시 말해, 소외형 집단이 다른 유형 집단에 비해 사회생활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1] 사회적 관계 유형별 정기 참여 모임의 수

다음에서는 사회생활 참여도가 인구학적 특성 및 기타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사회적 관계 유형별로 여전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Ⅲ-28>에 나와 있다.

먼저, 사회 인구학적 변수를 살펴보면, 거주기간이 길수록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는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한족에 비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출신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일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정기 모임 수가 더 많았다. 매개 변인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제공한 교육 및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정기참여 모임 수는 크게 증가했다.

한편, 사회적 관계 유형별 분석에서는 소외형 집단에 비해 다른 사회적

관계 유형의 정기참여 모임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β)를 비교해보면, 균형형 집단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한국인 편향형, 모국인 편향형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인구학적 특성 및 한국생활 경험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하고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은 사회생활 참여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표 Ⅲ-28〉 사회생활 참여도에 대한 회귀분석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438	.293		.014	.492		-.300	.505		
연령대	-.102	.087	-.081	-.059	.085	-.047	-.037	.085	-.029	
거주기간	.007	.002	.338***	.007	.002	.339***	.007	.002	.313***	
응답자 국적	베트남	.028	.160	.010	.122	.157	.045	.185	.157	.068
	필리핀	.588	.177	.190***	.619	.172	.200***	.628	.172	.203***
	일본	.235	.195	.084	.393	.191	.140*	.425	.191	.152*
	캄보디아	.526	.195	.152**	.506	.189	.146**	.556	.188	.161**
응답자학력	.093	.072	.072	.043	.070	.033	.033	.070	.026	
응답자 취업상태	취업 중	-.026	.125	-.011	-.134	.122	-.057	-.152	.121	-.065
	과거 취업	.303	.143	.109*	.205	.140	.074	.202	.139	.073
가정 월소득	-.004	.059	-.003	.036	.058	.029	.028	.057	.022	
취학자녀 유무	-.105	.126	-.041	-.167	.124	-.065	-.110	.125	-.043	
한국어능력				.046	.074	.029	.046	.073	.029	
차별경험				.005	.065	.003	.006	.065	.004	
한국인 교류 지지				-.060	.081	-.038	-.059	.081	-.038	
모국인 교류 지지				-.023	.077	-.015	-.029	.076	-.019	
교육및 서비스 수혜도				.113	.019	.270***	.111	.019	.266***	
지원기관 이용 빈도				.034	.043	.036	.032	.043	.034	
모국인 편향형							.311	.152	.130*	
한국인 편향형							.470	.173	.158**	
균형형							.442	.163	.172**	
F-value	7.473***			7.762***			7.157***			
R-Square	.158			.234			.251			
Adj R-Square	.137			.204			.216			
R-Square Change	.158***			.076***			.016*			

† p<.10, * p<.05, ** p<.01, *** p<.001

국적: 중국(한족)기준, 취업상태: 취업경험 전무 기준, 연결망 유형: 소외형 기준

6. 소결 :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형성하는 제반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조사 대상인 여성결혼이민자를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관계 비율에 따라 소외형, 한국인 편향형, 모국인 편향형, 균형형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으며, 이들 유형이 사회통합의 수준과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 분석했다. 특히, 여기서는 사회적 관계의 지지효과를 단일하게 밝히는 기존 연구방식에서 벗어나 관계 유형별 차별화된 효과에 초점을 맞췄으며, 사회통합의 수준도 정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 연결망 크기가 결혼이주 이전에 비해 감소했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가족의 비중은 줄고, 친구 비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사회 관계망 크기는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가장 의존하는 사회적 자원은 모국인 친구이고, 그 다음은 남편 가족이었는데 이는 모국인 친구와 남편 가족이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통합에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은 인구학적 변수(거주기간, 연령, 학력, 소득 수준 등)와 매개 변수(한국어 실력, 차별경험, 가족의 지지, 자원활용도 및 서비스 기관 이용 빈도)를 통제한 후에도, 사회통합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한국인 편향형은 사회통합의 세 측면 모두에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편향형은 소외형에 비해 한국생활 만족도가 높았으며, 문화적 유능감(의사소통 유능감, 한국사회 적응·문화이해 유능감)과 사회활동 참여도(정기 참여 단체·모임 수) 역시 높았다. 균형형은 소외형에 비해 한국사회 적응·문화이해 유능감과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미세하나마 한국인 편향형보다 높았다. 모국인 편향형은 사회활동 참여도의 경우만 소외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해 몇 가지 점

을 시사한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모국인 편향형(37.3%)이 사회통합 측면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보다 모국인 친구를 더 가깝게 여기는 성향이 강하지만(양옥경 외 2007; 이용균 2007; 김영란 2007), 이들과의 관계는 한국 생활 만족도나 통합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인 이주자들과만 관계를 맺을 경우, 사회 연결망을 확대하기 어렵거나 이들 사이에서 긴장감을 경험할 수 있는데(이민아 2010), 본 연구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가 사회적 관계의 크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한계가 있지만, 모국인과의 사회적 관계가 사회통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만큼 크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가장 의존하는 사회자원이 모국인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국사회 적응이나 유능감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서 모국인들 상호간의 관계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하여는 심층 면담 등 질적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인 편향형이 한국 생활만족도나 문화유능감, 사회적응 능력, 사회생활 참여도 등 여러 분야에서 높게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인 Berry(1977)의 이민자 연구에서는 출신국 및 이주국 주민과 골고루 관계를 맺는 균형형이 통합에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편향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사회통합에 가장 긍정적인 유형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이 여성결혼이민자이며,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관계가 가족단위의 이주자들과는 달리, 남편 가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관계 구성중 남편 가족 비중이 채 1명도 되지 못한 모국인 편향형 집단의 한국생활 만족도가 소외형과 더불어 가장 낮게 나온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 가족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질적으로 제고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셋째, 균형형과 사회적 참여도간의 강한 관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기 모임 수로 측정한 사회활동 참여도에서는 균형형이 다른 유형보다 유

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형은 모국인과의 관계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한국인과의 가교적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정기 모임이나 단체 참여도가 가장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자원과 정보원을 풍부히 지닐 수 있는 집단임을 의미한다.

사회활동 참여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의 능동적 참여 주체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 친목단체나 동호회, 종교활동, 학부모 모임을 제외하곤, 사회활동 참여도가 낮았으나, 다양한 모임에 대한 향후 참여의사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언어 문제나 한국내 사회적 관계가 적어 소외형이 되기 쉬운 초기 여성결혼이민자(특히 베트남, 캄보디아)의 경우 다양한 모임을 활용한 사회적 관계 확장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과 통합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통합 변인군인 한국생활 만족도, 문화적 유능감, 사회활동 참여도 등에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회의 차별경험(부적 관계), 그리고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 지지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능력이 좋을수록, 한국사회에서 차별 경험이 적을수록, 그리고 한국인과의 만남에 대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이들의 한국생활 만족도도 높았으며, 의사소통 및 문화이해 유능감, 문제해결 유능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한국인과의 교류에 대한 가족의 지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자 상당수는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국인 친구보다는 한국인과의 관계형성에 더 강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즉, 절반 정도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인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특히 모국인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 출신 응답자의 경우 한국인 친구나 이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했다. 이러한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 점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시에, 지역사회복지관, 이주여성 상담소,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등 지역사회기관은 각종 교육 및 행사프로그램이 한국인과 이주자들 간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정부가 그동안 많은 재정을 투입해 이들에게 공급해온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기대만큼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각종 이민자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빈도나 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한국생활만족도나 문화유능감 등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주로 초기 이주자들을 겨냥해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있는 한계가 있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은 적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연계성도 대부분 떨어지게 된다. 회귀분석에서 교육 및 서비스 수혜경험이 이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상관관계가 나타난 점은 일정부분 긍정적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다 내실화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의 역할을 강화해 이들의 사회통합에 유용한 내용과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일을 해보았거나 현재 일을 하는 여성들은 일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의사소통이나 문화이해 유능감, 문제해결 유능감이 높으며, 사회생활 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과 일본 출신의 경우 일자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들의 정기모임 참여도 역시 높았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은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



1. 인터뷰 개요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개별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분석하며 사회적 관계 유형과 사회통합의 연관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인터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구체적 경험 속에서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를 포착하고 관계 발달, 변화의 계기와 과정, 관계 형성의 증진 요인 및 장애 요인 등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민자에게 주는 의미,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휘하는 기능에도 접근하고자 하였다.

가. 인터뷰 대상

인터뷰는 서울, 대구, 충북, 충남, 경남, 경북 등지에 거주하는 총 24명의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 대상자는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 가급적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기관을 포함해 각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관, 관련 연구자 등을 통해 추천을 받고 가능한 경우 사전 전화 통화를 통해 사회적 관계의 전반적 상황을 파악한 후 대상으로 선정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적은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중국, 태국으로 총 7개국이었다. 베트남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설문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태국, 우즈베키스탄 출신도 각각 1명이었다.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16년까지 다양하다. 설문조사는 5개 국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한국생활 기간도 2년 이상 된 이들로 한정하여 진행되어 그 이외 국적 출신이나 한국생활 초기에 있는 이들은 제외되었다. 이에 비해, 인터뷰에서는 대상자의 국적이나 한국생활기간 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일차적인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또한 이주 초기부터 한국생활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사회적 관계의 변화 경험을 인터뷰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생활 초기 단계를 포함하지 못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로를 보면, 비교적 초기에 이주한 이들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통한 결혼이나 연애결혼, 지인 소개가 많았고 비교적 최근에 이주한 이들은 결혼중개회사를 통한 결혼이 대부분이다. 지인 소개 중 대부분은 먼저 한국인과 결혼해 이주해온 친구나 친척이 소개한 경우이다.

인터뷰 응답자 24명 중에는 이혼, 사별 등으로 한국인 남편과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험을 갖고 있는 이가 모두 5명에 이른다. 이혼을 한 경우는 모두 3명으로 이 중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대상자 1명은 현재 재혼한 상태이다. 나머지 2명은 전남편과의 사이에 아이를 1명씩 두었고 이혼 후에는 본인이 키우는 경우와 남편이 키우는 경우가 각각 있다. 남편이 사망한 경우는 모두 2명으로 두 경우 모두 최근에 질병으로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재혼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뷰 대상자 중 이혼, 사별을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혼, 사별이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현재 배우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대부분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자녀이며, 남편이 재혼을 한 3 사례 중 1 사례는 전처소생 아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 자녀의 연령대는 최소 10개월에서부터 최대 15세에 달한다.

이들의 가족 구성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핵가족 이외의 가족과 동거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결혼 초기에 시부모, 시누이 등 시댁식구와 동거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9명이며, 현재에도 시댁 식구와 동거하는 사람 또한 5명에 이른다. 이밖에 출신국가에서 친정어머니 또는 친정아버지가 방문해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례도 7명에 이르며 이 중 4명은 현재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뷰 대상자의 직업을 보면 현재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8명이며 그 외에는 인터뷰 당시 직업을 갖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신국의 언어자원을 활용하여 과외 교습이나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로 활동하는 경우가 7명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 밖에 농사를 짓거나 공장이나 식

당 등에서 일하는 경우도 일부 있다. 출신국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일본어나 영어 등 수요가 높은 언어의 경우 과외 교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수언어권 출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 이중언어강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적 사항

사례 번호	지역	출신국	혼인시기/ 현재혼인상태	혼인경로	거주기간	연령		직업		가족구성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현재 동거	이전 동거
1	충청북도 A시	일본	13년	통일교	13년	46	48	일본어 과외교습	정기직 직업 없음	남편, 아들(1초3), 딸(1초5)	시부모, 시동생2, 조카
2	충청북도 A시	베트남	10년	94년도 연수생시절 남편과 만났고 99년 결혼	10년	53	55	주부	농사	시아머니, 남편, 아들(1초4)	-
3	충청남도 B시	캄보디아	6년	결혼중개회사	6년	31	45	연탄 배달	택시운전 (연탄배달)	시부모, 남편, 딸(6세), 아들(4세)	-
4	충청남도 B시	필리핀	5년	사촌언니 소개	5년	28	45	다문화센터통번 역사	회사원(아이스 크림 공장)	남편, 아들(4세)	시아머니
5	충청남도 B시	우즈베키 스탄 (고려인)	5년 (4년 전 이혼)	남편이 사업자 우즈베크문서 만남	8년	32	-	통역 및 일용직(공장, 청소, 하우스 등)	-	딸(1초1)	남편(이혼), 전처소생 딸(11세), 아들(6세)
6	충청남도 B시	베트남	8년	-	7년	35	45	다문화센터 이중언어강사	회사원	시아버지, 남편, 아들(1초1), 딸1	시부모
7	경상남도 C시	중국	3년	친구 소개	3년	29	41	주부	레미콘기사	남편, 딸(3세)	-
8	경상남도 C시	중국	3년	결혼중개회사	3년	33	47	주부	회사원	남편, 딸(4세)	-
9	경상남도 C시	베트남	13년	연애결혼	13년	42	44	다문화센터 방문지도사	기계제작	남편, 아들(2초3, 초5)	시부모

IV.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역동성 ●● 115

사례 번호	지역	출신국	혼인시기/ 현재혼인상태	혼인경로	거주기간	연령		직업			가족구성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현재 동거	이전 동거	
10	경상남도 C시	베트남	5년 (1년 전 이혼)	결혼중개회사	6년	29	49	자동차부품공장	건설현장일용 근로자	이혼 후 혼자 생활	남편, 딸(6세)	
11	경상북도 D군	베트남	2년	남편 동생의 소개	2년	28	47	주부	농사/회사원	남편, 전처소생아들(18 세), 딸(20개월)	-	
12	경상북도 D군	베트남	8년	지인 소개	8년	30	44	주부	포크레인기사	남편, 아들(6세, 7세)	-	
13	경상북도 D군	베트남	8년	결혼중개회사	7년	26	33	농사	농사	남편, 친정아버지, 아들(7세)	시부모, 시누이	
14	충청북도 E군	필리핀	1년	결혼중개회사	1년	23	44	주부	포크레인 기사	남편, 임신 9개월	시아머니	
15	충청북도 E군	중국	4년	지인 소개	4년	29	41	휴게소 스낵 코너직원	덤프트럭 운전	남편, 딸(3세-19개월)	시아머니 이웃에 거주	
16	충청북도 E군	베트남	8년	결혼중개회사	8년	28	42	농사	농사	남편, 딸(5세, 초1), 아들(10개월), 친정어머니	시부모 같은 마을 거주	
17	충청북도 E군	베트남	3년 (1년 전 사별)	결혼중개회사	3년	28	52 (사망)	식당 서빙	-	시아머니, 딸(2세)	남편(2010년 사망)	
18	충청남도 F군	일본	16년	통일교	16년	46	50	일본어강사/다문 화강사	회사원	남편, 딸(중2), 아들(초4)	-	
19	충청남도 F군	필리핀	11년 (올해 사별)	통일교	10년	37	48 (사망)	자동차부품공장	-	아들(11세) 딸(9세)	-	

116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사례 번호	지역	출신국	혼인시기/ 현재혼인상태	혼인경로	거주기간	연령		직업			가족구성	
						본인	배우자	본인	배우자	현재 동거	이전 동거	
20	경상북도 G시	필리핀	11년	통일교	11년	39	40	영어강사 (지역아동센터나 과외 등)	회사원	시아머니, 남편, 아들(11세), 딸1(9세)	-	
21	경상북도 G시	중국	재혼(2년) (3년 전 이혼)	초혼: 결혼중개회사 /재혼:단골식당 사장님소개	5년	38	37	주부	일주일~2회 주방일	친정부모, 남편	(이전 결혼- 전남편, 시부모)	
22	서울시	태국	12년	통일교	12년	41	47	이중언어강사	철도공사	남편, 아들(초5, 초3)	-	
23	F 광역시	중국	8년	중국 같은 고향 출신 지인의 소개	8년	31	43	주부	아파트 관리실 직원	남편, 딸(8세, 7세)	시부모와 초기 1달 거주	
24	F 광역시	베트남	4년	친인니(결혼으로 먼저 한국에 이주) 소개	4년	24	38	병원 총무과 (통역 및 직원 관리)	안경 디자이너	남편, 딸(3세), 친정어머니	시아머니	

나. 인터뷰 내용

인터뷰에서는 이주와 한국사회 생활 과정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둘러싼 대상자의 구체적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변화와 한국생활 초기 관계의 양상, 현재의 사회적 관계의 양상, 사회적 관계의 발전 및 장애 요인 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인터뷰 진행 시 체크리스트를 통해 기본 사항을 파악하였고,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인터뷰 질문은 별첨 참조)

□ 기본사항

인터뷰 대상자의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출신국적, 나이, 직업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결혼 및 가족관계에 대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결혼으로 이주한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와 가족갈등 경험, 현재의 가족관계, 한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친족원 등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 사회적 관계의 변화 양상

이주에 따라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에 이주한 초기의 관계와 현재의 사회적 관계 모두를 살펴보고 초기와 비교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상을 돌아보도록 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한국 생활 초기에 가족,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등이 있으며 응답자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답하게 함으로서 구조화된 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말로서 사회적 관계를 조명하게 하였다. 또한 한국에 이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 초기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 사회적 관계의 현황

인터뷰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의 현황과 관계 형성 계기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한국생활 초기와 비교함으로써 그 동안의 관계 양상의 변화

를 반추하도록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이외 대상을 중심으로 모국 출신자, 모국 출신 이외 기타 국가 출신 이주여성, 한국인 친구로 나누어 관계 형성의 목적이나 양상, 각 대상별로 관계가 주는 의미 등을 살펴봄으로서 각각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영역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하는지 분석하였다.

□ 사회적 관계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한국 생활에서 직면했던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형성하고 있는 사회적 자원이 기능하고 있는 바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우선 대상자별로 생활과정 중에 주위의 도움이 특별히 필요한 적이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한 후에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자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했는지, 주로 어떠한 이들이 어떤 면에서 도움을 주었는지 등을 질문하였다. 개중에는 스스로 해당 경험을 떠올리지 못할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아플 때나 출산 등의 긴급상황, 가족 간의 갈등 상황, 자녀 양육이나 귀화 등 정보가 필요한 상황, 기타 일상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 등 일반적으로 주위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을 준비해 해당 상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묻고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위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이어서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사회적 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봄으로써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자원으로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사회적 관계의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위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경우에 도움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 사회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요구와 장애요인

현재의 사회적 관계의 양이나 관계 유형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향후의 관계 발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또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가 저해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관계형성을 위해 노

력했으나 실패했던 경험과 요인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 유형별 핵심 질문

본 연구에서는 이민자가 지니는 사회적 관계의 자원, 즉 모국인 관계와 한국인 관계라는 두 축간의 조합을 토대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유형을 사회적 소외 유형, 모국인 편향형, 한국인 편향형, 균형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각각의 유형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의 방향도 다르고 관계 형성과 관련된 실제 경험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인터뷰에서도 공통적 질문과 함께 각각의 유형에 적합한 질문을 준비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국인 편향적이거나 한국인 편향적인 경우에는 편향적 관계 형성 이유나 이외의 대상자와의 관계에 대한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 관계가 거의 발달하지 않은 소외형의 경우에는 관계가 발달하지 않은 이유와 관계 미발달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에 접근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균형적 관계 형성 유형의 경우에는 균형적 관계 형성의 계기와 균형적 관계가 가져다주는 장점에 초점을 두었다.

물론 다분히 모순적이고 가변적인 인간의 실제 경험을 총체적으로 포착하는 인터뷰 방법의 특성상 실제 개인을 특정한 유형에 배타적으로 소속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즉, 요구에 있어서는 균형형을 지향하지만 실제 관계는 모국인 편향형의 성격이 강한 이들과 같이 여러 유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거나 한국생활 초기에는 고립에 가까우리만큼 심각한 소외 상태에 있다가 점차 모국인 편향형의 모습을 띠어가고 있는 이들처럼 생활과정 중에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 하에 실제 인터뷰에서는 대상자별로 어느 한 유형과 관련된 질문만 하기 보다는 관계 유형과 관련된 요구와 현실의 모순, 관계 유형의 변화 경험 등도 함께 포착할 수 있는 질문도 포함하였다.

2. 이주와 사회적 관계의 공백 경험

가. 한국생활 초기의 사회적 관계 공백

이주와 함께 당사자들은 자신이 그간 쌓아온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생활의 전 부분이 크게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인터뷰 대상이 된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소위 ‘탈구적 상황’으로 개념화되는 이러한 경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이들의 한국생활 초기 경험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왔던 가족과 친구들이 주위에 없으며 심지어 자신과 말이 통하는 이들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집에서 혼자’ 살아야 했던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사례 4) (처음 와서는) 많이 힘들죠. 조울증도 약간 생겼어요. 왜냐면 집에만 있고. 동네 아줌마들 막.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도.³⁾

(사례 7) (한국에는 알고 있던 사람) 없었어요. 외로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국말 못해요. 제가 왔을 때 그 때, 다문화가족센터 방학이 하는데.. 그래서 아는 친구 별로.. 그 때 외로웠어요. 그 때 힘들었어요.

(사례 8) 중국에 있을 때 친구 많이 있어요. 학교 같이 다닌 친구들, 일 같이 한 친구들 다 있어요. ... 친척 너무 많아요. 우리 외할머니, 일곱 자녀 있어요. ... 처음에 와서 중국에서는 28년을 살았어요. ... 그냥 집에서 중국드라마 해주잖아요. 하루 종일 중국 드라마 보고, 새로 하는 드라마도 아니고 중국에서도 10년 20년 전에 봤던 거.. 오래 됐어요. 한국 드라마 하나도 못 봐요. 할 수 없지, 뭐. 중국말 들으니까요. 그렇게 지냈어요. 진짜 외로웠어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맨날 집에서 중국 드라마만 보고, 멀리 가면 또 안 돼요. 만약 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그냥 신랑 올 때 까지 너무 심심해요. 외로웠어요. ... (그때는 중국사람들이 이 지역에) 있어도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면 누구 중국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양산 다문화센터 신청했었는데, 방학이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맨날맨날 그냥 신랑한테 “비행기표 사주세요. 내가 중국으로 떠나가야 해요. 여기서 못 살아요.” ... 중국 사람

3) 인터뷰는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한국어로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고 통역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의 출신언어로 진행되기도 했다. 통역을 통해 진행된 경우에도 일부는 대상자의 의도에 따라 한국어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통역이 개입된 경우에는 그 존재를 표기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나 통역자의 표현을 가급적 살려 표기하였으나, 발음에 있어 한국어로 표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 때 한국 와서 한 달 넘었어요. 그냥 맨날맨날 지겨웠어요. 우리 신랑이랑 중국에 있을 때는 무슨 병이 있어요. 병 없어요. 너무너무 건강해요. 맨날 맨날 한국에 있으니까 지루해요. 신랑이 병원에 가보라고. ... 맨날맨날 친구 없어요. 맨날맨날 혼자 집에 있어요. 말 통하는 사람 없어서 진짜 우울증 걸린 것 같아요.

한국생활 초기에 기존의 사회적 관계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고 새로운 관계망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로움을 겪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공통적 경험이지만, 이주의 환경이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정도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위에 자신과 말이 통하는 동향출신이나 같은 언어권 출신이 없는 경우 어려움은 더욱 크다. 결혼중개업체나 종교기관 등을 통해 동일 국가 출신이 같은 지역으로 함께 이주해온 경우는 이러한 가능성이 비교적 적지만, 초기에 이주해온 여성들, 단독으로 결혼해온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공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사례 13) 한국에 온 건 2004년 5월 쯤이에요. ... 한 2007년쯤 친구가 생겼어요. 한국 처음 왔을 때 혼자요. 힘들고 외롭고요. ...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한국말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계속 집 안에만 있어요. *(첫째 아이)이 낳을 때까지 계속 집에 있어요. 임신하는 동안 집안에 계속 있어요. (Q: 힘들고 그랬던 점이 많았을 텐데.. 그런 점은 주로 누구랑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런 거 못했어요. 한국말도 모르잖아요. 베트남 친구들도 그 때는 없었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매일 혼자.. 얘기할 사람 없어요.

이밖에 가족관계도 한국생활 초기에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남편과 단둘이 핵가족을 이룬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사회적 관계의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이에 더해 결혼 초기에 임신과 출산 경험을 하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제약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가 더욱 제약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낯선 환경에 대한 기본적 적응과 함께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어머니 역할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모두 다 ‘혼자’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된다.

(사례 9) 다른 사람 옆에 산모는 가족들이 너무 많이 와 있고, 저는 혼자 있었어요. 제가 생각났어요. 옆에 친구가 없네, 가족은 한 명도 없네. 어떻게 하나.. 제가 또.. 우울증이 약

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 애 왜 이러냐고. (베트남에서 나중에 돌아온 남편이) 깜짝 놀랐거든요, 도대체 못 보겠다. ...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스트레스 푸는 건 혼자 풀어야 해요.

(사례 10) 베트남 떨어질 때부터, 비행기 탈 때부터. 이제 한국에 가면 아무도 다 혼자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혼자서 다 알아서 해야겠네.. 그런 거... 한국에 와서는 그냥.. 처음에는 많이 외롭고.. 그런 거.. 그래서 뭐.. 가족도 보고 싶고, 그렇다고 지금 혼자니까.. 외롭고 ..되게 많이 힘들 때는.. 되게 많이 힘들 때는.. 애기 때문이에요. 애기 낳고 그리고 애기가 아플 때. 저희가 진짜로 힘들었어요.(Q: 그렇게 힘들 때 도와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지금은 이혼한 남편은) 안 도와주죠. 그 남편 가족은 다.. 바쁜 사람이라서.. 그래서 신경을 못 쓴 거 같아요. ... 되게 힘들었죠. 애기 낳을 때도 그렇고.. 첫 아이잖아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 사회적 관계 미발달의 지속

이처럼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초기 일정기간 동안 별다른 사회적 관계없이 ‘혼자 지내면서’ 외로움과 우울감 등에 시달린 경험을 지니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모국인이나 가족원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점차 관계망을 발전시켜 나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생활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편이나 시댁식구 외에는 관계망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이들도 없지 않다. 심지어 모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외에는 마땅한 이야기상대 조차 없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사례 11) (통역) (Q: 한국말도 지금 잘 안 되시고. 누구랑 주로 이야기 하셨어요?) 남편 빼고 는 없답니다. 가끔 인터넷이랑 베트남에서 채팅하십니다. 낮에는 남편 분 일하러 나가시고 자기가 하루 종일 혼자 있을 때 외롭고... 동네 사람은 그냥 뭐 인사 정도 하시고 알고 지내는 사람은 없답니다. 거의 다 노인 분들이라고. 앞에는 베트남 여성분 한 분 계신다는데... 나이가 40대 정도 되시고요. 서로 친구는 아니고 인사 정도만. 그분이 또 농사 짓는다고 바쁘시다고. 연락도 안하시고요. (Q: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가신 적이?) 간적이 없다고. (Q: 베트남 친구분들은 혹시 계신지?) 남편 분 통해서 몇 명 정도 만났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연락도 안 하시고 그랬답니다. 딱 한번 만나시고. ... 친구랑 통화하면 좀 그렇고.. 만나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를 한국에서 혼자 타본 적이 없고.. 겁도 나고 그러니까. 애기 때문에도 시간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됐답니다.(Q: 베트남 출신 분들 이외에 다른 나라 분들이랑도 전혀 교류가 없으신가요?) 없답니다. (Q: 혹시 한국인 분들 중에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 있으

신지?) 없답니다. ... 자기도 심심하고 외롭고 그러는데 다 안 되니까 답답하고 그러
신답니다. ... 집 전화 있어요. 전화오면 안 받으시고 누구인지 모르니까. 말이 안 통
하는데.. ... 자주 외롭다고 느껴지고 혼자서도 울었습니다.

(사례 21) (통역) 주위에 아는 사람, 중국사람들 있어도 자기 사는 거 바쁘고 자기가 일 있으면
찾아오고 아니면 연락도 안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다 만나지 않고 맨날 집에 있고,
... 이웃집 아무도 모르는데요. 한국사람들 아는 사람들 아무도 없대요.

이처럼 한국생활기간이 상당 기간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가 거의 공백 상태에 있는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적으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과의 물리적 접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여성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대해 명백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관계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 이외에 이상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여성들 역시 사회적 관계가 크게 제약되는 양상을 보인다.

다. 위기 상황에서의 지지망 기능 한계

별 다른 사회적 관계 없이 ‘혼자 지내야 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극도의 외로움과 답답함, 우울감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나 정보, 물질적 도움 등에 접근하지 못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사례 17) (Q: 사별이후 국적문제 때문에 고민인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물어볼 사람 없어요.
... 그냥 집에 얘기 키우느라 힘들었지. 사는데 힘들었지. 나도 아직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살지 너무 어려워서. ... 우리집에 편지와도 읽기는 읽는데, 무슨 내
용인지 이해도 다 못해요. ... 국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친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 가족폭력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위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이들은 국경 밖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쉼터 등 공식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혼자 참는 것’ 밖에 별 다른 방도가 없다.

(사례 10) (이혼한) 남편은 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술을 되게 많이 먹어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가니까.. (Q: 술 먹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 도움을 청할 때가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Q: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참고 살았죠. 동서한테 이야기해도.. 전화해도.. 도와주는 거 없잖아요. 동서 남편.. 남편의 동생이잖아요.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런데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요, ... (결국) 남편이 저에게 폭력을 썼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센터에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쉼터 있죠. 거기다 맡겨주고. 그리고 뭐 이혼하게 됐어요.

(사례 21) (통역) 남자는 일을 해야 한다고. 이혼하게 된 게, 남편이 나가서 돈은 안 벌면서 부인이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부인 회사 가서 부인 사직시키고. 집에서도 일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 있으면서 애만 낳으라고 해서 도저히 못 살겠어서. 전 남편은 한 시간 정도 목을 졸라서, 한 시간 숨이 다 넘어가도록. 한 시간도 넘게. 옆에 사람도 없이. ... (Q: 혹시 주위에서 도와준 사람은 없었어요?) 그 때는 촌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3명이 있잖아요. 9월 달에 오고, 11월 달에 오고. 비슷할 때 온 사람들. 말을 조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학교가 있었는데, 남편이 중국 친구도, 한국 친구도 못 나가게 해서 나가지도 못 하게 했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못 만나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고. 동네가 산골이니까 주위가 다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에 가서 운다고.

3. 모국인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물꼬 트기’

가. 모국인 관계 형성 계기

적어도 가족원들과는 종족적,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가족단위 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들은 자신과 여러모로 ‘다른’ 주류사회 성원들과 일상을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이들에게 모국인과의 관계는 가족들과도 공유할 수 없는 개인적 차원의 다양한 경험에 있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국생활 초기에 언어 소통 등으로 인해 기본적 생활도 어려운 이들에게는 모국어가 통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인터뷰 대상자 중에는 한국에 자신의 모국 친척이 사는 이들이 적지 않으

며, 개중에는 생활 반경 내에 모국 친척이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한국생활 초기에 한 집에 사는 한국인 가족들보다 오히려 이들과 ‘함께 생활’했다고 할 정도로 극소수의 모국 친척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기도 한다.

(사례 6) 처음 왔을 때 베트남 사람... 저 사촌언니 있는데요. 언니밖에 없었어요. 언니만 친하지... 언니는 오래 살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 (Q: 처음에 그 언니 도움을 많이 받았겠네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애기 낳을 때도 내 옆에 있었고.. 모르는 거 다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왔죠.

(사례 8) (한국인과 결혼한 이모랑) 우리 같은 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 처음에 우리 신랑 (직장이) 이모 집에 근처에 있어요.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 내가 이모집에서 보내고, 신랑이 저녁에 퇴근할 때 이모집에서 나 데리고 가요. 만약에 이모 통화 안하면 통화할 사람도 없어요. 중국말은 못 쓰고, 한국말은 못하잖아요. 중국말은 못 써요.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이주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공백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는 모국인 친구나 언어권이 같은 이들과 본격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부터이다. 여성결혼이민자 중에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모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들도 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같이 결혼하고 비자 발급 기간 동안 합숙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후 같은 지역으로 온 함께 온 경우도 있으며 ‘축복 결혼’을 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종교기관이 한국으로 결혼 이주할 모국 여성들과의 관계 형성 계기를 제공한다. 이처럼 한국 입국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모국 여성들과의 관계는 한국생활 중에도 결혼중개업체나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사례 3) 같이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서.. 같이 거기(회사) 가면 만나요. 처음에 와서 같이 모임도 하고요. 한 달 한번씩이요. 센터 와서 친구들 많아요.

(사례 1) (처음에 남편을) 교회에서 해주시고.. 그랬어요. ... (축복결혼) 그렇게요. 지금도 일요일마다 가고요. ... (Q: 거기 가면 그.. 일본 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많이 계셔서 40명-5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 아파트에서도 5명 정도 있거든요.

(사례 22) 태국에서부터 알고 있던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 있죠. 나중에 오거나 아니면 먼저 온 사람 있어요. 태국에서 같은 교회 다녔던 사람 있었어요. 선배 가정이나 아니면 후배여서. 같은 교회 단체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있어요. 친척 아니고. ... 그 사람들이 태국에 있을 때 같은 교회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성결혼이민자 상당수는 한국생활 중에도 직접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모국출신자들을 이주 이전에는 알고 있지 못했다. 이들은 여성결혼이민자나 이주민 일반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 등에 참여하면서 동향 출신이나 언어 소통이 가능한 이들을 사귀고 점차 또 다른 동향 출신으로 관계의 대상을 넓혀가게 된다.

(사례 10) 힘들 때 이야기하는 사람은 베트남 사람, 베트남 친구가 1명 있어요. 지금도 친해요.
... 센터에서 같이 한국말 공부하러 다녔잖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사례 8) 만약에 여기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공부 안 하면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길에서 가다가 누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말 할 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요. 그냥 모르잖아요.

이처럼 결혼중개업체, 종교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게 된 모국인 가운데 일부가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핵심으로서 사적인 친밀성의 대상이자 일상의 일부를 구성하게 된다.

(사례 1) 제가 제일 친한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같은동에 살고, 제가 맨날맨날 전화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자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 맨날 맨날 저도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맨날 전화하고, 같이 어디든 쇼핑하러 나가자고 하고 커피도 마시자고 해서 가서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례 8) 우리 너무 가깝잖아요. 하루 이틀 자주 만나요. 마트 혼자 가기 심심하잖아요. 시장가서 신발 사려고 친구들이 이럴 때 조언해줘요.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렇게. 가끔씩 같이 중국 음식도 만들고, 만두 만들고 같이 먹어요. 중국 샤브샤브도 만들고, 중국 전도 만들고, 한국 파전인데 다른 거. ... 수다도 하고 잠깐 봄나들이 가기도 하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 형성된 여성결혼이민자의 동향 출신 네트워크는 정기적 모임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일부는 간부와 회원을 두고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조직과 같은 면모를 띠기도 한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모임이 점차 이주 목적과 관계없이 동향출신 이주민 전반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발전하여 출신 국가의 주요 행사나 대사관 행사 등에서 활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축복결혼’을 통해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밖에 온라인을 통한 동향출신자들의 사이버 네트워크와 연결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사례 6) 5-7명.. 성격도 괜찮고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 만났어요. 여러 가지 얘기 듣고, 남편 하고랑도 같이 모여서..남편이랑 같이, 바쁘면 우리끼리만 같이 한 달에 한 번. 베트남 음식 해 먹고 얘기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사례 22) (Q: 교회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사람들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세요?) 네네 만나요. 모임도 갖고 그래요. (Q: 정기적으로 만나세요?)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있어요. (Q: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그냥 우리 식구 태국 사람 관리하는 데.. 우리 그냥 대표로 서울에서 소식 전해주고, 관리하고 그래요. (Q: 교회모임이에요?) 네, 교회에서. 같은 교회인데, 근데 여러 군데 있잖아요. 우리 태국 사람들끼리만, 같은 태국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모여서 얘기도 나눠주고. 소식도 나눠주고. 무슨 활동 하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 어디가 무슨 활동을 하면 얘기도 하고. 뭐 하는 거 있어요. 근처에서. ... 모여서 같이 잘 지내는지 안부도 묻고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 태국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태국 식구. 같은 교회. ... 행사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무슨 새해 행사 있을 때 모여서 하거나. 태국 왕 생신 행사 있다고 해서 대사관에서 행사 만드는데 모이거나. 한번 태국 공주 오셨는데, 거기 가서 공주 마중 나갈 때도 있고. ...거의 한달에 한번씩 만나고.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태국 아이들한테 태국어 가르쳐요. 엄마가 태국사람(인 아이들요). 그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건물에서 하는데요, 거기 복지관이 있어요.

(사례 20) 경북에서 교회 필리핀 분들만, 같은 교회 나왔던 사람들. 경북에서 33개 교회가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 분들하고 제가 맡아서 대표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고, 그래서 상담도 해주고. ... 서울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지역마다.. 구미에서는 대표하는 사람있고, 경북에서는 누구 대표하는 사람 있고. 힘든 사람 있으면 바로 전화해주고. 이쪽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송금 얼마씩 주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방문도 하고. 친구들 같이 방문하는 거, 돌아가면서. 그래서 교회 사람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사례 1) 일본 사이트인데, 여기 ** 시내에 있는 일본인들이 하는 그런 동아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본에서 어.. **시에 이사 오시는 분도.. 가끔 들어가면..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글 있으면 답해주고. 답하면, 그거를 인연돼가지고 (알게 되고)

나. 유대 지향적 관계의 지지망 효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 가족생활을 영위하기는 하지만, 가족원들과는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나누거나 자신들이 익숙한 음식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언어,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동향 출신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는 가족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어려움을 겪고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에게는 모국인들과의 관계가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계기로서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례 1) 아무래도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도 쉽게 통하고, 아무래도 제가 한국말을 어느 정도 알아도.. 한국말을 생각을 하면서 하잖아요, 꼭 여기에서 머리 속에 번역해서 일본 말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국말로 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가 안 오는 것 같아. (웃음) 그렇지만, 일본말은 아무 생각 없이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한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례 7) (중국친구들 만나면) 말하기 좀 편해요. 그게 제일 장점이예요. 한 번 말 배우면 또 어려워요. 사투리도 있고.. 빨리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냥 친구가 말 좀 편해요.

(사례 3) 캄보디아 음식 먹고 싶을 때, 친구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반찬 해먹어요. 집에서 해 먹으면 안 먹어요. 맛 없어요. 친구랑 얘기하면서 먹으면 맛있어요.

(사례 13) (베트남 친구들) 동네 친구들. △△면. 이 동네. 한 10명 정도. 자주 만나요. 모인지는 2-3번 만나기도 하고.. 안 바쁘면. 여름에 바빴잖아요, 그러면 자주 못 만나요. 노는 날은 자주 놀러가요. 베트남 음식도 해 먹고.. 이야기도 하고. 만약에 베트남 친구들 만나면 저희가 답답한 게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하고. 이해해주고. 아는 언니가 좋은 일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해주고. 저희가 다 터놓고 이야기 해요. 속상한 일 있어도 이야기 하고. 왜냐면 여기는 언니 오빠들 없잖아요. 가족들.. 그래서 뭐.. 시집은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로 인한 흔히 가족원들과 갈등에 직면하기 쉬운 결혼이민자를 이해해주고 그를 지지하는 유일한 상대 역시 동향출신들이다.

(사례 8) 지금도 시어머니가 우리 아기 한지에 이름 적고 불가에서 삼재라고 태워버려요. “시어머니 하지 마세요. 제가 안 믿어요.” “시킨대로 해라. 딸이라 해도 삼재 반드시 해야 돼요. 알았어?”(그런데) 중국에서는 사람 죽고 나서, 만약에 없잖아요. 죽은 후에. 산 사람은 절대 태우는 거 없었어요. 한국에서 삼재도 이상해요. 내가 중국에 있었으

면 이상해요. 중국사람이 생각하기엔 진짜 이상해요. 제사도 안 믿어요. 우리 같은 경우, 묘도 없어요. 죽은 후에 그냥 화장하고 나서 그냥 뿌려요. 묘도 없어요. 중국에서는 제사 안 해요. 영혼은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신랑 '이거 중국한테서 옛날에 배웠어요'하는데. 중국한테 배웠다면, 중국 옛날에 제사해요. 지금은 안 해요. 좋은 거는 많이 배워야죠. 필요없는 걸 왜 배워요. ... (Q: 제사 이런 문제는 중국 친구들하고 얘기 해봤어요?) 네. ... (Q: 한국사람들하고는요?) 한명도 없어요. 내가 생각을 중국인 입장에서 하지 한국인 입장에서 안해요.

특히, 결혼이주나 한국인과의 가족생활 등에 있어 유사한 경험을 공유한 이주여성들 간에는 다른 이들은 구체적으로 알기 힘든 고민과 문제에 있어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바로 이점 때문에 서로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한국생활 초기의 부적응 문제가 그 대표적인 부분으로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가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경험의 이질성 등으로 가족 내에서 해소되지 못하는 각종 어려움, 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받게 된다.

(사례1) (Q: 처음에 오셨을 때, 일본 분들도 주위에 가까운 분들이 없으셨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는 바람에 제가 한국어도 모르고, 혼나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 집에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말도 없이 가고 그랬어요. (Q: 가족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아, 일단 가족들한테는 좀 약간 친구 집에 갔다 올게, 이 정도는 하죠. 하는데, 계속계속 그렇게 있으면 제가 좀 저도.. 그냥.. 마음이 좀.. 위축하는 거 같아서.. 스트레스도 풀고.. 일본말 하고 싶어서.. 일본 친구가 한 5분 정도 걸으면 있었어요. 두 분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수다질하고.. 그렇게 가끔 그랬어요. ... 항상 커피주시고, 한 시간 정도 이렇게 수다 떨면서 다시 집에 들어가고. ... 먼저 여기 계시던 일본 선배들이.. 여기서 오래 계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때 선배들이 경험 많으니까, 그 때 모르는 것이라든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 많이 물어보고.

(사례 3) 있어요. 친구 한명. 캄보디아. ... 뭐 그냥 힘들다. 다 얘기(해요). 자주 만나요. 집이 가까우니까요. 반찬도 해먹어요. ... 야채, 유자, 캄보디아 나무, 캄보디아 고추 같이 심어요. ... 친구랑 같이 해먹어요. ... (은지) 6개월 (된 여성도) 있어요. 전화도 해요.. 모르는 건 말해줘요. 처음에 와서 힘들었고.. 저 처음 왔을 때 힘들었던 거 생각해요. 똑같아요. 그 친구도 반찬, 못 먹잖아요. 남편이랑도 뭐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잘 말 안 통하잖아요. 전화로 물어보고 그러면 통역해줘요.

(사례 7) 같이 결혼하고 나서 이주여성이라서 마음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어때요, 집에 남편 어때요.. 은행가서 어떻게 하는지.. 병원가서 어떻게 하는지. ... (나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물어보면, 어떻게 하는지 선배로서 다 가르쳐줘요. 우리 그 때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이미 다 지났어요.

여성결혼이민자 중 상당수는 결혼과 이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생소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그것도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한국식’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실제적 어려움이 상당 수준에 이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언어 소통의 한계,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으로 주위의 한국인들로부터는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적 배경을 공유하고 자신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 수준을 이해하는 동향출신 여성들은 무엇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사례 14) (Q: 임신 중인데 애기 낳고 나면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준비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통역) 필리핀 언니 뭐 준비하는 건지 가르쳐주세요. 말했어요. ... ‘언니 왜 이렇게 입덧해요?’하면 ‘임신하면 다 그러는거야. 3개월부터’가르쳐주고.

(사례 22) 애가 나와서 또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애 키우는 것도 어렵고. 막 선배한테 전화하고. 애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 하고 그랬죠. (Q: 태국 언니한테요?) 먼저 아이 낳고 6년 동안 살고 있는 언니가 있어서 자주 연락하고 전화하고. 또 모임도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인 것도 있고. 같이 참석해서 애기도 하고. 자기 사는 거, 어려운 거 소식이나 어디 가서 공부하는지 뭐하나 이런 거. 같이 모여서도 태국 음식도 해 먹고. 태국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 (방콕에서 같이 교회 다녔던 언니들에게) 전화해요. 전화. 태국말이니까 이해 잘 되잖아요. 처음에 한국말 잘 모르니까 어렵죠. 특히 애 낳고 키울 때 어려운 거 많잖아요. 애 키우면 우리 경험 없으니까. 또 시어머니 같이 안사니까요. 엄마도 옆에 없죠.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국제전화 그때는 비싸서 못하죠. 애가 열이 나거나 아파서 열이 안 내리거나 자꾸 울거나. 애가 계속 울지. 왜 울지 이런 거. 애가 설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사례 8) 아기 어떻게 키우는지, 너무 작았어요. 한번도 안해봤어요. (Q: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셨어요?) 저는 **씨(중국인친구이름)한테 물어봐요. 옆에 아파트 살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봐요. ... 아이 예방접종 언제 해야 해요? 같은 거. 이야기할 사람 없어요. 외국사람이 이야기해도 잘 못 들어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름)아~ 아기 접종해야 해요. 보건소 어디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처음에 보건소 어디 있는

지 모르잖아요. 친구 데리고 보건소 처음에 가고, 두 번째는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 (어린이집도) **씨(중국인친구이름)랑 같은 어린이집 보내요. **씨랑 다 다녀보고 여기 좋아요 해서 선택한 거예요. 신랑이 시간이 없으니까 볼 수 없었어요. 저도 말 잘 못해요. 그래서. ...

또한 통역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이들도 동향출신들 뿐이다. 아이를 돌봐주기 등 다른 이들에게 부탁하기 어려운 이들도 동향출신들에게는 비교적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으며, 아이 백일이나 돌 등 가족 행사, 명절에도 초청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로서 ‘유사 친족’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자신과 여러모로 다른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면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들이다.

(사례 6) 친구가 많으니까 제가 바쁠 때 애기 잠깐 봐주고.. 서로 도와주는 거 같아요. 제가 바쁘면은 ‘오늘 좀 바쁘다. 애기 좀 봐줘’ 그러면 좋고요.. 우리 집이 바쁘면, 김장할 때 바쁘면 친구도 불러서 도와주고, 서로 위해서.. 만약 친구가 병원 입원했는데, 애기 봐주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애기 봐주고.. 서로 위해서 하면 좋아요. (한국언니나 일본언니에게) 그런 건 좀 그렇죠. 한국언니는 동네는 그냥 괜찮아요... 한 시간 두 시간 봐 주는 건 괜찮죠. 그런데 별로 좋진 않죠. 부담이 되죠. 친구가 지난번에도 애기가 두 명인데, 하나는 아프니까 하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데리고 다니고 2주 동안 봐줬어요. 밥 먹고 자고 씻고 다 해줬어요. 그 상황이니까 도와줬지.. 어떻게 도와줬겠어요. 또 제가 직장 다니면 늦게 오니까.. 친구(한테) 좀 부탁해 그러면 도와주죠. 저도..

(사례 7) 의사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통역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애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시어머니 말도 못 하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친구 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처음이라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그 친구는 (한국)말 잘해요. 의사 선생님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엄청 아파요. (그런데 친구가 통역해줬어요.)

(사례 8) (아이 낳고) 병원에 누워서 친구들 만났어요. 아기 선물도 사주고 진짜 기분 너무너무 좋아요. 나 혼자 아니에요. 만약에 나 친구들 없으면 나 혼자 병원에 누워서.. 간호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외국 사람이라서 친척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혼자 살았구나. 너무 이상해요.

(사례 16) 자주 만났죠. 여기 다 가까운 데 살아요. ... 베트남 음식 만들어 먹고 밤새 이야기하고 아침에 친구들 가고, 설날 되면 이렇게 해요. 정해요. 이번에 설날 누구 집에 갈까? 한밤 자고, 남자들은 술 먹고, 우리는 윗놀이하고 음식해 먹고.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가족관계가 지지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때 모국인과의 관계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된다. 심각한 가족 갈등 등 위기 상황 시에 여성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은 동향출신 뿐이다. 때로는 공식적 모국인 공동체가 긴급 상황에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13) 멀리 살던 친구가 여기 왔잖아요, 처음에는 한국말 모르잖아요. 신랑이 자주 때려서 싸우다가.. 이런 저런 거 많아요. 한국말 모르잖아? 내가 가서 통역해주고, 얘기해주고, 아저씨, 그러지 말아라. 아무 것도 모르잖아요. 한국말도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먼저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직접 바로 결혼하잖아요. 당연히 우습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랬어요. 이런 저런 것들을 이해를 해 주세요. 얼마 전에는 우리 동네 언니 시집왔어요.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이에요. 베트남에서는 전혀 몰라요. 시집에서 어려운 점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언니 속상한 거 얘기하고, 2-3번 도와줬어요. 언니 지금 이혼했는데.. 아저씨가 때렸어요. 때려서 멍들었어요. △△에서 여성전화에 언니 데려갔어요. 얘기하다가 안 됐어요. 언니 이혼한다고 해서 이혼했어요. 지금은 거의 잘 살고, 그 때는 내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사례 19) 제가 아는 집 주변에 사는 친구가 ‘필리핀 근로자 프로그램이 있대, 필리핀 대사관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모아서 얘기도 하고, 어차피 여기는 한국에 왔으니까 자기들만 하는 거 아니고, 한국 사람 결혼한 필리핀인이 같이 와서 뭐 설명도 듣고, ... 서울에도 있고, 각 지역에.. (Q: 리더도 있어요?) 네. 청주에도 있고.. 모임하는 것도 1년에 1번. ... (지금사는 집이) 전세거든요. 빛은 은행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필리핀) 근로자 리더가 있거든요. 필리핀 근로자여서 1200만원 전세로 했어요. 그분들은 모아 놓은 돈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도 이자가 있죠.

물론 가족원과의 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가치가 그리 민감하게 경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편안함과 공동체 의식을 모국인들 사이에서는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원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그외의 한국인들과도 관계를 맺기 시작한 여성결혼이민자들도 모국인 관계에 적어도 일정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다.

(사례 10) (한국사람한테) 만약에 내가 (이야기) 많이 하면 ‘이 중국 여자 좀 이상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사람 같이 만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만약에 중국

에서 한국 문화 다르잖아요. 만약에 시어머니랑 저랑 다툼 있을 때 중국인 사회에서는 내가 맞아요, 하지만 한국인 사회에서 며느리가 틀릴수도 있어요. 문화 차이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중국친구들한테는 얘기해요. 저도 스트레스 풀어야 해요. 왜냐면 우린 중국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느낌 있어요.

다. 모국인 관계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 문화적 배경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동향출신과의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흔히 직면하는 정서적 불안이나 차이로 인한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생활 초기 한국어 소통에 결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과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어머니로서 직면하게 되는 난제를 극복하는데 있어 모국인과의 관계는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들과 가족 관계를 영위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큰 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관계로부터 요구하는 제반 측면이 모국인 네트워크로는 충족되지 않는다. 특히, 한국어 습득을 포함한 초기 적응이 일정 정도 진행되고 난 후 사회적 자원으로서 모국인 네트워크의 가치는 줄어드는 경향이 발견된다.

(사례 22) 옛날보다는 태국 사람한테 전화하거나 만나는 게 즐겼죠. 혼자서 살 수 있으니까. 다들 바빠요. 다들 애 키우고 다 바빠요. 어떤 때 모임 때는 모임이지만, 또 뭐 있으면 전화오고 도와주고.

사실,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관계망에 속한 이들의 구체적 배경과 생활경험, 그 속에서 쌓아온 사회적 역량에 따라 차이가 크다. 모국인 네트워크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성원 가운데 한국생활 경험이 비교적 오래되어 사회적 역량이 높은 이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국인 네트워크가 자족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영역이 그 만큼 넓다. 특히, 결혼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길고 종교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온 모국인 네트워크의 일원인 일본, 필리핀, 태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들에게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사례1) (일본인들 아이들도) 같은 학교를 다니니까..6학년 있고, 5학년 있고, 3학년 있고. 아니야, 아니야. 4학년 있고. 문제점도 같이 살면서 다음에 공부를 이렇게 하자고. 그런 것도..(Q: 그러면 그 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도움을 받는 것보다.. 제가 무슨 그냥.. 좋은 기회나 이런 저런 사이트 들어가서 참여하는 거 많아서 많이 소개해줘요. 이런거 있으니까 한 번 해보면 어때? 이렇게요. ... 제가 컴퓨터를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봐요. ** 시청, 도청.. 동네 있으면 동사무소.. 여러 가지 다 들어가서 보면서 이번에 이런 거 해.. 아이들이 뭘.. 재미있는 캠프라도 있나 보면서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소개해줘요.

그러나 결혼이주의 역사가 비교적 짧은 국가 출신으로서 종교기관과 같은 안정적 구심점을 결여한 대부분의 모국인 네트워크는 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그 내부에서 충분히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신과 유사한 배경과 경험을 공유한 상당수의 모국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 서로 유사한 문제로 고민만 할 뿐 그들 사이에서는 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사례 7) 친구도 야기도 어려서 ... 비슷해요. 우리들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때는 말도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세명 네명 다 마찬가지로예요. 거의 다 초보라서.

(사례 12) 그건 뭐 그 친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뿐만 아니라,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바라보는데 있어 관계망에 속한 성원들 사이에서 그 가치가 불균형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자신보다 앞서 가족관계나 자녀 양육, 교육 등 주요 사건을 경험한 선배가 있는 결혼이민자들은 선배로부터 정보 등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비해, 그러한 대상이 없는 선배결혼이민자들에게는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결국 선배 결혼이민자들은 모국인 관계에서 동원할 수 없는 정보와 지지를 모국인 관계 외부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상업화된 국제결혼으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를 둘러

싸고 형성된 지배적인 선입견은 모국인과의 관계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교적 초기에 들어와 한국생활 경험이 풍부한 선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의도적으로 모국인들과 거리를 두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생활경험도 비슷하고 알고 있는 바도 유사한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만 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모국인 관계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정보나 지지는 일정 수준에서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례 9) 제 나이도 사십이 넘었는데... 당연히 베트남 친구 없어요. ... 그 전에 **에 살 때는 베트남 사람들 한 명도 안 만났어요. 없었어요. 2005년도에는 국제결혼 다 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고, 들었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베트남 사람들이랑 점점 더 말 안 하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아무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관심이 가지고 있었죠. 길 가다보면 이상한 사람 보면 쳐다보고요. 소리를 들어보자고. 아, 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구나. 가끔씩은 들어봤어요. 요즘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시장가서도 주위에 다 보여요. (그래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솔직히 저 나이 많잖아요. 여기 오는 학생들이 다 20대에요. 자기 엄마 비슷해요.

(사례 6)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디 학교 가나 해서 조금 걱정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 중에는)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미리(먼저) 얘기 넣었으니까.

(사례 8) 다른 친구도 한국 온 지 2년 6개월-7개월 됐는데, 똑같아요,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임신했어요. 똑같아요. 어떻게 해야하나. 아기 가르치는 거. ... 오래.. 10년 20년.. 계산분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센터에 안 와서. 어떻게 만나요.

또한 한국인과 생활을 공유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상 모국인 관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 되기 쉽다. 모국인간의 관계가 활발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이라도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등으로 각자 바빠지거나 거주지역이 바뀌면서 관계가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다. 결국 한국생활 중에 공통의 경험을 교류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 2) (러시아, 카자흐스탄 친구들하고는) 이제는 자주 만날 시간도 없어요. ... **로 이라도 가고 (근로자들은) 시간 지나가면 벌써 그 사람 들어가야 돼요. ... 불법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한 명 잡혀갔어요.

(사례 20) 저는 (필리핀) 사람들 모임은 좋은데, 자주 만나면 싫어해요. 다른 친구들은 제가 놀

때는 일하고 제가 일할 때는 놀아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안 맞아서 혼자 지내요. ... 저는 또 오전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하고 밤에는 과외하니까. 친구들은 8시간 근무하고 10시면 밤에는 다 놀아요. 그런데 저는 일하잖아요. ... 원래 친한 친구들 지금은 휴가때만 (만나요). 못 만나요. 일년에 3-4번 정도만.

이외에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폐쇄성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 한정된 이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모국인 관계의 속성상 관계망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내부에서 대안을 찾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모국인 관계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가족갈등, 지속적인 도움 요구 등으로 인해 ‘피곤한’ 경우도 눈에 띈다. 이처럼 모국인 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경험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 관계라는 대안이 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면 모국인 관계를 포기하기도 한다.

(사례 4) (이 지역에) 필리핀 가게 두 개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상한 소리 들려요. ... 뒤에서는 막 뭐라고 해요. ... 깊이 하는 얘기는 안 하구요. 여러.. 필리핀 사람들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필리핀 여성들은 나쁘게 만들어요. 너 뭐.. 4년 밖에 안 됐는데.. 우리는 몇 십 년인데.. 너 그 자리 왜 있냐고.. 잘난 척 한다고.. 그런 얘기해요. 아.. 그 언니들 왜 그런가.. 별로 만나지는 않아요. ... 부부싸움 이런 거. 그 여자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그런 소리 나와요. 그런 경우 많아요. 나한테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

(사례 16) 요새 너무 자주 만나면 안 좋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너무 자주 만나면 안 좋아요. 샘 부리는 거 같아요. 처음에는 했다가 안 좋다고 소리 들으니까. 친구가 있으면 좋죠. 친척도 없으니까. 그런데 너무 솔직하지 말고, 너무 많이 말을 해도 안 좋아요. ... 지금 잘 안 만나고요. 만날 시간도 없어요. 시간 아깝고. 저한테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싸우는 일 생기고.

(사례 10) (방문지도교사 하면서 알게 된) 각 집이 다 그렇게 어려워요. 어떤 학생은 능력이 떨어지는 남편을 만나서.. 그것도 도와주고. ... (가족끼리 싸움이 생기면) 밤에 1-2시에 전화와요. ... 제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일단 자고 일어나서 얘기하자고.

4. 사회적 관계 발달과 ‘한국인의 가족원’이라는 특수성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생활 환경이 가족 내에 집중되어 있는 젠더구조는 여성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 발달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류사회 성원과의 결혼을 매개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내에서 자신과 여러 모로 ‘다른’ 배경을 지닌 주류사회 성원들 사이에서 살아간다는 점에서 보통의 이민자와도 차별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이야말로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가. 가족내 가교지향적 관계의 가치

가족이 함께 이동한 보통의 이민자들에게 가족은 동질성을 기초로 한 유대 지향적 관계의 영역이며 가교 지향적 관계는 가족 외부에서나 맺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가족 구성원들은 가교 지향적 관계의 대상이다. 즉, 자신과 종족적 배경을 달리하는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 그 관계를 통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가족’이라는 강한 연계의 대상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일상 속에서 인식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들에게는 열려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야말로 자신의 생활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가족 내부에서의 가교 지향적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가교 지향적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니는 의미는 남편이나 시부모 등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가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 해결에 적극적인 경우에 특히 현저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생활 과정 중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전적으로 가족원들을 통해 해결한다고 할 정도로 가족이 사회적 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들 가운데에는 가족 이외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될 정도이다.

〈사례 3〉 저 애기.. 시아버지가.. 저한테.. 애기.. 집에.. 공부 좀 가르치라고.. 저는 한국말도 많이 몰랐어요. 그래서 못해줘요. 시아버지가 해요. 설명 잘 해주잖아요. 저.. 남편도.. 애기 공부 가르쳐.. 전 외국인이라 설명 잘 못해요. (Q: 궁금한 거 있을 때는 가족들한테는 물어보세요?) 시아버지한테.. 시아빠 이거 뭐예요? 이러면 다 설명해줘요.

〈사례 15〉 신랑 진짜 착해요. 아무거나 다 잘해줘요. ... (Q: 한국어 배우는 건 처음에 어떻게 알고 가셨어요?) 신랑이 데려갔어요. (Q: 국적 바꿀 때 어떻게 하는지?) 다 신랑이. 신랑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알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Q: 임신하고 병원가고 이러는 건?) 신랑하고. (Q: 어린이집 찾는 건 누가 좀 알려주셨어요?) 그거 다 신랑이. (Q: 남편이 바쁘면 못해주잖아요.) 기다려요. 남편 올 때까지. ... 제가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따라다녀요. 어디 가면 신랑하고 같이 가요.

나. 가족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

1)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 혹은 제약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가족관계를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가족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 발전시켜 가는데 대해 가족들이 지니고 있는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원들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여성들의 가족 외부와의 관계 발달 자체가 저해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와 함께 기존의 쌓아온 관계망이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만난 이들과의 관계를 형성,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과제에 직면하며 이를 극복 내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히 가족들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여성들은 가족 외부와의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노력을 전개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에 관심조차 두기 어렵다.

〈사례 10〉 남편은 저에게 옛날에.. 한국말 공부도 하지마! 그리고. 하지말라는 게 많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거 많으면 똑똑하고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내 생각은 어려운 거 만날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랑 친구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 전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이외에 특정한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가족원들이 유독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특히, 가족들의 부정적 태도는 모국인들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모국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가족들이 보이는 가장 긍정적인 반응은 기껏해야 여성결혼이민자의 의도에 맡기는 수준이다. 특히, 결혼생활 초기에는 모국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남편이나 시어머니 등이 극명하게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족갈등을 겪기도 한다.

(사례 5) 처음에는 애기 아빠가 말렸어요. 러시아 사람들 만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한국 사람이 됐으니까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어를 공부 더 열심히 하고.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만나면 좋은 거 없다고. 그렇게 막 했어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례 6) 처음 왔을 때는 베트남 사람 만날.. 거의 없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만나면.. 아버님.. 처음에 배워야 되니까.. 베트남 만나면.. 그 때 저도 아니까.. 베트남 사람도 그렇고.. 아예 잘 안 만나고. 한 3년 있다가 그 때 많이 왔잖아요. 만나면 만나고.. 적당히 만나고.. 왜냐면 시댁, 아버님 같이 살면서 눈치도 보고,

(사례 20) 우리 남편 친구는 중국 분하고 결혼했는데, 두 달만에 도망가고.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통장까지 가지고 나가서. 외국인이라면 다 그런 줄 알고. 우리만 힘들었어요. ... 어머니는 소문 같은 거 안 좋은 거 듣기 싫어서. ...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어머니는 나가지 말라고. 원래 도망가는 외국인들 많기 때문에. ... 많이 울었어요. 나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고.

(사례 15) 신랑도 제가 친구들이 많은 거 좋아해요. 처음에 아니에요. 요즘 좋아해요. (Q: 처음에는 왜 아니었어요?) 왜냐면 중국 사람이 집을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둘이도 아직은... 둘이 어떻게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 비하면 한국인과의 관계에만 유독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물론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해 가족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단지 한국인과의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외부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것이다. 반면, 모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적이던 가족들이 유독 한국인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관계 형성을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례 16) 엄마(시어머니)가 한국사람이랑 잘 어울리라고 해요.

요컨대, 가족원들의 태도에서 한국인과의 관계, 모국인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다. 한국인과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관계를 맺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모국인과의 관계는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기껏해야 여성결혼이민자가 편한대로 놔두는 ‘방임’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

2) 이혼, 사별과 사회적 관계의 위축

다른 한편, 가족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관계의 대상 간에 공통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면은 이혼, 사별로 인해 남편이나 시댁 식구를 통해 형성되었던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현저히 위축되는 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혼, 사별과 함께 가족관계의 공통점이 줄어들면서 모국인들과의 관계 역시 위축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사례 19) (남편 사망 이후 갑자기) 왜 그러는지 시댁 식구, 아주버님이랑 통화가 안돼요. 지금은. 그 집은 시내인데 아직도 한번도 안 갔거든요? 통화가 안되니까 (달리 찾을 수도 없어요). 지금은 전화해도 전화가 꺼져있다고. 집 전화도 안 받고. ... 그 전이랑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신랑이 있으니까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신랑이 없으니까 볼일도 없다. 한국에는 이제 아무 것도 없구나. (Q: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가까이에도 안 오고., 피하는 거 같아요. 만약에 도와달라고 하나? 그렇게 할까봐 그런 것 같아요.

(사례 10) (친하게 지내던) 한국 언니가.. 교회사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와서 한국 말도 가르쳐주고, 요리하는 것도 몇 가지 가르쳐주고. 그런데 지금은 그 언니랑도 연락도 안 해요. 왜냐면.. 그 때 교회 사람은 다 좋은 거 가르쳐주잖아요? 이혼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하고.. 저희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서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냥.. 안 좋은 일이라서 그 언니도 연락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 그 언니는 시동생(이혼한 전남편의 동생) 친구래요. ... 베트남 여자들이.. 말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그냥 남편이 잘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남편들 다 있고.. 잘 해주고.. 저는 그런 거 아니니까.. 느낌이 좀.. 부러운 것도 있고 (그

래서 잘 안 만나게 돼요).

(사례 17) 그전에 우리 신랑이 있을 때, 저랑 잘 지내던 사람도 저랑도 만나고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 우리 신랑 없어지고는.. 그 사람이 지금은.. 저 지금 살아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냥 만나도 모른척 하는 적도 있어요.(Q: 베트남 친구들이요?) 베트남 친구하고.. 베트남(친구) 신랑도 그런 사람 있어요.

사실, 이혼이나 사별과 함께 가족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사라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에 직면하기 쉽고 그 만큼 가족원을 대신할 만한 관계망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된다. 특히, 생계를 위해 본인의 취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 돌봄에 도움을 줄 주위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축소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있다.

(사례 5) (일하러 갈 때 아이 돌보는 건) 만약에 친구가 일하러 안 나가면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 보내야 되는데 보내고, 그래서, 다음에 이런 부탁 안 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얘기 봐주세요 부탁하는 거 그것도 힘들어요. 진짜.

(사례 19) 제가 자궁 뭐라고 하더라? 염증. 뭐 여러 가지 병원에 몇 번을. 수술도 받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Q: 아플 때 혹시 주위에서 도움을 좀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필리핀 사람들한테도) 얘기는 잘 안해요. 너무 얘기하면 불쌍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별하기 전에) 신랑도 없는데 자기도 많이 아프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 (Q: 아이 때문에 급할 때는 주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급할 때는 제가 회사에서 나와서.. 그렇게. 아침에 그냥 막 뛰어서 보내고. 어린이집 앞에 그냥 돌이 놓고, 선생님 아직 안 왔고. 회사 뛰어가고. 저만 고생한 것도 아니고, 애들도. 막 울고 난리나고. 엄마도 가야 하나까, 선생님이 오는 중이니까 여기서 기다려 만 데 가지 말고. 그런데 마음 아프죠. 할 수 없어요. 살아야 하잖아요.

5. 가족 외부의 한국인: 관계 질서 재편의 시험대

가.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시도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맺는 관계의 또 다른 한 축은 주류사회 성원들로서 모국인과의 관계에 집중하던 여성결혼이민자라도 한국사회에서의 생활 경험 속에서 한국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 동향출신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초기 적응과정이 마무리되고 모국인 관계가 지니는 일정한 한계도 경험하며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관계 속에서는 더 이상 충족되기 어려운 생활 상의 과제에 직면하게 된 여성들은 새로운 관계의 자원인 한국인에게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다.

여성들에게 있어 한국인과의 관계는 언어,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함께 하는 동향출신과의 관계로 부터는 실현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항은 자녀와 관련되어 발생하는데, 특히 자녀가 공식교육제도와 본격적 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부터 한국인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지니는 가치는 급격히 증가한다. 모국인 친구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 생활상의 각종 문제에 비교적 원활히 대처해오면서 한국인 관계에 대해 별 다른 요구가 없었던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자녀교육과 관련해 자신이 모르는 것,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한국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사례 6) 지금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는 애기 키우는 거, 교육하는 거나, 여러 가지 한국에서 생활 같은 거나.. 많이 부족하잖아요. 애들 학교 들어갈 때는 되게 걱정 많았어요. 왜냐면 다른 한국사람 애들이 더 잘 하나까.. 우리는 조금 그러고.. ...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국사람들 만날 때. (만나면) 거의 물어보는 거는 애기, 자녀 교육 그런 거나. ... 한국사람들이랑 많이 사귀어야 해요. 모르는 거 많으니까.

(사례 10) 지금도 도움이 받고 싶은 점은 다 애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이라면 제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 한국사람 한명 친구 있으면 그냥 한국 문제 생기면 물어보고, 물어보는 사람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문제가 생기면요. 한국에 궁금한 거.

(사례 18) 큰 애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엄마들 그런 애기 들으면. 진짜 고등학교에 다니는 엄마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통해서 소개를 받을까.

그런데, 동향출신들은 한국에 오기 이전부터 일정한 관계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종교기관, 교육기관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었던데 비해, 여러모로 차이가 있는 한국인과의 관계는 그리 쉽게 형성, 발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이 처음 알게 되는 한국인들은 동네 주민이나 남편 친구의 부인, 아이 친구 엄마 등 남편이나 자녀 등 가족원과 관련된 이들이다.

(사례 2) 동네 아줌마. 아줌마 남편이 우리 남편의 동창. 그래서 친구. 그래서 우리 동네 시골에 살아서. 우리 동네예요. 몇 명 안돼요.

(사례 6) 남편 그 모임 있잖아요. (Q: 계모임?) 한국 언니도 있잖아요. (Q: 남편 친구 부인들요?) 나이도 비슷하니까. 그러면 물어보고.

(사례 5) 그냥 애들 때문이죠. 애들끼리 친하니까 엄마들도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 어린이집 다닐 때 버스타고 ... 애들 데리러 갔다 줄 때도 그래서 알게 됐어요. ... 아이가 3살에 어린이집 들어가서. 아이 5살 때 알게 됐어요.

(사례 7) 아기가 지금 어린이집 보내니까.. 같이 보내는 아줌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알게 됐어요. 보낼 때 이야기 좀 하고, 아기 올 때 이야기 좀 하고. 그래서 요즘 친해졌어요. 위층에서 살아요. 자주 이야기.. 커피도 마셨어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인사하고.. 어디 가는지 물어보고..

이처럼 가족이야말로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맺는 관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직접적으로 한국인과의 관계를 맺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여성들이 비교적 많은 수의 한국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취업이나 사회활동 기회를 통해서이지만, 한국인과 만나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우선 대부분의 경우 취업이나 사회활동 자체가 한국인들과의 지속적 관계 형성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의 취업은 불안정하고 그 속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 역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함께 일하는 이들과는 연령차이도 커서 공통의 관심사를 형성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오히려 직장에서 처음으로 한국인들과 본격적으로 만나면서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경험하고 이로 인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관계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사회활동 역시 이러한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주여성들과 관련된 활동이어서 한국인과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조차 거의 없다.

〈사례 2〉 (공장에서 같이 일했던 한국 아줌마들) 있어요. 직장 때문에. 그때 대화 많이 없어요. 일 때문에. 그래서 시간 같이 없어요.

〈사례 3〉 (연탄배달 하는 곳에) 한국사람 있어요. 할머니들. 같이 공장 다니니까. 인사하고. 아줌마들 물어와요. “안 힘들어?” 그러면 “재밌어요” 그래요. 안 물어보면 얘기 안 해요.

〈사례 15〉 (휴게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놀러갈 때, 회식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거 못 알아드는 거 엄청 많아요. 조선족 언니들이 있으면 물어봐요. 없으면 그냥 제가 밥 먹어요. 사이다만 먹어요. 밥만 먹어요. 휴대폰 만지고.

이밖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비교적 자주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멘토 관계를 맺은 상대 등으로 한국인을 만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만난 이들과는 서로 간에 공통점이 별로 없어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이상의 사이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례 3〉 센터 선생님들이~ 센터 선생님들은 그렇게 알긴 알지만 친구는 아닌.. (Q: 따로 연락하거나 그러시진 않는가보죠?) 네. 없어요. 센터.. 공부하는 날만.

〈사례 8〉 센터에서 ‘친언니’ 한명 맺었어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등산도 한번 했어요. 언니가 너무 바빴어요. 자주 연락을 못했어요.

결국 한국인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막연한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런 저런 계기를 통해 한국인과 만나더라도 그저 ‘인사 정도 하고 지내는’ 형식적 관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사례 3〉 애기 학교 가면. 앞으로 10년 20년 말 잘하면. 한국친구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례 1〉 옛날에 (비에날레에서 자원봉사로) 같이 일하는 분이 2007년부터 계속 일하는 바람에.. 언니들인데.. 다 언니고요, 제가 제일 막내고.. 제가 귀엽게 해주죠, 뭐. 아까도 전화해가지고 이번에도 비엔날레 8월에도 같이 밥 먹자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모임도 있고.. 같이 하면서.. 한국 분들이랑.. 저희가 아무리 여기 살아도 일본 사람들끼리 하는 것도 많으니까.. 한국 세계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말도 모르는

것도 아직 많고. 그러니까 같이 또 친하면 공부도 되고.. 좋은 경험도 많이 할 수 있어요. ... 아는 언니이고. 가끔가다 보고. (그 정도죠.)

(사례 8) 한국사람도 많이 친한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만날 때 이야기할 사람은 있어요. 우리 ***(헌거주지)에서 남편 같이 다니는 친구 알아요. (부부 동반해서) 만날 때 같이 이야기 좀 하고요. ... 작년에 여름 3개월 회사에 다녔어요. 휴대폰 부품 가게. 유리. (Q: 그때 사귀어 사람 있으세요?) 네. 많이 안 만나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면 얘기 좀 하고요. 인사하고요.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이 어떻게 크는지 궁금해해요. 우리 아기 아프고 그런 거 물어봐요.

(사례 20) 그 사람들이랑 가깝진 않고 오면 인사하고. 잘 살아라~. 열심히 하고 애들 잘 키우라고.

주위의 한국인들과 지극히 형식적 관계를 넘어 일상적으로 기능하는 관계를 지니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경우에도 오직 극소수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러한 관계를 형성할 뿐이다. 가족을 통해서나 우연히 알게 된 1-2명의 한국인과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를 형성하는 수준으로는 한국인 관계를 통해 동원하고자 하는 사회적 자원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례 13) (한국인 친구) 있어요. 많이는 없는데. 아줌마들. 동네 아줌마들. 친구는 다 나이가 동갑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하고는 잘 지내요. 내가 일이 바쁘면 ○○(아이)를 그 친구가 다 해줘요. 나이도 동갑이고. 집 바로 옆이에요. 자주 만나요.

나. 관계 형성의 한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도 관계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수많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는 가치를 지닌 관계의 대상을 결여하고 있다.

(사례 3) 한국인 친구 한명도 없어요. 어떻게 만나... 어떻게 얘기 몰라요. ... (Q: 아들이랑 딸이 어린이집 가잖아요. 아이들 엄마랑 만날 기회 없어요?) 네 없어요. ... 한국사람이랑 얘기 안해요.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아이들도 있는데)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해요. 한국사람 얘기 안해요. 그냥 인사만. 한국 엄마랑 얘기 안해요.

〈사례 10〉 한국 친구는 아직 1명도 없잖아요. 어떻게 느낌 하는지 몰라요.

여성결혼이민자들 중에는 주위에 생활 경험을 공유할 만한 한국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자신과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 생활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대상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사례 16〉 28살에 결혼하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친구 사귀기 힘들고 시골에서 젊은 사람 없잖아요. 다 서울에 올라가고. 시골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 (Q: 이 마을에서는 젊은 편이죠?) 제일 젊죠. 다른 사람들은 45살 넘어가고. 친구 하고 싶었는데, 나이도 많고. 나가면 애기 같다고 하니까. 조금 안 좋아요.

〈사례 17〉 많이 친한 건 아니에요. 그냥 동네사람이에요. (Q: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없는데요. 여기 아줌마하고 시어머니처럼 (그런 연령대에요).

또한 물리적으로는 이러한 대상이 있더라도 관계 진전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결혼이민자들은 흔히 한국어 소통의 문제를 지적한다.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들과의 관계 경험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 한국인 앞에서는 자신감을 갖기 어렵고 심지어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를 원하면서도 스스로 관계 자체를 회피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사례 6〉 어디가든 외국인은 말 못하는 거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지. 대화하는 것도 이해해주는 사람도, 가족만 (있죠). ... 되게 막 조금 그래요. ‘아 외국인이구나. 말 못했구나. 뭐 못했구나.’ 해서. ... 제 느낌에는 조금.. ‘아~ 다문화여서 조금 그렇구나.’ 했던 거 같아요. ... 처음에는 말 실수 할까봐 좀 그렇고. ... 씹힐까봐.

〈사례 3〉 어떻게 말 하는지 몰라요. 좀 애기 잘 못하면.. 애기하고 싶었는데 저 말 못해요.. (그리고) 한국친구들 어디 만나는지 몰라서.. ... 말 잘 안 통하고 대화 못하고. 그래서 안해요.

〈사례 7〉 놀이터 갈 때 아줌마가 시간 있으면 우리집에 오라고 하는데요.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이야기 나뉘요. 그래서 마음이 그래서 거절했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본 적이 없어요. ... 아줌마가.. 한국 아줌마 스타일이.. 말이 너무 빨라요~ 제가 알아듣기 좀 힘들 때도 좀 있어요. 그게 좀 재미도 없고, 부끄럽고.. 말 못 꺼내니까.. ... 병원에서 무슨 병인지 ‘중이염’하면 못 알아들어요. ... 물어보면, 아~ 외국 사람이라 못 알아듣는구나,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가면 용기 안 가요. 창피하고.. 말 꺼내기 힘들고..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사례 15) (직장에서도 한국사람들이랑은) 그냥 말 때문에 불편. 왜냐하면 중국사람이면 제가 말 때문에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사람이면 같이 이야기할 때 가끔 불편한 거 있어요. 못 알아 듣나봐요. 말 때문에 불편하고 많이 답답해요.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이 한국사람이랑 많이 틀려요. 그거 때문에.

그러나 한국어가 익숙해지고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도 관계 형성이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 비교적 능통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적 태도와 부정적 선입견 때문에 한국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또한 특정한 한국인들과의 갈등 경험으로 인해 한국인 일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기도 하는데, 한국인들과의 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테레오타입은 극복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관계에 대한 적극성은 변화하지 않는 ‘악숙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경향도 발견된다. 다른 한편, 가족들 역시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지를 보내면서도 가족원이 외국인 또는 특정 국가 출신이라는 점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적극적 관계 형성의 자제를 요구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사례 1) 처음에 왔을 때는 특히.. 지금은 독도 문제도 조금 있었잖아요.. 그런 것 저는 있지 않았지만, ○○공원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 90년대..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일본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도 하나도 모르는데. 왜냐고 물어봤더니,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일본 사람 있다는 거 알면 기분 나쁠까봐,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때는 90년대니까 지금은.. 많이.. 해방됐죠, 서로가.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지금도 제가 일본 며느리라고 하면 주변 분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조금 있는 분위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귀라는 말은 더욱 안했어요. 오히려 일본인이라는 표시를 나오지 마라.. 독립기념관 이런 데 가면 일본말 하면 안 된다. ... 제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안 좋았다는.. 우리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엄마 아빠들이 일본사람이어서 싫다는 분들도 계셨죠. 애기들한테 ‘일본 애들도 있대?’하면서 싫어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한국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게 한다는 거죠.

(사례 8) 미용실가서 머리 잘라요. 할머니 파마하고 있어요. ‘말 좀 이상하네요’ ‘제가 외국 사람이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 돈 없어요? 밥 못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진짜 열 받아요. 욕하고 싶어요. 중국에서도 잘 살아요. 중국에서 한국 그렇게 말하면 속상한 거랑 똑같아요. ... 무시하는 거예요. 티비에서도 중국

에서 가난한 사람만 나와요. 잘 사는 사람 티비에 안 나와요. 진짜 신발도 못 신어요. 중국은 크잖아요.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잘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무시하는 거. 한국에서 돈이 필요해서 왔냐고 그러는 거. 몇 살이야? (남편) 나이 많지? 집은 전세야? 그런 거 물어봐요. ... 우리 신랑 택시 운전자.. 택시 운전자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회사원. 그냥 회사 다니고. 어떻게 나왔어요. 택시 운전자 하냐고. 제가 (직장 다닐 때) 소문 들었어요. 그냥 택시 운전자 돈 많이 못 벌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사례 7) (말 이외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아.. 우리 외국 사람인 거 알면 좀 이상한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보면 제가 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이상하고.. ... 밖에 나가서 장 볼 때, 이야기 이상하게 나왔잖아요. 외국 사람이라서~ 아~ 그냥 태도가.. 좋지 않은 분이 있어요. 아줌마 눈빛이 너무 이상하고, 말 자주 안 해요. 그냥 우리도 가버렸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 저희 남편은 한국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처럼 한국인과의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이나 가족원들에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문제의 가능성에 직면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가 지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했다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비교적 적극적으로 한국인과 관계를 맺었더라도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달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한국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받거나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을 뿐 상대와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관계 맺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나 관계의 대상인 한국인에게나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동향출신에게는 여러 가지 조언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결혼이민자들도 한국인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편치만은 않다. 한국인들로서는 영어와 같이 자신이 여성결혼이민자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한 여성결혼이민자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별로 없다.

(사례 9) 제가 외국사람이라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랑 친한 사람들은 저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거예요. 정보 없으면 다 가르쳐주시고, ... 친한 동생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자기도 내가 아플 때 와서 도와주고.

(사례 20) (한국사람 사귀겠다) 특별히 그런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 나가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영어해서 그런 지도 모르겠어요. 영어회화 할 줄 아니까.

(사례 4) (나랑 또래인) 학생들도 친해요. ... 가끔씩 나한테 뭐 영어로 가르쳐 달라고. ... 교회에 친한 사람이 한 10명? ... 시간이 있으면 나도 시간 있으면 만나자 해서 만나고.

다. 가교 지향적 관계의 가치 확인과 관계 발달 가능성

이처럼 한국인과의 관계가 지니는 가치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관심을 두고는 있지만,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의 장애요인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인과의 관계 발전은 크게 제약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 해결할 가능성도 충분하며 그 과정이야말로 관계 발전의 핵심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과의 관계 발전에 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관계를 통해서나마 여타의 관계로는 실현할 수 없는 한국인들과의 관계가 지니는 가치는 경험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동질성에 기반한 관계와 달리 차이에 기반한 한국인과의 관계는 한국어나 한국음식 등 자신이나 주위의 동향 출신들은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동향출신이나 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자녀교육과 관련된 정보도 한국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자녀교육에 걱정이 많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는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자신의 출신 배경과 여러 모로 다른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부인이자 어머니로 살아가야 할 여성결혼이민자들로서는 점차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에 있어 동질성에 기반한 관계보다 차이에 기반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이 있다.

(사례 5) 러시아 친구들 만나니까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데 한국말도 못 배우잖아요. ... 어떤 서류 오면.. (한국인) 친구한테 갖다가 “언니 이거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러면 가르쳐줘요.

(사례 8) 만약에 한국사람 자주 만나면 한국어 빨리 늘 수 있어요. 처음에 살 때, “할 만해요?” 하는데 몰라요. 언니 몰라요. 집에 들어와서 우리 신랑한테 물어봐요. “아, 할 수 있어요? 잘 할 수 있어요?” 한 마디 배웠어요. 만약에 중국사람 만나면 다 중국말 쓰잖

아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 만나면 듣기도 좋아요. 발음이 정확하잖아요. 우리 처음에 한국 사람이 “깟읏”하는데 못 하는데. 한국에서 발음 어려운 거 있어요. 한국사람 많이 만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국말 빨리 늘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점도 있어요. ...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면 좋겠는데요. 말도 빨리 배울 수 있어요. 문화 같은 거.. 차이가 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정확해야 해요. 중국에서 좀.. 100% 아니고 40-50% 포기해야 해요. 우리 한국사람 안 만나면 우리 그대로 중국 사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중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처럼 결혼한 한국 어 좀마잖아요. 100% 아니고 천천히 배워야 해요.

(사례 13) 저는 한국 모르잖아요. 만약에 조금씩 뭐 있잖아요?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한국 친구 만나면.. 좋은 거는.. 한국말 몰랐을 때, 못하잖아요. 가르쳐주고. 그거는 좋잖아요. 베트남 친구보다는. 만약에 베트남 친구 만나면 베트남말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친구 만나면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친구는 한국말 많이 배우니까. ... 한국사람이면 더 좋죠. 왜냐면 모른다. 한국어 같은 거. 생활이 점점 더 어렵고 달랐잖아요? 한국사람 만나면 더 좋고. 한국말 잘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좋고. ... (Q: 유치원에서 준비물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어려운 말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한국 친구요. 한글. 크레파스 같은 건 저도 아는데.. 저도 대충 아는데, 되게 다른 것은 모르잖아요. 글씨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아니면 콕티슈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거 뭐냐고 물어보면, 휴지 통 안에 있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생님이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 오잖아요. 되게 한글 알아도 100% 안 되잖아요. 좀.. 이거는 잘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한 두 개 모르면 친구한테 문자로 물어보고.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답해주고.

(사례 9) 그냥 말 들어보고 정보도 들어보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고. 그 때도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알게 되니까, 아, 한국 엄마들이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 솔직히 제가 한국 친구를 더 만나고 싶죠. ... 교육에 관련된 것도 있고. 친구..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관심이 많죠. 이사갈 때마다 친하게 지내고. 애들은 뭐 먹는 거 좋아하니? 운동 뭐 시키니? 영양제 뭐 좋아? 성장같은 것도 얘기하고. 사춘기 얘기도 하고. 애들 심리도 서로 얘기하고. 남자 애 둘을 키우니까 더 중요한 거죠.

(사례 16) (아이) 학교 갔다와서 뭐 만들어주는 거,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숙제도 물어보고. 소풍 나갔을 때는 뭐 가져가야 되는지.. 가방 사는 데 어떤 가방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 언니는 딸내미를 다 키워서. ... 저는 베트남 사람한테는 안 물어봐요, 한국사람한테 물어봐요. 베트남 사람하고 한국사람 생각 달라요.

또한 한국어가 늘고 관계 경험도 쌓이면서 한국인과의 관계 발전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도 극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계

형성을 시도하기도 한다.

(사례 6) 처음이 조금 그래요. 처음에 말 못해서.. 주눅들고.. 계속 해보니까.. 성격도 괜찮다, 그래서. 한국사람이 한국사람 그러는 건 괜찮은데.. 우리 다문화에서 조금 그래요. 처음에 봐서.. 계속 해보니까 친하고, 얘기하고, 농담도 하고. 괜찮아요. 처음엔 조금 그래요. ... 근데 한국사람들이 만날 때 잘 친하면 성격이나 알면.. 되게 친해요. 가르쳐 주고,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모르면, 조금 제가, 말 조금 못할까봐 계속 걱정하고. 제 계속 해보니까.. 마음이 더 열고 얘기하면서.. 같이 친해지면서 마음을 열고, 그 언니가 내가 하는 것도 받아주고 제가 하는 것도 이해해주고. 서로 이렇게 하니깐 자신감 조금 생긴 거 같아요.

(사례 7) (아이 어린이집 아줌마들하고 친하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사니까 적응 잘 되는 느낌이 나와요. ... 한국말 실력이 좀 늘었어요. 아~ 한국 아줌마들 사귀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잖아요. 용기 났어요. ... 내가 진짜 한국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 마음이 진짜 좋아요. 기뻐요.

(사례 22) 예전에는 많이 활동 못하고, 단어 잘 모르고. 나중에 많이 활동해서 통역도 많이 하고. 또 밖에 나가서 활동 많이 하고. 그래서 한국말 많이 늘고. 그래서 조금씩 늘고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 아니고. 점점점 하고. 하다가 막히면 그만 두고. 또 나중에 또 하고, ... 거의 제가 5-6년 지나서 된 거 같아요(한국사람하고 말하고 활동 하는데 자신감이 생긴 거 같아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과의 가교 지향적 관계를 통해 동원하고자 하는 자원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의 폭이 확대되어 한국어나 자녀교육, 일자리 등 생활 중에 직면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자녀 친구의 엄마’와 같이 자신과 비교적 유사한 경험을 지닌 소수의 ‘친한 관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보다 많은 이들과의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례 20) 저는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한국인들한테 물어봐요. ... 도서관 자원봉사 하면서 만난 언니도 있고. 학교에서 근무하니깐 선생님들하고 아주 친합니다. 힘들 때마다 애들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읽기가 잘 안 되거든요. 한국어 책 많이 읽고, 책 많이 읽어주면 나중에 잘 할 수 있고. 선생님 가정도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내가 직장필요하면 ‘선생님, 돈 필요해요, 직장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노력해볼게.’ 해주시고. 그런 선생님 있어요. 지금도 만약에 직장이

필요하면 그런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직장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해요. 그런 분 몇 분 계시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가족은 없지만 활동하면서 그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 교육만큼은 그냥 속상한 거 있으면 과외 하는 집에서 “선생님 오늘 집에서 뭐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하면 “원래 그래요. 우리도 힘들어요.” 얘기해요. 어떤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선생님, 너무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못해도 돼요. 잘해도 못 하니까 그 정도면 하면 된다고”. 웃으면서 “그래요?, 아 그렇구나” 했어요.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외국인이라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니까 (한국사람들도 그렇더라구요).

(사례 22)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는지, 어디에 물어보는지 알아야죠. 제가 가까운 사람은 남편. 남편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남편 바쁘면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다양하게 만나서 나한테 좋은 것은, 예를 들어.. 내가 알고 싶은 거, 한국 생활, 내가 모르는 거, 한국 사람한테 직접 듣고 직접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태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한테 배우면 그냥 직접 알게 되죠. 그게 좋은 거죠. ...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일하게 되면서) 정보가 더 넓고, 시야가 좀 넓어지죠. 또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우리 아이도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육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관심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동네 아줌마들만 알았을 때) 그때는 그냥 음식 그런거, 살림에 대해서.

가고 지향적 관계 차원의 사회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생활 상에 직면하는 각종의 문제 해결에 비교적 원활히 동원하는 이들은 한국인과의 관계에 있어 몇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자녀 친구 엄마’ 등 사적인 관계를 통해 알게 된 이들 이외에 교사, 경찰 등 보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한국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주로 자원봉사, 클럽활동, 교육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며 특히 학교 등 주류사회의 주요 기관에서의 활동이 관계 형성에 주효하게 작용했다.

또한 이들이 한국인들과 맺는 관계의 성격을 보면,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에서 발생하기 쉬운 관계의 일방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이나 문화 교육 등 자신의 특수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한 활동을 전개해본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경험을 토대로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축적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자원봉사 등을 통해 한국

인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도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도 가르치고 도와주는 호혜적 관계를 맺고 있다.

(사례 20) 도서관에서 활동했어요. 학생들 도와주고, 가끔은 책 읽어달라고 하고. 다른 어머니들도 같이 하게 됐어요. (Q: 학교 도서관에서요?) 네. 저는 월요일마다 4시간씩 해줬어요. 같이 하는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들은 한국인 어머니들이라서. 외국인이랑 같이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랑 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나 통하나?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인사도 하고 하니깐, 같이 일하는 언니는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런데 2달 지났으니까 영어도 직전에서 가르치면서 하니깐.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 그 언니는 대학생하고 중학생 아이들 있었어요. 그래서 막내는 5학년이니까, 언니가 하는 말씀 항상 애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배우는지 많이 들었으니까. 1년 동안 그 언니랑 진짜 언니처럼 지냈어요. 근데 외국인이 봉사하는 거는 전혀 몰랐어요. 외국인이 그냥 결혼만 하고, 회사나 다니고 돈 벌고. 근데 외국인이 봉사도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대단하다 하고. ... 그 언니는 항상 영어 못한다고 얘기하고. 시험 볼 때는 괜찮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 언니는 또 학원 보내고 예기를 하는데, 많이 안 보내도 된다고. 학생이 공부하고 싶어야 공부가 되죠. ... (도서관 자원봉사하면서 교장 선생님도 알게 됐어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거든요. 그 교장선생님은 중학교에 근무하시는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저는 도서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도서관에 오면 관심을 겁니다. 해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찾아와서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한국어 그런 거 조금 가르쳐줘요.

(사례 22) 태국 후배 오잖아요. 그러면 한글 가르쳐요. 한글 가르쳐요. ... 2002년 둘째 임신 때도, 배부를 때, 8개월 때도 했어요. ... 2004년인가 2005년은 나가서 여행사 통해서 통역하고. 2008년에는 태국어 배우는 한국 사람한테 학원에서 (가르친 적도 있어요). ... 개인으로도 가르치고. 통역 있으면, 번역 있으면 연락하고. ... 2009년부터 이중언어강사하고. 또 저기 뭐죠. 상담도 해봤어요. 태국사람한테. 가족상담. 문제점 이런 거. 이혼문제 같은 여러 가지. ... 지금도 태국사람한테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국사람한테 태국어도 가르쳐요. ... 작년에도 (이중언어강사로 일하는) 같은(학교에서) 교육 담당하신 선생님 있어요. 음악 맡으신 분. 좀 너무 친해졌어요. 서로 얘기도 하고. 같은 교실에서 하니깐. ... 오후에 수업 없을 때 서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또 같이 서로 음식도 해 먹고. 태국 음식도 하고, 그 분도 부침개도 하고. 거기 교과실에서 그 교과만 담당하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간식도 먹고.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또 한학기 끝나고 같이 외식하고 그래요. .. (학교에서 이중언어강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물어봐요. 뭐 영어 어디. 학원 어디서 보내나 어떻게 가르치나. 아이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거 물어보고. ... 이것 저것. 건강관리, 아이 관련된 이야기, 주변 이야기. ... 또 뭐 어디 아프면 어느 병원 가는

지. 아이들 소아과 어디 좋은지. 가끔 저도 소개해주고, 그 사람도 소개해주기도 하고. 여기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 그 전에는 같이 봉사활동도 해요. 녹색 어머니 그런 것도 해봤고. 유치원 때도 급식도 하고. 유치원 때도 제가 가서 태극춤 어린이날 한국사람들한테 가르쳐줬어요. ... 학교 명에 도서관 봉사하는 것도 했고. ... 영등포 경찰서 안에 탁구 클럽 있어요. ... 작년부터 학교에서 (만남 동료 선생님).. 우리 언니.. 거기..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1년 동안 계속 했어요. 하면 재미있잖아요. 운동도 되고. 그래서 좋아서 해요. 운동겸. (Q: 거기 가면 주로 한국사람이죠?) 네. 다 한국사람이죠. ... 재밌죠. 그냥 운동만 해도 재밌어요. 같이 시합도 하고. 복식도 하고. ... 또 어울릴 수 있고. 같이 얘기도 하고 괜찮아요. (Q: 탁구 클럽에서 만나는 사람은 어떤 분들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연세가 많아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 주부, 그냥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지금 (경찰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 제가 대학교가서 태국어 가르치고 싶어요. 대학생한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런데 거기 (이중언어강사 양성교육 받으면서 알게 된) 교대 교수님, 친한 교수님이 몇 명 계세요. 교수님이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 교수님이 설명이 좀 길다. 언제 시간 내서 같이 만나서 얘기하자고.

6. 소결

가. 사회적 관계 미발달의 위험성

한국사회로 이주한 초기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출신사회에서 발전시켜 온 사회적 관계로부터 일정 수준 단절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지 못한 채 ‘외로움’에 시달린 경험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동향출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일상을 같이하는 가족원들과의 관계 발전을 통해 해소되지만, 사회적 관계 형성 자체를 저해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가족들의 부정적 태도 등으로 인해 한국사회 경험이 상당기간 흐른 후에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된다.

심각한 가족갈등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을 결여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데 결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가족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하지만, 가족관계가 악화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이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나. 사회적 관계망의 두 축: 모국인 관계 - 한국인 관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형성하는 관계망은 한편으로 자신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공유하고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경험을 함께 하는 동향출신 여성들을 상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원을 포함해 자신과 언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고 생활상의 각종 경험에서도 차이가 나는 한국인들을 상대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계망의 두 축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사뭇 다른 가치를 지닌다.

한편으로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동향출신과의 관계는 정서적 지지의 원천이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국생활에서 직면하는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존재들은 바로 이들이다. 가족폭력과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지지망으로 기능하는 것 역시 동향출신과의 관계이다.

다른 한편, 한국인 관계는 한국어 습득이나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 교육 등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각종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이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으로서 모국인 관계와 한국인 관계는 서로 다른 기능,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향 출신이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동질성을 기초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제공한다면 한국인과의 관계는 한국인의 가족원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자원과 정보를 쌓아가는 계기가 된다. 모국인과의 관계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가치가 현저히 드러난다면 한국인 관계는 안정된 생활 기반 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면서 사회통합을 진전시킬 때 그 가치가 구현된다.

이러한 관계의 두 축은 순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상대적 비중이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생활 초기에는 전반적 관계망에서 모국인이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현저히 높았다가 점차 이주 초기의 부적응 문제가 어느 정도 해

결되고 가족관계도 안정되면서, 특히 자녀가 공식적 교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이 되면 관계망의 중심축이 차츰 한국인 관계로 이동하는 양상이 발견된다. 그러나 관계의 축이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인과의 관계가 상당 수준 발달한 경우에도 모국인과의 관계만이 줄 수 있는 가치는 포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한국생활 초기부터 발달시켜온 모국인과의 관계를 일정 정도 유지하면서 한국인과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시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있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최대화시키는 방법이다.

(사례 22) (Q: 태국사람들과의 관계나 한국사람과의 관계가 다른 것 같으세요?) 네, 좀 달라요. 뭐, 내용이 좀 다르죠. 우리끼리 만나면 어떤 얘기하고, 한국 사람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하고. 제목이 달라요. ... (예전보다 한국사람을 많이 알아도 남편이랑 싸우거나 그럴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친구... 제일 친한 태국친구, 친한 선배에게 얘기해요. ... 왜냐면 내가 제일 편한 건 같은 나라 제일 편하죠. 말도 그렇고. 생활 습관이 나 그런 것도 가깝고.

(사례 23) 중국 친구 만나면 중국.. 고향에 대해서 덜 외롭고.. 한국 사람 만나면 제가 알 수 없는 거 알아서 좋고요. 제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중국 친구 만나면 이제 주로 고향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도 하고.

다. 가족 의존적 관계 형성의 한계와 변화 가능성

적어도 가족 내에서는 종족적 배경을 공유하는 가족단위 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종족적 배경을 달리하는 가족원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관계망 중 모국인 관계는 결혼이민자 스스로 형성, 발전시킨 것으로 가족원들과 무관하게 발전하는 부분이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가족원들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한국인과의 관계 자체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가족 외부와의 관계도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결혼이민자 스스로 형성, 발전시키기 어려운 관계는 그 만큼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여성

자신이 동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혼, 사별을 계기로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등 생활 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 외부 관계망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지만, 남편을 통해 형성되었던 관계망이 급격히 쇠퇴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진 모순적 상황에 직면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족 의존적 관계 형성 구조로는 제한된 이들과 제한된 차원에서만 관계를 맺는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한국인과의 가교 지향적 관계에 대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기대하는 바도 충분히 발현되기 어렵다. 가교 지향적 관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의 이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이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다. 특히, 학교와 같은 장에서 다양한 배경의 한국인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교육, 문화 교육 활동이 한국인과의 관계 발달에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의 특수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활동을 할 때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호혜성을 기초로 한 지속적 관계 발달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 및 정책제언



국경을 넘은 이주가 삶의 전반적 변화를 동반하는 가운데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은 그 핵심을 구성한다. 이주자가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따라 해당자의 개인적 적응과 심리적 안녕, 생활의 안정, 가족관계 발전 등은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증가하는 다문화사회의 통합 역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회적 관계는 그 자체로서 적응과정에 있는 이주자를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물질적 자원이나 정보 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 구체적 양상은 다양하며 그에 따라 사회통합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차이가 있다. 특히, 사회통합의 자원으로서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를 다룬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종족 공동체 내, 외부에서 공히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질성을 기반으로 한 유대 지향적 사회 자본과 이질성을 기반으로 한 가교 지향적 사회 자본이 지니는 서로 구분되는 가치를 모두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사회통합에 이상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되어온 기존의 연구는 가족단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사회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사회통합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이민자로서의 일반성과 더불어 결혼이민자로서의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 내에서는 동질성을 배경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가족 외부에서 맺게 되는 가족단위 이민자에 비해, 결혼이민자의 가족생활은 주류사회 성원들과 이질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과정 그 자체이며 동질성에 기초한 관계는 가족 외부에서나 형성 가능하다. 또한 한국사회 특유의 젠더구조, 가족구조 하에서 한국인의 부인이자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 역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의 격차가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2009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 구조 자체에서 상당한 특수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한국사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들의 사회적 관계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가 이들에게 지니는 의미, 사회적 관계와 사회통합의 연관성 등에 접근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발달을 증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정책의제를 구체화하였다.

1. 결론

가.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사회적 관계의 가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생활은 사회적 관계의 부재 속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회적 관계의 공백은 공통적 경험이다. 지리적 환경이나 모국인의 분포, 개개인이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정도와 기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생활 초기에는 ‘이야기 상대도 없이 계속 집에 혼자만 있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지리적 환경이나 가족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한국생활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향출신이든 한국인이든 간에 사회적 관계의 대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에서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공백이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안녕과 가족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와 원자료 분석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미발달한 ‘소외’ 집단이 모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느 정도의 사회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이들에 비해 사회통합과 관련된 제반 측면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필요한 심리적 자질이나 정보, 물질적 자원 등을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적절히 동원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데

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회적 관계의 공백은 심각한 갈등이나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각한 가족갈등 등에 직면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혼자 참는 것’ 이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으며 상황 악화를 저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안을 동원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나. 사회적 관계의 자원

이처럼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을 진전시키거나 생활과정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심각한 가족갈등이나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사회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해당자가 요구하는 유, 무형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는 해당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특히 서로 다른 사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이주자들은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사회적 관계의 대상 풀이 특정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신사회에서 쌓아온 특정한 배경을 공유하는 이들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한편으로 이주한 사회에서 자신과는 출신 배경이 다른 이들과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 역시 열려있다는 점이야말로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결혼이민자들 역시 이주자로서 이러한 대상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적어도 가족 내에서는 출신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이민자와 달리 가족원들과 출신 배경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은 다소 특수한 측면을 지닌다.

1) 모국인과의 관계: 사회적 소외의 돌파구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의 대상 중에서도 언어, 문화적 배경을 공유할 뿐 아니라 가족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로서의 경험을 함께 하는 동향출신 여성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처음 관계를 맺는 대상이 바로 이들로서 사회적

관계의 공백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이들을 통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국생활 초기 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모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점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요구는 결혼과정 자체에 개입되어 있는 결혼중개업체나 종교기관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기관 역시 관계 형성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생활 초기에 관계를 형성하게 된 동향 출신들은 생활기간 중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에서도 핵심적 관계의 대상으로서 관계망 전체를 떠받드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결혼이민자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중 모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은 바로 이러한 점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자원 중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동향출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데에는 언어, 문화적 동질성과 결혼이주여성으로서의 공통적 경험을 기초로 다른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동원할 수 없는 유대 지향적 사회 자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을 공유하는 가족원들과는 편안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자신들이 익숙한 음식조차 자유롭게 나누기 어려운 결혼이민자들에게 동향출신과의 관계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문화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계기가 된다. 또한 언어,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밀하게 이해하고 적응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 역시 동향출신 여성들이다. 이들과의 관계를 통해 결혼이민자들은 이주 과정에서 ‘뿌리 뽑힌’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외로움에서 벗어나 적응에 필요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2) 한국인과의 관계: ‘한국인의 어머니’ 역할 수행의 자원

일반적으로 이민자들에게 있어 자신과 배경을 공유하는 동향출신 이외에 사회적 관계 형성의 또 다른 대상은 이주한 사회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자

신과 배경을 달리하는 이들, 특히 주류사회 성원들이다. 이러한 대상에 대한 관계 형성의 요구는 이들과의 관계가 내포하는 특수한 사회자본, 즉 가교 지향적 사회 자본의 성격으로 설명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이러한 관계에 대한 요구는 모국인 관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직면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가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상 이러한 과제는 일상생활과정에서 끊임없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는 결혼이민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원들의 관심사이기도 한 만큼, 이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차 관계의 대상으로서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더욱 현저해진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한국생활기간 5-7년을 기준으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요구가 모국인에게서 한국인에게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어머니’로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한국생활 초기에 모국인 관계에 집중했던 결혼이민자들이라도 자녀가 공식 교육제도와 관련을 맺게 되는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인과의 관계는 모국인과의 관계에 비해 결혼이민자 스스로의 활동이나 기관 참여 등을 통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관계 형성 자체가 타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모국인에 비해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구와 현실의 격차가 큰 것은 바로 이러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가족 의존적 관계 형성의 의미와 한계

이주자 일반에게 있어 주류사회 성원과의 관계를 포함해 ‘중요한 부분에서 자신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는)’ 이들과의 관계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다양화하는 계기로서 의미를 지닌다.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자신과 다른 배경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사회 성원, 즉 한국인들과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자원으로서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그 자신이

한국인의 가족원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한국인의 가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 때문에 한국인 관계에 높은 가치를 두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 성원을 대상으로 가고 지향적 사회 자본을 추구하는 방식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의 특수성은 반영되어 있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맺는 관계의 핵심은 바로 자신의 가족원들이며 가고 지향적 사회 자본에 대한 자신의 요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각종 지원과 정보를 제공하는 이들 역시 가족원이다. 또한 가족원 이외의 한국인과의 관계도 배우자나 자녀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점에서 결혼이민자에게 있어 한국인과의 관계는 안정된 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통합 진전의 원동력이자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사회적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그 외의 관계 형성 역시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은 다른 한편으로 커다란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다. 2009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무배우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개인이나 집안의 어려운 일을 의논할 상대’가 아무도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나 인터뷰 대상자 중 이혼, 사별을 계기로 사회적 관계의 급격한 위축을 겪은 이들의 경험에서 이러한 한계는 극명히 드러난다. 이처럼 가족에 의존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는 가족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안정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 사회통합의 진전과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이민자가 종족 공동체 내/외부에서 발달시키는 관계의 양상과 사회 통합 간의 연관성은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핵심적 관심사로서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종족 공동체 내/외부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관계야말로 이민자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이상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두 축 간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관계와 모국인 관계 양측이 서로 모순되거나 어느 한

측이 다른 측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준에서 모국인 관계와 한국인 관계 모두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균형형 집단이나 한국인 편향형 집단은 양적인 차원의 상대적인 비중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모국인 관계와 한국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관계의 축과 가족 내, 외의 구분이 일치하는 가족단위 이민자의 경우 종족 공동체 내, 외부 관계의 상대적 비중이 일정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데 비해, 사회적 관계 형성 구조가 복잡한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가족주기에 따른 생활상의 과제 변화로 결혼이민자의 가내 역할이 재구성되면서 특정한 관계의 영역이 지니는 가치나 다른 영역과의 상대적 비중이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머니 역할을 중심으로 한 가내 역할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환경 하에서 한국인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한국인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가야 하는 특수성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인 아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과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서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족단위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서구의 연구 결과에서는 종족 공동체 내, 외부 관계의 균형이 사회통합에 있어서 지니는 장점이 부각된 것과 비교해, 본 연구 결과에서는 한국인 편향형이 균형형과 더불어 비교적 긍정적인 면모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가족단위 이민자와 구분되는 결혼이민자의 이러한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관계가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모국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국인과의 관계가 일정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국인 편향형과 균형형 집단이 소외형은 물론이고 모국인 편향형 집단보다 사회통합의 제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 집단의 사회적 관계가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모국인 관계와 한국인 관계는 결혼이민자가 사회통합과정에서 직면하는 서로 다른 문제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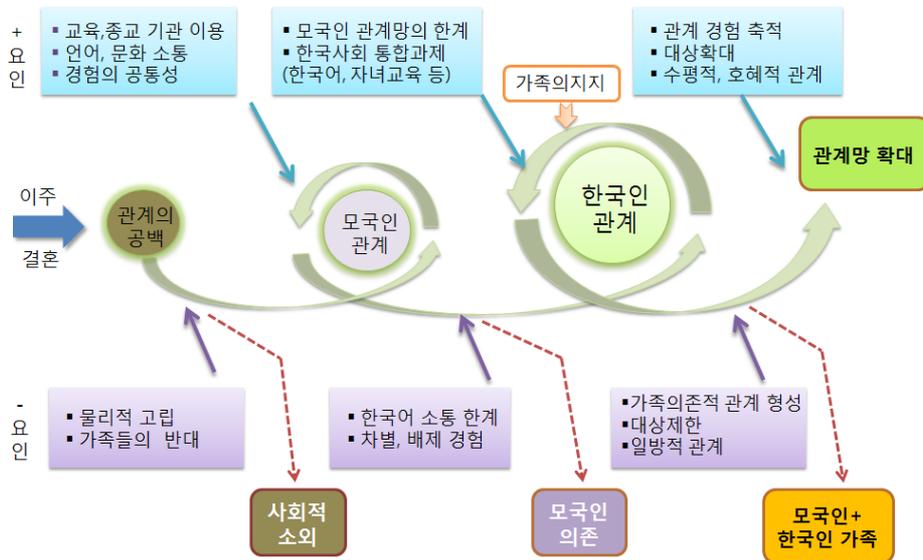
라서 한국생활 초기부터 발달시켜온 모국인과의 관계를 일정정도 유지하면서 한국인과 새로운 차원의 관계를 시도,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사회통합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사회적 자본의 동원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라. 사회적 관계 발달의 장애요인과 극복 가능성

사회적 관계의 양상은 관계에 대한 요구와 관계 형성의 자원을 결합해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관계를 증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해하는 각종 요인이 교차하는 가운데 진행되어 간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이주와 함께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기존의 관계를 대체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요구, 소통과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 무형의 자원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에는 일정한 대상과의 관계 형성 기회에 대한 접근가능성, 가족 등 주위의 지지 등이 전제되어야 하며 관계 경험의 축적 자체도 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물리적 환경 등으로 관계 형성의 대상을 찾기 힘들어 기회 자체가 제약되어 있거나 가족들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하는 경우에는 관계에 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 소통이나 상대방의 태도 등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요구와 실제 관계 형성 수준에는 적지 않은 격차가 있으며 생활 과정 중에 제기되는 각종 과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로부터 동원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형성 자체를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V-1]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양상과 주요 요인

한국생활 초기에는 불안정한 가족관계로 인해 결혼이민자가 가족 외부와 관계를 맺는 자체에 대해 가족원들이 경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가로 막는 핵심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이후에도 가족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모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가족원들의 부정적 태도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적절히 극복되지 못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들은 사회적 소외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국제결혼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역시 결혼이민자로 하여금 모국인과의 관계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국인과의 관계보다 다양한 장애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적 차원에서라도 한국어 능력과 관계 경험의 제약 등으로 인해 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 태도가 지배적인 사회 환경 역시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국인과의 관계에 비하면 가족원들의 반대가 심하지는 않지만, 가족원들

도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일관된 지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점은 이상과 같은 장애요인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 일상생활이나 자녀교육, 일자리 등과 관련해 이 관계를 통해 동원하고자 하는 정보나 기회에 대한 접근이 충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가교 지향적 사회 자본은 자신과 다른 배경을 지닌 다양한 이들과의 개방적 관계를 기초로 발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이러한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배우자나 자녀를 매개로 극소수의 한국인과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가교 지향적 사회 자본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외에 지원 기관이나 사회단체 등에서 교사나 멘토 등의 역할을 하는 한국인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이들과의 관계는 형식적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호혜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관계로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인과의 관계에 비해 한국인과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장애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향출신 뿐 아니라 비교적 다양한 배경의 한국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동원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일부 사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사회적 관계가 보다 적극적인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준의 관계 형성에는 학교, 단체, 각급 기관 등에서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한다. 특히, 한국인들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모국어나 출신문화 교육을 제공한 경험 등이 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축적하고 일방적인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 관계 발달과 현행 정책의 효과

사회적 관계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전과 건강, 가족생활 뿐 아니라 이들이 성원으로 살아가는 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서 관련 정책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이 통합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정책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정책을 추진하는 일선 기관의 존재나 이들 기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직, 간접적으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서비스 기관을 이용하고 이곳에서 시행하는 교육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체가 결혼이민자들에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는데, 이러한 기회를 통해 형성하는 관계는 주로 모국인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그 기능이 크지 않다.

구체적 사업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필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결혼이민자 자조모임(국적별, 통합국적)이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 통로로서 직접적 기능을 하고 있다.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장애요인인 가족들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교육이나 부부교육, 부부자조모임, 상담 등의 주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은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본격적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자조모임이 모국인과의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면,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자체 등에서 추진된 바 있는 멘토링이나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다문화축제 등의 행사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결혼이민자와 주류사회 성원 간 관계 형성에 있어 지니는 효과에 대해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김이선 외 2008: 136-137).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관계 형성의 계기로서 이러한 사업의 기능이 매우 미약할 뿐 아니

라, 멘토링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다분히 형식적 차원을 벗어나기 어려우며 사회적 자본으로서 의미 있는 수준의 관계로 발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가면서도 한국인들과 관계 형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여성결혼이민자의 현실을 개선시킬 만한 사업은 부재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발달을 저해하는 주요한 장애요인에 관련된 대표적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을 들 수 있다. 이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어 능력이 관계의 자신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결혼이민자 개인의 한국어 능력만으로는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복합적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차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정책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밖에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사이의 관계가 내포할 수 있는 일방적 관계성의 한계를 극복할 만한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자간 고정된 역할 규정을 전제로 하는 소위 ‘멘토링’은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 보다는 오히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지원이 지배적인 현실을 재구성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 언어·문화 교육, 결혼이민자-한국인 쌍방 언어·문화 교육,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혼이민자의 봉사활동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는 한국인 대상 다문화교육 정도가 이러한 관계의 양상을 가능하게 하나, 대부분의 교육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관계 형성 계기로는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컨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 각종 사업의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관심사로 통합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인과의 관계에 결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본격적 계기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는 찾

아보기 어렵다. 물론 사회적 관계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몇몇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 역시 기본적인 방향성을 갖추지 못한 채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같은 핵심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거의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물리적 고립이나 가족원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 상태에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 이혼이나 사별 등 가족관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관계 쇠퇴 문제와 같이 결혼이민자 정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본격적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3. 정책 제언

가.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 확립

결혼이민자를 위시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빠른 성장과 주목할 만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지원 중심적, 가족 관계 중심적 정책 기조가 지니는 한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주체로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위상을 간과하고 이들의 주체적 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의 진전 나아가 사회발전에의 기여 가능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는 개인적 안녕과 가족관계 뿐 아니라 사회통합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정적 가족관계와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중요한 관심사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문화가족 정책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나 이들의 사회활동이 간과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

지함(제1조)’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사회 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사회관계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의 세부사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활동 관련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가 사회적 관계를 토대로 생활과정 중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통합하고 관련 대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목적(제1조)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성원으로서 제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각종 활동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주요 사업 범위를 설정하는 제5조 - 제11조 수준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활동 활성화’ 조항을 신설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각종활동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및 활동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와 사회적 지지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에서도 핵심 정책목표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전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채택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기적으로 시행될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등 관련 통계에서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생산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의 핵심지표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나. 사회적 소외 위험군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

정책적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와 관련해 여성결혼이민자에 접근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물리적 환경이나 가족들의 반대와 방해 등의 이유로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적지 않으며, 이들의 경우 사회적 소외로 인해 심각한 가족갈등 등 위기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특별히 사회적 소외 가능성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생활 초기에 사회적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이들과 물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 거주자, 가족과의 갈등으로 외부와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이들 등이다. 이들 중 한국생활 초기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들이 초기에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외딴 지역 거주자나 가족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는 접근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합동으로 해당 지역의 결혼이민자 중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파악해 정기적인 방문 상담을 제공하고 소외지역 순회 교육이나 동향출신 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혼·사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장애를 겪게 되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가족관계의 차이로 인해 주위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도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가족원의 부재로 인해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통로에 대한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관계 역시 급격히 쇠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사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김이선 외 2010),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 단체 차원에서 이혼, 사별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형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족 지지 확립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있어 가족의 지지는 가장 중요한 촉진요인이자 장애요인이다.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 외부와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에도 가족들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런 만큼, 여성결혼이민자가 생활과정 중에 제기되는 각종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동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회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있어, 가족생활에 있어 사회적 관계가 지니는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지지하며 나아가 관계 발전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참여하는 교육이나 가족문화 프로그램, 상담 등을 통해 가족원들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의 자원 중에서도 모국인 관계에 대해 가족원들의 부정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만큼, 모국인 관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건강, 초기 생활적응, 임신과 출산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지지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11년부터 제도화된 국제결혼 예비 배우자 교육에서 안정적 가족관계 형성과 관련된 내용을 대폭 확충하여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라. 한국인과의 수평적 관계 형성 기회 확대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기회가 특히 부족하다.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가족 이외에는 한국인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기껏해야 남편이나 자녀를 통해 알게 된 1-2명의 한국인 여성과 오랜 기간에 걸쳐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으로는 한국생활 초기단계를 지나 한국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특히 자녀가 공식교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되는 시기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기반으로 가족 내에서 가교 지향적 사회 자원을 적절히 동원할 수 있었던 이들 조차 이러한 시점에서는 한국인과의 관계 확장에 대한 요구가 부상하지만, 실제 관계 형성에는 어려움을 겪기 쉽다.

기존의 정책에서는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해 주로 한국생활 초기단계에서 손위 연령대의 한국인 여성과의 멘토링을 통해 접근해왔으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기 단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에는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동향출신과의 관계가 오히려 기능적이며 한국인과의 관계는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사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부상하고 한국어 등도 일정 정도 준비된 시점에 자신과 생활상의 관심이 유사한 한국인과의 관계 형성 기회를 풍부하게 갖는 것으로 한국어 교육 고급과정과 연계해 한국인 여성들과의 교류 기회를 갖는 것이 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여러 모임 중 학부모 모임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관심이 특히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자녀가 공식교육제도와 관계를 맺게 될 무렵의 예비 학부모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유사한 성격의 한국인 여성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과 관심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한국인과의 관계 경험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인과의 관계가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자신의 출신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통해 한국인과 관계를 맺는 기회야말로 이러한 관계의 구도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서 주목할 만하다. 지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소수언어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출신문화(음식 등) 강습회, 결혼이민자 - 한국인 상호 언어교습 프로그램 등은 이러한 관계의 가능성을 스스로 발견하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⁴⁾

4) 대만 타이페이시가 결혼이민자(신주민)의 배우자와 그 가족, 행정기관 담당자, 교사, 자원봉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신주민)와의 기본적 의사소통과 이해, 출신문화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신이민 본국 언어 및 문화연수반'을 개설한 것이나(이재분 외 2010: 162-164) 일본 야마가타현 도자

마.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한국인과의 관계 경험이 제한된 상태에서 언어 소통 등에 있어 자신감을 결여하기 쉬운 여성결혼이민자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국생활 기간이 일정 정도 지나고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배양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흔히 직면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실제 자원봉사나 단체활동 등과 연계해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함께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회단체 및 모임 참여가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며 정서적 안정 효과도 지니고 대인 관계의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결혼이민자 교육과 이러한 사회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부모 모임이나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관심 높은 만큼, 자원봉사센터나 학교, 지역교육청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결혼이민자의 관심과 특수성에 적합한 활동 분야를 개발해 프로그램에 접목시킨다면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발, 시행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흔히 이러한 성격의 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는 과정을 보면 별 다른 효과성 검증이나 지속적인 보완 작업 없이 단발적인 연구만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급된 프로그램은 현실적 적합성, 효과성 등에 있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 시행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이나 소수자의 사회적 역

와무라에서 1990년대부터 한국출신 결혼이민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요리회’, ‘국제식문화교류회’가 개최된 것(김이선 외 2008: 146-148)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시각을 변화시키고 이들의 사회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량에 대한 프로그램 추진 경험이 있는 NGO와 여성결혼이민자의 성격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시범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시범 프로그램의 현장 적합성, 효과성 검증을 거쳐 성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발해 보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바. 결혼이민자 모국인 네트워크의 기능 확립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양육, 사회 적응 등에 있어 동향출신 결혼이민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한국생활 초기에는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인과의 관계에 비하면 동향출신과의 관계 형성 기회는 비교적 풍부한 편이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리적 환경이나 가족들의 태도 등으로 인해 동향출신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일부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동향출신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동향출신과의 관계가 한국생활 초기단계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이나, 가족생활, 사회통합에 대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단순 친목 모임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는 결혼이민자 자조모임을 본격적 멘토-멘티 관계 프로그램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즉, 최근에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는데 보다 앞서 유사한 경험을 했던 선배 여성결혼이민자가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선배 여성결혼이민자가 이러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 동향출신자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동향출신 중 사회적 소외 상태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 기관, 단체를 연결하는 역할 역시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기간이 길어지면서 종교기관이나 대사관 등을 중심

으로 엄연히 발달하고 있는 보다 공식적인 성격의 모국인 네트워크를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모국인 네트워크가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지니는 함의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한편으로는 이민자의 기본적 생존과 복지에 있어 모국인 네트워크가 지니는 기능을 정책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통합 효과를 높이고 자칫 서로 소원할 수 있는 종족간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주민 공동체의 정책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접근으로 자칫 종족간 갈등이 공식화, 표면화되어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이러한 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천한 상황에서 모국인 네트워크와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가족단위 이민자와 달리 주류사회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적어도 결혼이민자의 모국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정책차원에서 그 긍정적 기능을 주목하고 전향적인 접근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의 역사가 쌓여감에 따라 동향 출신 결혼이민자의 관계망이 보다 조직화된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양상은 앞으로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국인 네트워크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지리적 환경이나 가족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에서 소외된 여성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인터뷰 사례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이러한 네트워크가 위기상황에 직면한 결혼이민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도 이미 발견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모국인 네트워크 리더를 대상으로 한 리더쉽 교육을 추진하거나 리더 모임을 개최하여 모국인 네트워크가 지니는 정책 보완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결혼이민자(국적 미취득자 + 혼인귀화자) 대표가 참가하여 지역의 결혼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가칭)결혼이민자대표회의’의 설치를 통해 실현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⁵⁾

사. 기관, 단체, 기업 차원의 인종·문화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사회 활동이 한국인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결혼이민자의 일자리나 사회활동 성격 이외에 일터나 단체의 성원들이 결혼이민자를 대하는 태도와 조직 문화 역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에서도 결혼이민자의 취업,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와 사회단체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을 다룬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사회활동이 증가한다고 해서 직장이나 단체 차원에서 인종간, 문화간 관계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단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서로 다른 언어,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이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개별 기관이나 단체 차원에서 인종·문화간 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⁶⁾. 개별 기관이나 단체별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이를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 워크숍 등을 추진할 인력을 양성해 필요로 하는 곳에 파견하는 것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5) 일본의 지자체 중 가와사키시나 하마마츠시와 같은 외국인 집주지역에서 외국인 시민대표자회의나 외국인시민회의, 지역공생회의 등을 개최하는 것이 유의미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김이선 외 2006: 154-156).

6)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 증진을 위한 주요 프로그램의 일환인 ‘생산적 다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파트너 기업을 선정해 사원들이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와 경험, 기술, 기업 네트워크 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다양성 훈련(Diversity Training)을 실시하고 자체 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사업을 실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김이선 외 2006: 266-267).

참고문헌

- 김이선 외.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 과제』.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 여성연구 46(1): 43-95
- 김이선 외. 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김이선 외. 2010. 『다문화가족의 해체 문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이선 · 정해숙 · 이정덕. 2010.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V): 생산적 다문화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의 질적 도약 기반 구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숙 · 김희재 · 오중환.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지지와 결혼의 질의 관계". 가족과 문화 22(3): 97-127.
- 박미정 · 엄명용.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6.
- 설동훈 · 서문희 · 이삼식 · 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 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 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양옥경. 2007. "서울거주 국제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서울정책 포커스 27: 1-20.
- 이민아. 2010. "이민 전·후의 연결망이 결혼이민자 여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27: 31-60.
- 이용균.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재분 외.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 정성미. 2010.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조모임과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내 심리적 문화적응기제와 적응형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성열. 2003. "한민족 통합을 위한 문화 적응 모델 수립 :기존의 문화 적응 모델

에 대한 비판적 재고". *성곡논총* 34(上): 509-552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1-38.

Berry, John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Berry, J. W., and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R. Dasen, J. W. Berry, and N. Sartorius. eds.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pp. 207-236.

Berry, J. W., Poortinga, Y.,H., Segall, M.H., & Dasen. P.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Research and Applications*, Cambridge.

Berry, J. W., and Sam, D. L. 1997.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In J. W. Berry, M. S. Segall, & C. Kagitcibasi eds. *Handbook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 Social behavior and application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pp. 291-326

Frone, M. R., Russell, M., & Cooper, M. L. 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Testing a model of the work-family interfa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7: 65-78.

Hagan, J.M. 1998. "Social Networks, Gender, And Immigrant Incorporation: Resources and Constrain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3: 55-67.

Lin, Nan. 2000. "Inequality in Social Capital". *Contemporary Sociology* 29(6): 785-795.

Lin, Nan. 2001. "Building a Network Theory of Social Capital". in Lin, N., Cook, K, & Hawthorne, R.S.B. eds. *Social Capital: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Aldine de Gruyter. pp.3-30.

Putnam, R. D. (2007). "E Pluribus Unum: Diversity and Commun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 The 2006 Johan SKytte Prize Lecture".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0(2): 137-174.

부 록



〈부록 1〉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와의 성공적 통합을 이루도록 이들의 사회적 관계 증진방안 도출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세부적인 조사목적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관계 발전의 방향을 모색
 - 결혼이민자의 개인, 가족적 특성이나 사회관계 유형별 비교를 통해 사회적 관계 차원의 정책과제를 구체화
 - 집단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

2. 조사 범위

- 현장 조사 기간 : 2011. 7. 5 - 2011. 7. 30 (30일 간)
- 조사 지역
 - 경상권, 충청권 8개 시·군 거주 약 500명
 - 시지역 : 구미시, 논산시, 양산시, 청주시 300명
 - 군지역 : 보은군, 영양군, 연기군, 의성군 200명
- 조사 대상
 - 출신국적
 - 중국(조선족 제외),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5개국에 한함.

- 거주기간
 - 전체적으로 거주기간 2년 이상에 한하여 조사.
 - 거주기간이 고루 분포되도록 함. 2~5년, 5~7년, 10년 이상으로 분포되도록 함.
- 센터 이용여부
 - 센터이용자에 편중되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센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25% 정도 포함되도록 노력
- 유의사항
 - 거주지, 연령대, 한국 거주기간이 특정한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사에 유의함.

3. 설문조사원 책임사항 : 조사에 임하는 자세

- 조사원은 신의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한다.
- 조사원은 반드시 1대 1 상황에서 설문을 진행해야 하며, 응답자에게 충분한 문항설명을 해야 한다.
- 조사원은 응답자의 답변을 설문지에 기입해야 하며, 임의로 대리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 (응답자가 직접 기입해도 무방하나 오류가 나지 않도록 유의)
- 조사원은 설문에 응답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필히 제공해야 한다.

4. 조사시 유의사항

- 현장 조사
 - 작성된 설문지의 내용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한다.
 - 설문지 내용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빠진 부분은 다시 응답자에게 확인하여 설문지를 충실하게 채워 넣는다.
→ 무응답이 없는지 확인하여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재되도록 한다.

□ 조사 언어

- 조사표 언어: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7개언어)
이 가운데 조사대상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진행하도록 함.
- 자국어로 응답을 쓰는 경우 (사람 명수, 자유응답, 숫자 등)
→ 반드시 한국어로 재작성한다
- 응답자가 자국어로 답하는 경우, 조사원은 현장에서 확인, 혹은 통번역사를 통하여 반드시 재확인후, 한국어로 기재한다.

□ 설문지 문항별 세부 유의사항

- 문3) 응답자 본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한다.
- 문3-1) 이 문항에서의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등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 문4) 중퇴를 한 경우에는 그 전 단계에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응답자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을 경우, 보기 중 “√ ②중학교”에 표시한다.
- 문5) 문4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 문6) “√ ③한 번도 일을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문7로 이동하며, 나머지 응답은 문6-1로 이동한다.
- 문11~문18) 상위문항(문XX)의 경우 질문 우측에 있는 【총 ___명】에 반드시 응답한다. 하위문항 (문 XX-1, XX-2...)의 경우 문제의 보기에 해당되는 각 인원수의 총합이 상위문항에서 응답한 총 명수와 일치해야 한다. (12-4, 12-5 제외)

※ 다음 밑에 제시된 예를 참고.

▶ 문11~문18 예시

문13. 귀하가 남편이나 시댁 식구와의 문제로 힘들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총 10 명]

문13-1. 문13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문13-2. 문13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① 남편의 부모, 형제, 친척	② 본인의 부모, 형제, 친척	③ 기타
5 명	3 명	2 명	4 명	1 명	5 명

즉,
문13-1) $5 + 3 + 2 = 10$ (문13의 총 명수)
문13-2) $4 + 1 + 5 = 10$ (문13의 총 명수)

- 문12-4, 12-5) 반드시 세 가지씩 보기를 골라 응답을 표시한다.
- 문17)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응답하며, 직장생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문18번으로 이동한다.
- 문26-2) 문26-1에서 보기 “√ ①(참여한다)”에 표시한 경우에만 문26-2에 응답한다.

※ 다음 밑에 제시된 예를 참고.

▶ **문26-2 예시**

문26. 귀하는 현재 다음과 같은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모임의 구성원은 주로 누구입니까?

문 항	문26-1. 현재 참여여부		현재 각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응답하세요	문26-2. 모임의 구성원은 주로 누구입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인 위주	모국인 위주	한국인, 모국인 골고루	
1) 종교단체 모임	√①	__②		__①	√②	__③	→ 옳은 답변
2) 자원봉사단체 모임	__①	√②		__①	__②	__③	
3) 친목모임(친구계모임), 동호회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 틀린 답변
4) 시민단체 모임 (여성단체 포함)	__①	√②		__①	__②	√③	
5) 학부모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6) 지역주민(부녀회 포함)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7) 정당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 **문29)** 문28에서 참여 단체나 모임이 하나 이상인 응답자만 응답한다.

□ 행정사항

- 조사가 끝나면 반드시 답례품을 지급한다
- 설문 조사원은 매일 진행된 조사결과를 조사책임자(센터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 수거한 조사지마다 조사책임자(센터장)의 검증을 받은 후, 완료, 제출
한다.
- 조사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센터장이나 여성정책연구원의 담당연
구원에게 확인을 받는다.(주유선연구원, 02-3156-7201/ 이정원연구원
02-3156-7096)

□ 협조사항

○ 심층면담자 발굴 및 협조

- 설문 조사단계에서 사회적 관계가 매우 활발한 여성결혼이민자(한국인, 모국인 모두와의 관계가 활발), 또는 관계가 매우 적어 고립되어 있는 여성을 발굴, 심층면담자로 추천

5. 센터의 책임사항(센터장 관할)

□ 조사원 관리 : 업무일지 대장, 답례품 관리

□ 수거된 설문에 대한 검증작업 :

→ 검증은 회수된 설문지를 100% 검증.

○ 개개 설문지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센터는 센터장 책임하에 회수된 설문지를 100% 검증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기해야 한다.

→ 이를 설문 조사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조사의 신뢰성이 의심될 경우 해당 설문 조사원이 행한 모든 설문지를 무효화하고 재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 검증원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질문에 대한 logic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예: 일한 경험이 없는데, 직업난에 응답한 경우 등)
- ② 면접에 소요된 실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 ③ 응답하지 않고 빠진 항목이 없는지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모든 응답에 응답)
- ④ 자국어로 기재한 항목이 없는지 (반드시 한국어로 재작성)

□ 조사원에 대한 전달 교육

- 각 센터별로 설문실시 요령에 대한 전달교육을 동일하게 실시한다.

□ 근무 일지 기록

: 설문 조사원은 면접 조사실시마다 조사 시작 일자, 조사 시작 시간, 면접한 이주여성 등을 기록한 근무일지(조사일지)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추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거하게 됨.

□ 질문상황에 대한 의문

: 조사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에게 문의 전화 가능

: 주유선연구원(02-3156-7201)

이정원연구원(02-3156-7096)

6. 기타사항

- 조사 기간 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팀이 각 센터를 방문, 조사진행상의 문제 및 개선사항 논의, 심층면접을 실시하도록 함.

〈부록 2〉 설문조사표



일련번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조사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번에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결혼이주여성들이 평소에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과 서로 어떻게 도우며 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수립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사용되오니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사관련 문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면접자 기입란	SQ1) 응답자의 결혼 전 국적은 어디입니까? __① 중국(한족) __② 베트남 __③ 필리핀 __④ 일본 __⑤ 캄보디아선족
	SQ2) 응답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__① 구미시 __② 청주시 __③ 양산시 __④ 논산시 __⑤ 의성군 __⑥ 영양군 __⑦ 보은군 __⑧ 연기군 __⑨ 기타
	SQ3) 응답자가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모두 어느 정도입니까? ____년 ____개월
	SQ4) 응답자의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__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음 __② 배우자가 있지만 현재 별거중임 __③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함

면접 일시		____월 ____일	갑수 일시		갑수자	
응답자	이름(별명)		면접자	이름		
	연락처 (응답자 동의 하에 기재)			연락처 (핸드폰 번호)		

196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문6-1. 그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러 개 하신 경우, 가장 주된 일을 하나만 골라서 기입하십시오)

- ① 농업 ② 공장의 생산직
- ③ 식당, 가게 등 종업원 ④ 외국어 강사(개인, 학원강사 등)
- ⑤ 기업체 사무직 종사자
- ⑥ 다문화 관련 일(다문화 강사, 방문지도사, 통번역사 등)
- ⑦ 기타 (_____)

문7. 귀하의 남편은 현재 일(직업)을 하고 계십니까?

- ① 현재 일을 하고 있다 ②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

문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없다 ② 천주교 ③ 기독교 ④ 이슬람교 ⑤ 불교 ⑥ 통일교
- ⑦ 기타 (_____)

문9. 귀하 가정의 한달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⑤ 모름

문10. 귀하는 지난 1년간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관 등)을 이용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이용한 적 거의 없다 ② 서너달에 1~2번 이용한다
- ③ 한달에 1~2번 이용한다 ④ 일주일에 1~2번 이용한다

II. 사회적 관계

▶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란 예를 들면 자신의 고민거리를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 다음은 여러분과 가깝게 지내는 분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문11. 귀하가 **본국에서** 생활하실 때 **가깝게 지낸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총 _____ 명】**

문11-1. 이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가족	② 친구	③ 이웃	④ 직장 동료	⑤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문12. 현재 귀하가 **한국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 **【총 _____ 명】**

문12-1. 이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외국인
_____명	_____명	_____명

문12-2. 위의 모국인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본인의 가족	_____명
② 친구	_____명
③ 이웃	_____명
④ 직장 동료	_____명
⑤ 공공기관 종사자 (복지사/센터종사자 등)	_____명
⑥ 기타	_____명

문12-3. 위의 한국인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남편의 가족	_____명
② 친구	_____명
③ 이웃	_____명
④ 직장 동료	_____명
⑤ 공공기관 종사자 (복지사/센터종사자 등)	_____명
⑥ 기타	_____명

문12-4. 귀하는 친하게 지내는 모국인들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된 것 3가지만 표시하세요)

- | | |
|--------------------|----------------|
| __① 이웃 주민으로 | __② 종교 활동 |
| __③ 친목 모임, 취미 활동 | __④ 교육 프로그램 참가 |
| __⑤ 결혼이주민 지원 행사 참여 | __⑥ 자녀 학교모임 |
| __⑦ 공공기관 이용 | __⑧ 본국에서부터 알았음 |
| __⑨ 기타 (_____) | |

198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문12-5. 귀하는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들과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된 것 3가지만 표시하세요)

- ① 이웃 주민으로 ② 종교 활동
 ③ 친목 모임, 취미 활동 ④ 교육 프로그램 참가
 ⑤ 결혼이주민 지원 행사 참여 ⑥ 자녀 학교모임
 ⑦ 공공기관 이용 ⑧ 기타

▶ 사람들은 다양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귀하도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3. 귀하가 남편이나 시댁 식구와의 문제로 힘들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총 _____명】**

문13-1. 문13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문13-2. 문13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① 모국인</td> <td style="width: 33%;">② 한국인</td> <td style="width: 33%;">③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r> </table>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① 남편의 가족</td> <td style="width: 33%;">② 본인의 가족</td> <td style="width: 33%;">③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r> </table>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문14. 만일 귀하가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총 _____명】**

문14-1. 문14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문14-2. 문14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① 모국인</td> <td style="width: 33%;">② 한국인</td> <td style="width: 33%;">③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r> </table>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① 남편의 가족</td> <td style="width: 33%;">② 본인의 가족</td> <td style="width: 33%;">③ 기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_____명</td> </tr> </table>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문15. 귀하가 자녀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생길 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총 _____명】**

문15-1. 문15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문15-2. 문15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문16. 귀하가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총 _____명】**

문16-1. 문16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문16-2. 문16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문17. 귀하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임금, 근로조건 등)을 겪을 때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총 _____명】**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직장생활을 하는 분만 응답하세요. 일한 경험이 없는 분은 **☞ 문18 로**)

문17-1. 문17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문17-2. 문17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문18. 귀하는 한국에서의 체류 자격, 국적 취득 등과 관련해 편하게 의논할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 **【총 _____명】**

문18-1. 문18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국적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문18-2. 문18에서 답변한 사람들 중 다음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몇 명입니까?	
① 모국인 ② 한국인 ③ 기타	① 남편의 가족 ② 본인의 가족 ③ 기타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_____명	

200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문19. 귀하는 현재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19-1. 한국인과의 관계

문19-2. 모국인과의 관계

- ① 알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편이다
- ② 적절하다
- ③ 너무 많은 편이다

- ① 알고 있는 사람이 부족한 편이다
- ② 적절하다
- ③ 너무 많은 편이다

문20. 귀하가 앞으로 더 많이 알고 싶고,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만 고르시오.

- ① 모국인 친구나 이웃
- ② 한국인 친구나 이웃
- ③ 지금으로 충분하다

Ⅲ. 한국생활 및 사회활동 경험

문21. 귀하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구 분	매우 잘한다	잘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서툰 편이다	매우 서툴다
1) 한국어 말하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2) 한국어 읽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3) 한국어 듣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4) 한국어 쓰기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문22. 귀하의 가족은 귀하의 사회활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가족은 내가 한국인 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2) 나의 가족은 내가 한국인 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3) 나의 가족은 내가 모국인 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4) 나의 가족은 내가 모국인 이 많이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한다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문23. 귀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차별을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한국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2)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느낀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3) 나는 한국인이 나에게 반감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4) 나는 언어 때문에 한국인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적이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5) 내가 외국인이어서 한국인들이 나를 피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문2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차별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심하다	약간 심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심하지 않다	전혀 심하지 않다
1) 장애인에 대한 차별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3) 여성에 대한 차별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4) 결혼 이주자에 대한 차별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문25. 귀하는 한국에 온 이후 다음과 같은 교육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받아본 적 없다	한두 번 받아본 적 있다	여러 번 받아본 적 있다
1) 한국어 교육	__①	__②	__③
2) 가족생활 이해 교육 및 상담	__①	__②	__③
3) 자녀교육 관련 상담 및 지원	__①	__②	__③
4) 한국생활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__①	__②	__③
5) 직업(창업)교육 훈련	__①	__②	__③
6) 일자리 연계(취업) 서비스	__①	__②	__③

202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문26. 귀하는 현재 다음과 같은 모임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모임의 구성원은 주로 누구입니까?

문 항	문26-1. 현재 참여여부		현재 각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응답하세요	문26-2. 모임의 구성원은 주로 누구입니까?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한국인 위주	모국인 위주	한국인, 모국인 골고루
1) 종교단체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2) 자원봉사단체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3) 친목모임(친구·계모임), 동호회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4) 시민단체 모임 (여성단체 포함)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5) 학부모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6) 지역주민(부녀회 포함)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7) 정당 모임	__①	__②		__①	__②	__③

문27. 귀하가 현재는 참여하지 않으나 향후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모임에 참여하고 싶습니까?

문 항	참여 의향이 있다	참여 의향이 없다
1) 종교단체 모임	__①	__②
2) 자원봉사단체 모임	__①	__②
3) 친목모임(친구·계모임), 동호회 모임	__①	__②
4) 시민단체 모임 (여성단체 포함)	__①	__②
5) 학부모 모임	__①	__②
6) 지역주민(부녀회 포함) 모임	__①	__②
7) 정당 모임	__①	__②

문28. 귀하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의 수는 몇 개입니까? ⇨ 【 _____ 개】

문29. (☞ 문28에서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하나 이상인 사람만 답해주십시오)
 단체나 모임에 참여하신 뒤, 그러한 모임을 통해 귀하는 얼마나 변화하였습니까?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2) 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가족관계가 좋아졌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3) 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졌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4) 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아졌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5) 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6) 나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를 고치는데 참여하게 되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문30.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문30-1. 한국인 친구와 사귈 수 있는 기회 문30-2. 모국인 친구와 사귈 수 있는 기회

- __① 매우 많다
- __② 많은 편이다
- __③ 그저 그렇다
- __④ 적은 편이다
- __⑤ 매우 적다

- __① 매우 많다
- __② 많은 편이다
- __③ 그저 그렇다
- __④ 적은 편이다
- __⑤ 매우 적다

IV. 삶의 만족도 및 문화적 유능감

문31. 귀하는 현재 한국 생활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의 결혼생활이 불만스럽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2)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위 환경이 좋지 않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4)	현재 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불만스럽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5)	나의 경제생활 수준이 불만스럽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문32. 귀하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하나만 골라주세요.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한국 사람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2)	나는 모국과 한국의 풍습을 모두 잘 알고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3)	나는 한국 사람의 사고방식(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4)	나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 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종종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5)	나는 한국 사람들이 대화중에 사용하는 몸짓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6)	나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이 없는 편이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7)	나는 한국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는데 별 문제가 없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8)	나는 주말 등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누구와 어떻게 보내야 할 지 막막하고 괴롭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9)	나는 한국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가 편하지 않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0)	나는 아직도 한국이 낯설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1)	나는 앞으로 10년 안에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문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2) 이제는 한국이 나의 모국만큼 편안하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3) 나는 한국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제대로 골라 살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4) 나는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5) 나는 한국에서 어디든 잘 찾아갈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6) 나는 학교 선생님과 자녀교육 문제로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7) 나는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가서 혼자 필요한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8) 나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19) 나는 내가 필요한 일자리 정보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20) 나는 혼자 은행에 가서 일을 처리하기 어렵다	__①	__②	__③	__④	__⑤

〈부록 3〉 인터뷰 문항

[공통]

- 인적사항
 - 이름(가명), 연령, 출신국적, 직업
 - 남편의 연령, 직업
 - 한국생활기간
 - 결혼관련: 시기, 배우자를 처음 어떻게 만났는가,
자신과 남편의 이전 결혼경험(초/재혼), 그 외 결혼관련
 - 가족관계: 동거가족, 과거 동거가족,
자녀수, 연령
남편의 원가족(시댁식구)
자신의 원가족,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가족, 친족원

1. 이주와 사회적 관계

- 한국에 온 초기에 사회적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 한국 생활 초기에 가족,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낀 적은? --> 구체적으로
 - 가족, 친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 구체적으로
 - 이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한국에 있었나요? --> 어떤 관계를 유지했었습니까?
- 지금은 어떻습니까?
 - 초기에 가족이나 친구가 멀리 떨어져 있어 힘들었던 점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 힘든 점이 줄어들었다면 언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2. 사회적 관계 현황

- 가족원 이외에 알고 지내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 가족원 이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 처음 한국에 왔을 때에는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언제 어떻게 만났습니까?
- * 모국 출신자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 얼마나 자주 만나나요? 만나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 (친구 중에서도) 모국 출신 친구는 무엇이 좋습니까?
- * 모국 출신 이외에 이주여성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만나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 모국 출신 이외에 이주여성 친구는 무엇이 좋습니까?
- *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 또는 한국인 친구가 있습니까?
·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만나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 한국인 친구는 무엇이 좋습니까?

3. 사회적 관계의 자원으로서의 가치

- 살면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어떤 일이었습니까?
·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습니까?

- 누구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 어떤 것이 궁금했습니까?
 - 누구에게 물어보았습니까?

- * 아플 때, 출산했을 때 등의 긴급상황
- * 남편과의 관계, 시댁식구와의 관계 등 가족일
- * 자녀양육, 교육 관련 정보 등
- * 아이 봐주기 등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 체류자격 연장이나 국적 취득에 대한 정보
-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보, 일반적 지원 정보

- 주위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마땅히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 누구에게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어 어려웠던 적,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 본인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 구체적으로

4. 사회적 관계 발전에 대한 요구와 장애요인

- 사람을 좀 더 사귀었으면 좋겠다, 친한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 언제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 어떤 사람을 사귀고 싶었나요?
 - 그런 사람을 사귀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구체적으로

- 친한 사람이 적어서 어렵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 누구를 사귀기 어렵습니까?
 -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 자신) 소극적이어서
- * 가족) 가족들이 싫어해서
- * 상대방)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서...

[집단별 핵심질문]

- 사회적 고립 집단
 -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없는(아주 적은) 이유
가족들은 가족 이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싫어한 적이 있는가?
주위에서 사람들을 사귀라고 권유하는 사람은 없는가?
 - 가깝게 지내는 이들이 없어서(너무 적어서) 어려웠던 적, 답답했던 적
 - 가까운 이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은 --> 어떻게 했는가?
 - 가까운 이를 사귀려고 한 적은, (사귀려고 한 적이 있으면) 왜 잘 안되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사귀려고 한 적이 없으면) 왜 그랬는지
- 편향적 관계 형성 집단 (모국출신 편향)
 - 가깝게 지내는 한국인이 없는(아주 적은) 이유
가족들은 모국 출신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인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싫어한 적이 있는가?
 - 한국인 친구를 사귀라고 권유한 사람은 있는가?
 -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어려웠던 적, 답답했던 적
 - 한국인 친구가 필요했던 적은? --> 어떻게 했는가?

210 ●●●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 한국인 친구를 사귀려고 한 적이 있는지, (사귀려고 한 적이 있으면) 왜 잘 안되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사귀려고 한 적이 없으면) 왜 그랬는지

- 편향적 관계 형성 집단 (한국인 편향)
 - 가깝게 지내는 모국인이 없는(아주 적은) 이유
가족들은 모국 출신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싫어한 적이 있는가?
한국인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모국인 친구를 사귀라고 권유한 사람은 있는가?
 - 모국인 친구가 없어서 어려웠던 적, 답답했던 적
 - 모국인 친구가 필요했던 적은? → 어떻게 했는가?
 - 모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사귀려고 한 적이 있으면) 왜 잘 안되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사귀려고 한 적이 없으면) 왜 그랬는지

- 균형적 관계 발달 집단
 - 한국생활 초기에는 주로 어떤 이들과 가깝게 지냈는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떤 친구들이 생겼는가?
 - 모국인, 한국인 모두와 가깝게 지내게 된 계기는?
 - 가족들은 모국인, 한국인 모두와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위에서 폭넓게 사람을 사귀도록 권유한 사람이 있었는가?
 - 모국인, 한국인 친구가 모두 다 있어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인가?

Abstract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Yi-Seon Kim
Moo-Suk Min
Kyung-Mi Kim
Yoo-Sun Chu

Migrants have to reconstruct all the social relationships they have already formed and developed upon their migration. Therefore, reconstruction of social relationships suited for new environments acts as a crucial factor not just for individual migrants but for overall social integration. It is highly likely that isolation of migrants at the personal level and social isolation at the migrant group level may work as a crucial and challenging factor for social integration and as a conflict factor for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mid-2000s,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on a large scale. While focusing on

personal adaptation of marriage-based immigrants, however, the government excluded their social relationships from its high priority matter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seek ways for developing the relationships that may have positive impact on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immigrants. Through comparison of personal and familial characteristics of marriage-based immigrants and types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aims to specify policy tasks at the level of social relationships and to suggest ways for providing customized support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 of each group.

Based on the size of social networks of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 and its relative proportion of Koreans and ethnic people, this study divided them into isolated group, Korean-biased group, ethnic people-biased group, and balanced group.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solated group had a consistently low social cohesion level compared to other groups of social relationships, and ethnic group-biased group was not much different from isolated group with a low social integration level. Because of the specificity of marriage-based immigrant women who come to Korea all alone unlike family-based immigrants, Korean-biased group showed a comparatively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 and competency of communication compared to other groups. Balanced group had the highest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This suggests that this group is advantageous in holding rich social resources and information sources. It was also found that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Korean language skill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family members' support for their social relationships with Koreans had important impact on their social inte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frequency of their using support centers and various types of local resources had less significant impact on their social integration than expe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most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experienced a vacuum of social relationships at the outset of their immigration and initiate their social relationships through a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ethnic people. This network with ethnic people provided these women with mutual support while helping resolve their difficulties and stress which had not been solved within their family. As they finished adjusting to Korean society and their children grew, however,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began to take more interest in relationships with Koreans. They started to form relationships with Koreans mostly through the medium of family members, including their husbands or children and it was not easy for them to form relations through their own action.

It is currently required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ave a proactive approach to social relationships of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at the policy level.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respond actively to female marriage-based immigrants who are highly likely to be socially isolated. It is also important for Korean family members to offer support for them through enhanced understanding of their social relationships. Next,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bridge programs for these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expand opportunities for them to form horizontal and reciprocal relations with Koreans. It should also establish network functions of ethnic people and support implementation of programs for promoting racial and cultural relationships at the organizational and group levels.

조사협조기관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양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영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1-27-04
2011 연구보고서-15-3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2011년 12월 28일 인쇄
201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455-1 94330

978-89-8491-451-3 94330 (세트)

<정가 12,500원>